



## 재단 소개 004 사업 소개 006

## Middle East

중동

## Asia

아시아

리야드 현장 현대중공업	566	014
사비야 현장 현대중공업		022
다스 현장 현대 <del>중공</del> 업		028
쿠웨이트 지사 현대중공업		032
두바이 지사 현대중공업		036
제벨알리 지사 현대중공업		040
중동 지사 현대오일뱅크		044
리야드 지사 현대중공업	566	048

우수리스크 법인 현대지원개발		054
인니공단 법인 현대종합상사		058
인도 법인 현대중공업		062
싱가포르 법인 현대오일뱅크	<u>(2</u>	070
HVS 법인 현대미포조선	* 2	074
강소 법인 현대중공업	* 1	082
금융리스(사) 현대중공업	*	090
북경법인 현대중공업	* :	094
상주 유압 법인 현대중공업	* 1	102
양중 법인 현대중공업	*	106
중국지주(사) 현대중공업		114
태안법인 현대중공업	*	122
상해 법인 현대오일뱅크	*	126
북경 지사 현대종합상사	*	130
쿠알라룸푸르지사 현대종합상사		134
자카르타 지사 현대종합상사		136
호치민 지사 현대종합상사	*	140
뭄바이지사 현대중공업		142
싱가포르 지사 현대 <del>중공</del> 업	<u>C</u>	146
동경 지사 현대중공업	•	150
오사카 지사 현대중공업	•	154

## Europe

유럽

### **America**

미주

아테네 지사 현대중공업		160
로테르담 지사 현대중공업		164
오슬로지사 현대중공업		168
모스크바지사 현대중공업		172
마드리드 지사 현대중공업	6	176
런던 지사 현대중공업		180
이스탄불 지사 현대중공업	C·	184

 뉴저지지사 현대중공업
 ■
 190

 애틀랜타지사 현대중공업
 ■
 194

 휴스톤지사 현대중공업
 ■
 198

법인장의 편지 202 멘토 편지 208 현지인 편지 214 아산니눔재단 소개

## 004

# 아산나눔재단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 정주영 선생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 소외된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아산나눔재단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창업자 가족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동체 구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 글로벌 리더 육성



Part 03 양극화해소

#### Part 01 청년창업 지원

### · 이산 기업가 정신 포럼

아산 정주영 선생의 창조적 기업 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 습니다.

#### · 창업캠퍼스 운영

선배 사업기들의 밀착 코칭 및 실 습중심의 실천창업교육인 프라이 머엔턴십을 후원하고, 실리콘 벨 리의 대표적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인 Plug & Play Tech Center와 협력합니다.

#### ·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기업 투자가 주 목적인 엔젤투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유망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 자기금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해 외 진출도 지원하여 실질적 창업 성공을 돕고자 합니다.

#### Part 02 글로벌 리더 육성

글로벌 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국제 기구,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에 인 턴을 파견하여 현장실습 및 해외 문화체험을 진행하여 글로벌리더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인턴 파견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청년들이 저 개발국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 으로써 세계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 · 아산프론티어 사업

아산프론티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해외 탐방주제를 선정하고 탐방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능동적 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 적 사고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NGO/NPO 지원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 해서는 민간 비영리 분야가 활성 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NGO, NPO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간접지원 사업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비영 리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 지역사 회 역량 개발 분야 사업을 중점 지 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소개

#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아산나눔재단은 글로벌 청년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 래 청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인턴 파견 사업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장에 청년들을 파견하며, 향후 UN 등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 니다.

아산나눔재단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며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국제기구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해외인턴 2기는 2012년에 모집하여 국내 교육 수료 후 지난 7월부터 222명이 현대중공업의 해외 법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에서 사우디, 쿠웨이트, UAE의 중동, 미국, 유럽에 이르는 18개국 39개 사업장에 파견되어 다양한 현장과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 청년 해외인턴 참가 대상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 · 여 청년



### 청년 해외인턴 파견 취지

- ◆ 청년리더에게 해외 근무경험 제공
- ◆ 학력, 나이, 연령, 성별에 구애 받지 않는 열린 운영

ASAN NANUM FOUNDATION

### 청년 해외인턴 파견 목적

-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 ♦ 청년 도전 정신 고취





### 청년 해외인턴 파견의 진행 방식

모집공고 — 선발전형 — 국내교육 — 출국준비 — 해외파견

### 청년 해외인턴 파견 활동

- ♦ 해외 진출 사업장에서 인턴 근무
- ◆ 글로벌 문화체험
- 하외 CSR 수행



#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인턴 2기





#### 청년 해외인턴 2기 사전교육 현장모습



#### 청년 해외인턴 2기 국내교육 모습







#### 청년 해외인턴 2기 출국준비 모습













#### 김상훈 성실한남자

뜨거운 태양아래 쉼없이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배우는 자. 낮 선 땅에서 한 새로운 경험과 교훈들을 나의 밑거름을 삼겠다는 성실한 남자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근무 중. '일할 때는 일하는 것처럼, 놀 때는 노는 것처럼'이 목표인 분위기 메이커



국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 현장 기계부 서에서 근무 중인 청년



# Riyadh

인턴소개 🚟



#### 김지한 스포츠 맨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50도가 넘는 더위를 이겨낸 사나이. 여가시간에는 족구, 탁구와 같은 운동을 함께 하며 피로를 푸는 스포츠 매



#### 김현 문과생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현장을 보고 깜짝 놀 랐다는 현, 문과 임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플랜트로 지원해 부서에서 계약과 보험 에 대해 공부 중인 청년

#### 김현수 독립보행

홀로 HSE(Health Safety Environent)에서 근무. 플랜트 건 설 현장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담당. 외로움을 이겨내고 부서의 외국 스태프들, 한국 직원 분들과 잘지내는 적응력을 가진 남자



플랜트 시설을 미리 운전해 봄으로써 문제를 진단. 실제 현장을 보며 공부했 던 내용을 적용하는 중인 최고령자



#### 박광민 행정지원

행정학 전공. 플랜트라는 분야가 낯설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선배님으로부 터 현대 정신을 배우는 중.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청년



#### 박준영 적응남

E&I 부서로 배정되어 BOP지역을 담당. 사막의 더위와 낯선 언어들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남자

Tigg Bigg

#### 박지석 총무과, 족구 심판

국내 교육부터 현장까지 홀로 배치를 받은 외로운 영혼, 어리 바리한 초보 족구 심판

#### 박호용 Pre-com(Pre-Commission)부

시운전과정 전에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 는지를 확인하는 부서에서 근무 중, 주요 업무 로 배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업무를 담당. 중동 지역과 플랜트 산업에 관심이 많은 미래의 엔지 니어



#### 기계시운전부, 부산 사나이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 하나 믿고 중동으로 달려온 열 혈 청년



#### 이하용

#### 기계시운전부, 승부욕 대마왕

아무나 올 수 없는 중동의 선택을 받은 자! 엄청난 자부심을 안고 열 심히 살아가는 남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 직업 선택과 회사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현장에서 직 접 체험 중인 청년



기계장치나 설비를 전기를 통해 계측하고 제어하는 일을 담당. 발전기나 다른 장비들 이 잘 연결 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케이블, 파이프 작업 및 판넬 설치를 하는 일을 밑 아 자부심 충만!



#### 장동수 기계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 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 플랜트 설계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 다는 큰 꿈을 안고 사우디아라비 아로 날아온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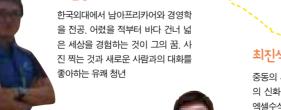
#### 정수영 QA/QC(품질관리)부

리야드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사나이. 건축, 토목, 전기, 배관, 기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포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기 때 문에 부서에서 많은 것을 배워 행복하다는 청년

#### 조현승 유쾌청년

#### 최진석 원가부,조창

중동의 사막, 뜨거운 현장에서 또 하나 의 신화를 창조 중인 현장에서 열심히 엑셀수식과 계산기를 두드리는 청년. 남 자들끼리 있어서 별로 대화도 없고 다소 딱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끈끈한 정을 느끼며 행복하다는 우리의 조장







최창확 시운전-전장부, 허당 뜨거운 사우디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전자공학을 전공. 시운전-전장



50도를 넘나드는 온도, 사막의 뜨거운 열풍과 모래바람, 저 멀리 보이는 낙타들, 이젠 낯설지 않은 사우디 리야드 이곳 현장의 모 습입니다.

이곳의 하루는 4시 반에 알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5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6시에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나름 부지런하다고 생 각했던 저도 4시 반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엔 쉽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찍 잠에 들고 일찍 일 어나는 것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리야드 현장 시운전기계부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파이프, 밸브, 보일러, 펌프, 터빈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장치들의 시운전을 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하고 점검하는 일이 시운전부의 주된 업무입니다.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모 래바람을 들이마시기 일쑤지만, 현장 곳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일들은 책으로 배우는 것 훨씬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공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느 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입니다. 이 곳 현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플랜트와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중심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입

니다. 모래뿐인 이 척박한 사막의 땅에 발전소를 짓고, 리야드 시 내에서도 수백 킬로 떨어져 주변이 허허벌판인 열악한 환경 속 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현대중공업의 많 은 직원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이곳은 한국에 비한다면 굉장히 덥고 주변 환경 또한 열악하며, 아무것도 없는 오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마음을 달리 먹으면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해외에서 그저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놀러온 것이 아니라 인턴생활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며 제가 가진 꿈의 크기를 늘리고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우디 리야드 현장의 멋진 인턴동기 17명과 함께하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아산나눔재단 해외인턴 3기에게도 사우디 강력 추천합니다!





Tigg E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자

최창환

리야드 현장은 공항에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 현장은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오지였으며 주변에는 인적이 드문 현대중 공업만의 마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현장 도착 후 우리를 공항에서부터 인도하셨던 박정희 과장님이 사무실을 돌면서 각 부서마다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는 부서배치를 받게 되었다. 많은 부서 중에 나는 시운전(Commissioning)팀의 I&C(Instrument & Control)팀으로 배치 받았다. 다행히 전공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대감에 부푼 채로 인턴생활을 임하게 되었다.

사우디에서의 아침은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알람소리를 듣고 룸메이트 형과 함께 일어난 후 씻고 옷을 입고 5시에 밥을 먹으 러 Mess Hall(식당)로 간다 아침식사는 빵과 밥이 제공되며 샐 러드와 우유 및 다양한 반찬이 나와 든든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 하게 된다. 나는 배를 채운 후 곧 장 C-1부터 C-4(직원 분들 숙소) 에 있는 빈 전화기를 찾아 한국의 가족,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이 날 때면 자주 애용했다. 이 번 인턴생활에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최대한 직원 분들 보다 먼저 출근해, 오시는 직원 분들에게 "출근하셨습니까?"하며 인사를 씩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직원 분들과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으므로 강력추천! 그 후에는 메 일을 확인하고 동시에 직원 분들이 말하거나 시키는 것을 잘 듣 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다행히 나의 자리는 옆이 기원 님 자리, 바로 앞이 부장님 자리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 덕분에 직원 분들의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주로 나는 플랜트관 련 용어와 기호를 공부하고 나아가 도면을 본다. 또 직원 분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도면상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맞춰보고 기계 마다 작동원리를 배운다. 참고로 나의 인턴 두 번째 목표가 도면 보는 방법을 익히고 플랜트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는 데 이 목표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점심시간은 11 시 30분부터이며 다시 Mess Hall로 향해 점심을 먹는다. 점심과 저녁은 기본 5~6찬 정도가 나오며 한국 주방장님이 계시기에 맛 도 웬만한 음식점을 능가해 한국의 맛이 전혀 그립지가 않을 정 도다. 점심을 먹고 오후 1시까지 다시 출근하여 오후업무를 보며

저녁시간은 6시부터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종종 동기들과 함께 Commissary라는 곳을 갔는데 이곳은 쉽게 매점이라고 보면된다. 아이스크림, 과자뿐만 아니라 간단한 생활용품 그리고 3G데이터를 쓸 수 있는 유심칩도 판매한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동기들과 아이스크림 내기 등을 하며 자주 애용하였다. 저녁을 먹고나면 자유시간인데 보통 족구, 탁구, 헬스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4주간의 인턴생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동기들에 게도 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동안의 성패는 본인이 어떻게 시간 을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위에서 언급했듯 인턴생활에서 목표를 정했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지금 생각 해보니 내 삶의 조그만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사회생활에 첫 발 을 현대중공업에서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동기들과 함 께 생활하면서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이가 된 것도 기쁘다. 나의 직업적 목표인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와 인생의 가치관인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던 4주간의 사우디 생활. 8월 4일 인천행 비행기 표를 보고 있으니 그 시간들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4주간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김종기 기원님, 박성주 부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도움 줬던 학교선배 상목이형, 분위기 메이커 창묵이형, 부산사 나이 정완이형, 승부욕에 불타는 한용이형, 그리고 시운전부의 최연장자이며 룸메이트였던 호선이형 모두 감사합니다 가슴 속 에 '사우디에서의 여름'이라는 추억사진 한 장 찰칵!

## 라마단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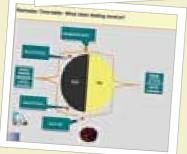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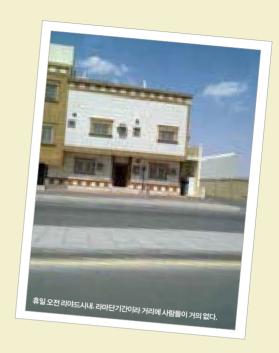
### 라마단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슬람 문화가 낯선 한국 사람들은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굶는 건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라마단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기가이 아닙니다.

전 세계 15억 명의 이슬람 신자들에게 라마단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라마단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 까지 한 달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있는 동안 음식, 음료, 흡연, 성했위 등이 금지 됩니다







#### \_\_\_\_\_

#### 라마단 기간에는 왜 금식을 하는 걸까요?

이슬람에는 다섯 기둥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은 무슬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례이며 의무입니다. 다섯 기둥은 신앙고백, 기도, 단식, 자선, 메카순례 입니다. 무슬림들은 다섯 의무중 하나인 단식을 라마단 기간에 행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단식을 통해서 인내심, 자제심과 이타심을 키울 수 있으며 신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7명도 라마단 기간 하루 체험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처음 라마단 기간을 경험 하는 거니깐 살이 쭉쭉 빠지고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배고픈 느낌뿐이었습니다. 아직 라마단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별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현장 안에 매점이 문을 닫는 정도의 불편함만 있습니다. 이슬람의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 좋았고, 또 라마단이라는 기회를 통해 물과 음식의 소중함을 느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사막 바이크 체험 후기



#### 스트레스 해소에는 사막 바이크가 최고!

저희 현장은 리야드 시내와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저희 인턴들은 일주일에 한번 주어지는 소중한 휴일을 주로 지사 근처에서 보냅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 바로 사막 바이크를 타는 것입니다. 사전에 시간대별로 예약을 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약 2시간 정도 플랜트 현장 주위를 달립니다. 광활히 펼쳐진 사막을 질주하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시속이 40km에 육박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막에서 만난 목동과 자연

출발한 지 20분쯤 지나자 낙타를 키우는 목동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음을 내는 바이크에 낙타들이 접을 먹으며 도망을 가자 목동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먼발치에서 사진 찍는 정도만 허용을 합니다. 낙타를 타보고 싶고 만져도 보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운 모래 언덕이 있는 곳을 향해 다시 절주 합니다. 한국에선 늘 보던 것들이지만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사막에서 나무와 풀을 보며 새삼 반가움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으며 한 시간가량 걸려서 모래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온통 고운 모래들만 있는 언덕에 오니 정말 사막에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모래도 만져보며 시간이 보내고 이제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래폭풍이저희를 덮쳤습니다. 가시거리가 2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앞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고글을 꼈지만 눈에 모래가 들어와눈을 감고 멈춰서 30초가량을 기다렸습니다. 사막의 무서움을느끼며 플랜트 현장에 돌아와 이번 사막 바이크 체험을 마쳤습니다









## **Photo Essay**

1. 아침 6시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3개국 직원들과 함께 모여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조가 끝난 후에는 서로 안마를 해주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 2기 인턴사원들이 머무르는 캠프 위로 아침해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보통 구름 한점 없는 날씨가 많지만 오늘따라 구름과 함께 해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것 같습니다. 3. 처음 여기 왔을 때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말을 걸어준 인도친구들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6. 리아드 PP11 현장의 일출 모습. 시막의 아침은 그리 덥지 않다. 5. 사우디에서는 물은 박스로 줍니다. 숙소 마다 냉장고가 있는 이유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존재 하는 듯! 사우디에서만 볼 수 있는 자물쇠 달린 냉장고 입니다. 6. 낙타다!!!!그렇다 TV에서만 보던 진짜 낙타다. 같이 사진 찍으려고 했지만 현지 사람이 찍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물래찍었다. ㅋㅋ 7. 첫 휴일을 맞이하여 인턴사원들과 함께한 사막 ATV!! 출발하기 전에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8.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2시간 가량 시속 150km를 밟아 도착한 우리의 현장 입구입니다~ PP11 프로젝트, 현대중공업의 이름이 잘 보이죠?

















9. 20시간 여행의 피로. 장시간 비행과 대기시간으로 인해 모두들 처음엔 즐거웠지만 도착할때쯤 이렇게 지쳤다는. 10. 숙소에서 바라본 발전소의 야경 모습입니다. 이 사막위에 저런 거대한 것을 어떻게 지었을지 참 궁금하네요. 11. 이 곳은 pp11시무실입니다. 사무실안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절반 그리고 외국인 직원이 절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 다. 12. 이 곳은 인턴사원들이 머무르는 숙소 입니다. 점심시간과 일과 후 시간은 보통 티비도 보고 책도 읽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답니다. 13. 사우디 현장팀 출발하기 전의 공항에서 단체껏입니 다- 다들 건강히 돌아옵시다. 14. 1경기가 끝나고 잠깐의 후식시간! 밤이 늦도록 우리들의 체력은 까질줄 모른다. 15. 더울 땐 역시 시원한 맥주 한 병.. 하지만 무일콜 맥주랍니다. 그냥 기분만 내 봅니다. 16. 이곳은 리아는 시내를 빠져나가는 검문소이다.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에중동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17. 전통적인 아라비아 느낌의 건물들.. 사 막색깔과 매치가 잘되는 사우디 주택들의 색감이다. 18. 사우디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대추야자나무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달달한 대추야자는 힘을 나게 해줍니다.





#### 박창현 캡틴,품절남

현장의 리더, 쿨한 척 하지만 은근 소심남. 가끔씩 신경질적인 카리스마로 우리를 단 합시키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라, 우 리에겐 누구보다 착하고 능력 있는 캡틴!



팀 내 가장 높은 아이큐의 소유자, 조 작의 황제, 그와 대화를 하면 누구도 그의 현실왜곡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의외로 인간적인 면이 많아 누구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구



장난꾸러기, 강한 승부욕, 신입시원

평소엔 장난꾸러기, 운동할 땐 강한 승부욕의 소 유자, 일할 땐 신입사원의 패기, 뭐든지 열심히 하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나이



#### <mark>정우염</mark> 뼈대 있는 강원도 산골출신

중동에서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다! 더위를 즐길 줄 아는 남자! 진로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 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노력형 젊은 이. 성시경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인턴소개 🔼





#### 최선웅 오락게임의선구자

일 할 때 준비와 계획이 철저한 완벽 주의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 과에 책임을 질줄 아는 남자 중의 남 자!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최 고의 신랑감. 불꽃 카리스마



#### 사비야의 씨엔블루 정용화

곱상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 사교성이 좋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일꾼, 운동을 좋아하며 강한 체력까지 덤으로 있는 만능 스포츠맨



#### 김종성 가슴으로세상을 보는 남자

호불호가 분명한 똑 부러지는 친구! 가끔은 매정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소한 것을 챙 겨주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드러나는 섬세 한 남자



#### 정석현 시운전부의 귀염둥이 토끼

시운전 부서의 막내이며 아직 미래에 대해 걱정이 없는 철부지. 침착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하는 시운전 부의 재롱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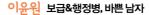
#### 김태수 체육인, 승부욕

덥고 짜증나지만 웃음을 잃지 않 는 친구, 운동할 때만큼은 선수 못지 않은 승부욕으로 최선을 다 하고, 일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열 심히 하는 열정맨



#### 엄태희 경험주의자

무슨 일이든 직접 해보고 직접 눈으로 봐 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 하나 라도 더 배워서 값진 경험으로 남기기 위 해 회사생활에 대해 열심히 배우는 중!



인턴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나한테 맡겨라(못 구해 줄 수도 있……) 일에 파 묻혀 숨 넘어가기 일보직전이지만 그래 도 쿠웨이트 쪼아!



생활을 보내겠습니다 더로 성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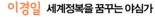
#### 김재구 나를 알고, 나를 찾는, 나에게로 떠나는 시간

'김' 김빠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재' 재미와 감동으로 가득 찬 인턴 '구' 구름을 가로질러 글로벌 청년리



#### 박종범 집념의사나이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실함으로 배관 팀 Punch list 관련 업무를 맡 고 있다. Punch list를 모두 마스터 하는 그날까지 아자!



형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팀의 막내, 숙 소의 음식, 그리고 일 배우는 맛에 쿠웨이트 생활 이 행복하다는 경일. 비행기 타는 게 마냥 좋아 해 외출장이 잦은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라고. 이러 다 스튜어디스 되는 건 아닐지



#### 이정국

#### Az-Zour, 충청도 사나이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충청도 남자 이지만, 성실하고 자기 맡은바 최 선을 다하는 근성의 남자. 짧은 기 간 동안 많이 얻어가고자 하는 의 지와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



#### 박민창 야근왕, 박공무

우유부단하고 집안에 틀어박히길 좋아하지만 여행도 좋아하는 아이 러니한 남자, 시운전 팀 기상 담당



### 장영원 시운전팀 큰형, 다이어트

플랜트 엔지니어를 꿈꾸는 평범하지만 담대한 청년, 앞만 보는 리더가 아닌, 동생들을 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큰 형, 하지만 진정 한 목표는 다이어트



#### 김종훈 불꽃남자

중동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지닌 남자. 불 같은 열정과 그 열정을 뒷받침 하는 성실성으로 쿠웨이트의 더위도 이 기는 사나이, 항상 불꽃같이 강렬하게 살 다 가고 싶은 정렬적인 남자



#### 이재선 오뚝이,야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사나이, 꺾이지 않 는 강한 의지로 이번 인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 가겠다는 야심가

024

<sup>이정국</sup> 낯선*중동*에 오게된 것이 행운!



2012년 7월 9일 출국을 해서 현재 열흘 넘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르 노스 공사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개발도 하고, 이곳 쿠웨이트 문화도 즐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아직 개방이 덜 된 국가여서 그런지 금지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현지인들의 경제력은 정말 대단할 정도 였습니다. 쿠웨이트 총 인구 300만 명 중 현지인 100만 명 정도는 평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7월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50도가 넘는 높은 온도입니다. 그러나 습도가 낮아서 땀이 나지는 않습니다. 7월 20일부터라마단 기간이라서 해가 떠있는 동안은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또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쿠웨이트의 물가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비싼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해서 많이 세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중 금요일 하루가 휴일이고 나머지 6일은 근무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하나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7시까지 하고 저녁 5시 넘어서 퇴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을이곳에 와서 느꼈습니다. 열흘쯤 지나니까 주 6일 근무, 식생활, 건조한 환경 등 모든 것에 다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조금 넘게 남았는데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 스스로 먼저 노력할 생각입니다. 쿠웨이트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 저곳 아직 못 다닌 곳을 다니고, 귀국할 때 친구들 가족들 선물도 사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중동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는데, 지금생각해보니 중동에 온 것은 인생의 행운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주가 지난 지금 나는 더운 쿠웨이트 날씨와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쿠웨이트 사비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한다. 무엇보다 여러 국적의 많은 직원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회사조직과 사회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18명의 남자동기들과 동고동락하며 인간관계를 다질 수 있었고,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직접 알아가는 것이 좋았다.

일단 쿠웨이트의 첫 느낌은 정말로 더웠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사비야 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국적인 풍경과 사막을 보면서 어느덧 더위도 잊어 버렸고,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플랜트 공장을 보았을 때는 경외심을 느꼈다. 나와 한 친구를 제외하고모두 공대생이라서 그런지 나의 배치 부서는 현장지원팀 이였다. 4주의 기간이 짧다고 느꼈지만, 이왕에 먼 타국까지 온 김에열심히 한 달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생활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자산파악이라는 임무가 생겼고, 그 시간 부로 회사 자산들을돌아 보면서 열심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일이었지만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힐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통해서 같이 일하는 마문과 임란이라는 직원과 더욱 가까워 질수 있었고, 다양한 외국인들의 영어 발음도 익힐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차차 맛있는 식사에도 적응하고, 동기들과 공놀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우리만의 방법도 찾았다. 또한 매주 쿠웨이트 시티에 가면서 사막과는 다른 쿠웨이트를 느낄 수 있었고, 행운인지 불행인지 일년에 한 달 있는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인턴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과 회사 생활을 조금이나마 체험하여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조금은 더 성숙한 내가 되어 있길기대해 본다.



#### 빛 그리고 땀의 현장

카타르를 경유하여 도착하게 된 쿠웨이트. 쿠웨이트의 첫 느낌은 낯섦, 그 자체였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였다. 수도인 쿠웨이트 시티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니 내가 일하게 될 사비야 발전소 현장이 보였다.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기쁜 마음과 함께 내가 마치고 정주영 회장을 모델로 한 드라마, '영웅시대'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 성장의 기회 그리고 미래

처음 놀랐던 것은 출근시간이 아침 6시라는 것이었다. 아침 6시 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곳에서는 출근시간이라니. 출근시간이 이르다는 것은 내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였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만큼 더 부지런해질 수 있었고 일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었다. 처음 도착한 7월 9일의 일기장에는 당시 나의 느낌이 잘 드러나있다. "쿠웨이트에 인턴으로 온 이상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 부분에서 6시 출근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프로젝트 컨트롤이라는 공무부서에 배치를 받은 뒤 업무를 시작했다. 담당 부장님이신 이광호 부장님이 현대중공업에서 손꼽히는 영어의 달인이라고 들었기에 많이 긴장되었다. 부장님은 발주처 및 GE와의 발/수신 레터 Review와 하청업체인 Alghanim과의 하청계약서 국문번역을 내게 맡기셨다. 처음 접하는 건설용어들과 발전설비용어들이 어렵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져 번역이 쉬워졌다. 이번 인턴을 통해 국제업무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역분야 및 국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싶단 꿈을 가지게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해외 현장에서다시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 그 꿈 이뤄지리라!



기초부터 배우는 유익한 과정

정대호

기후, 환경 등 내가 생활하였던 곳이랑 다른 쿠웨이트로 배정을 받고 '잘 생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었다. 하지만 막상 와서 2,3일 지나보니 금새 적응되어서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곳은 여름이 한창이라 밖은 50도가 넘나든다. 더워서 숨이 막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처음 느껴봤다. 분명 태양은 뒤에서 비추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과 물을 틀면 더운 물이 나오는 환경. 덥기 때문에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숙소는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게스트 하우스이다. 아주르 현장에 있는 인턴 2명과 시내에 있는 지사 인턴 2명 총 4명의 인턴과 지내고 있는데 건물을 세운지 얼마 안돼서 시설이 정말 좋다. 아침, 저녁을 이곳에서 먹고 점심은 현장에서 먹는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라서숙소나 현장 내부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밖에 다닐 때에는 음식, 물, 담배 등이 금지사항이다.

나는 원래 사비야 현장에 배정을 받았지만 전공이 건축이라 아 주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KOC라는 현장에 와 있 다. KOC현장은 Kuwait Oil Company로 이곳에 나는 석유를 발전 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르 현장 은 현재 계약 중이라서 아직 현장에 사무소가 없다. 아주르 현장 에는 담수시설과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설계도를 잠깐 보 았는데 평소에 내가 봐왔던 설계도와는 차원이 달랐다. 발전시 설, 담수시설이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았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차장님, 부장님께 여쭈어봐서 설명을 들어 야 간신히 설계도 한 두 장을 보는 정도이다. 아직 계약 전이라 현장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기초 부분인 계약 과정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시작 단계부터 배울 수 있어 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경험인 것 같다. 이곳에는 부장님, 차장님과 필리핀 멘토 한 분이 계시다. 다들 무척 잘해주시고 친절하셔서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다. 벌 써 이곳에 온지 2주가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많은걸 경 험하고 배워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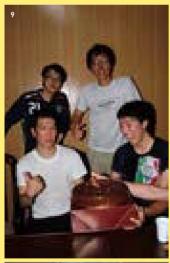






## Photo Essay

1~4. 사비야 CCGT. 5~8 현장 업무 보조. 9. 근무기간중 생일자. 10. 근무 기간중 생일자 파티. 11~12. 일과후 친목도모[족구] 13. 족구후 단체사진. 14. 회식 사진 15. 시내로 이동중 자동차 에어 컨 고장으로 정채50도가 넘는 날씨에 에어컨없이 1시간반이동] 16. 쇼핑몰에서 외국인. 17. 시내 해변가에서 단체사진. 17. 쿠웨이트시 전경.





























028

#### 유여웃 구매팀,노력파

주어진 기회를 잡아 한 단계 높이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도전해 온 노력파, 아부다비에서의 인턴도 인 생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 기를 만들겠다고



#### 박지후 원가팀,지역전문가

해외에서 근무 하며 그 지역을 파악하고 한국 을 알리는 지역전문가가 꿈이라는 지훈. 꿈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겠다는 아심 찬 사나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먼 중동에서 여 러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할 수 있 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길우. '일에 치 이는 만큼 일을 배운다'는 기조로 열심 히 배우는 중



## DAS

인턴소개



#### Aiman City GDU 근무 행정담당

현장으로 지원되는 전도금 관리와 여러가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 이번 인턴이 평생 잊 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라는 그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뜨거운 열정



한 달이라는 기간의 제약상 많은 실무를 경험해 볼 수는 없었지 만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구매 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 책에서만 배 웠던 문서들을 실제로 보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고, 구매할 물건의 경쟁력을 알아보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그들과 회사업무 및 문화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들은 앞으로 잊 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배우는 시간도 물론 즐거

웠지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현지체험을 하는 금요 일입니다 시내에 나가서 여러 명소들을 돌아보면서 회사와 숙 소 주변에서는 보기 힘든 현지인들도 보고 화려한 호텔과 빌딩 들을 보니 오일머니의 위력을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위 와 사무실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어느덧 한국으로 돌아갈 날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턴기간이 짧아 아쉽지만, 짧지만 굵 었던 인턴생활은 인생에서 값진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총무 및 인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스 현장은 여러가지 악조건이 많습니다. 강한 파도, 섬이라는 지형, 군사보안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아, 여기 아부다비 사무소 역시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바쁘고 치열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 정말 단순한 믿음한가지가 있는데, 일에 치이는 만큼 일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주 6일 간 일을 배우고 하루는 중동의 문화를 체험하는데 덕분에 넓은

시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6시에 근무가 끝난 뒤 영어 공부와 업무에 필요한 엑셀, VBA를 학습해가며 자기 계발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저를 발전시키고, 더욱 더 미래에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 반이 지나고,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꾸준히 노력해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 더욱 크고 값진 것들을 들고 가겠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한 달이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업무 외시간에 자기 계발을 하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어 공부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며 영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난 후숙소에 돌아와서는 운동을 하고 책도 읽으며 알찬 인턴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숙소에서 식사는 주방 아주머니께서 한국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직 한번도 같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며 맛 또한 일품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현지문화체험을 합니다. 첫 주에는 그랜드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을 갔다왔습니다. 그 곳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거대한 사원으로 그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민속촌과 페라리 월드를 다녀 왔습니다. 페라리 월드는 자동차 브랜드 페라리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놀이공원으로 사진과 TV 속에서만 보았던 화려한 차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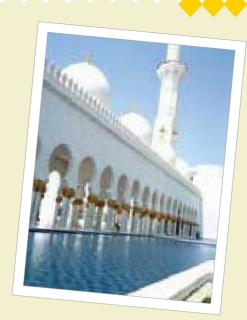


제가 근무하는 곳은 UAE 안에 Ajman City에 위치한 GDU 현장입니다. GDU란 Gas Dehydration Unit의 약자로서 추출된 가스의 수분을 제거하는 모듈을 의미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DAS 섬으로보낼 GDU 모듈 3개를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현지의 평균온도는 45도를 상회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또한 8월 중순까지 제작을 완료 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맡은 업무는 GDU 현장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이고현장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숙소를 계약하며 예산이 잘 운용되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4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능력, 어학능력, 실무능력, 현지문화까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서 고생하시는 현대중공업 직원 분들이 흘리는 땀을 보면서 마음을 새로이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한국 청년들의 이슬람 문화 체험기



그랜드 모스크, 에미레이츠 팔레스 호텔, 헤리티지 파크, 페라리 월드



우리는 문화 체험의 첫 장소인 그랜드 모스크를 향했습니다. 낮 선 길을 바라보며 이곳이 먼 타국임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작열 하는 태양과 청명한 하늘, 저 멀리서 흰 빛의 이슬람 사원인 그랜 드 모스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화려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그랜드 모스크

외부 온도는 섭씨 52도. 태양이 내리쬐는 대리석 위에서 한 발자 국 걸어가는 일이 참으로 고행임에도, 눈 앞의 거룩함을 쫓아 그 랜드 모스크를 향했습니다. 여기선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통 복장 차도르 등을 빌려주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었기에 더욱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엄숙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를 둘러싼 물길을 건너, 하얀 광장을 넘어, 다시 거대한 문을 지나 신발을 벗고 모스크의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은 현관한 문양들로 가득한 양탄자, 둥글게 늘어진 줄에 매 달린 큰 샹들리에와 그곳에 가득한 보석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 기에 충분했습니다. 벽에는 대리석을 깎아서 낸 문양으로 가득 했습니다.

모두 둘러 본 후, 모스크 주변을 느릿느릿 산책하며 아부다비의 전경을 바라보고 나서야, 한국의 문화와 한 점 겹침이 없는 먼 타 지에 있음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 7성급의 위엄, 에미레이츠 팔레스 호텔

인턴 2주차에 들리게 된 이 곳, 에미레이츠 팔레스 호텔은 7성급 호텔로 유명한 곳입니다. 비록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주변을 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이곳의 규모와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중등의 좌덕를 보여주는 헤리티지 파크

중동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에게 헤리티지 파크는 유익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동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구했는지, 이 험난한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방문시간이 잘 맞지 않아 오래 관람하진 못했지만, 아부다비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 남자들의 로망, 페라리 월드

세련된 페라리의 차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페라리의 역사, 그리고 페라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F-1경기와 자동차 제작 과정 등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Ferrari ROSA라고 260km로 달리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습니다.











## **Photo Essay**

1. 마리나 몰 안에 있는 타워 주변의 모습.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현지인 및 외국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 예전 이 곳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헤리티지 빌리지. 3. 무려 7성급 호 텔이라고 불리우는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의 호화스러운 전경. 호텔 안으로 들어가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인증샷으로 달래는 3명의 인턴들. 4. 숙소의 마스코트인 세 마리의 아기고양이들이 팔 자중게 누워서 자고있는 모습. 5. 이 곳 지폐는 인물이 없고 새와 건물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사진상의 500디흐람은 우리돈으로 약 155,000원의 거액입니다. 6.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는 그랜드 모스크. 정식명칭은 쉐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호얀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내부 모습. 7. 작열하는 중동의 뜨거운 햇살 아래 그랜드 모스크의 모습. 이 때 오도가 무려 54도 였습니다. 8. 세계에 하나뿐인 페라리월드. Fiorano GT Challenge. 페라리의 스피드를 체험해볼 수 있는 놀이거구. 9. 논란색깔의 멋진 올드페라리. 언젠가는 꼭 한번 돌아보고 싶은 차였습니다.











#### 이유엽 호기심이 많은 청년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전공인 경제학을 살려 쿠웨이트에 지원. 지사장님에게 입찰, 계약, 수주 등 '영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중

#### 이형기 대구촌놈

촌놈이라고 오해하지 마이소, 마음만은 쿠웨이트 '턱별시'입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쿠웨이트에 온 대구 촌놈. 견문을 넓혀서 사나이 대장부로 거듭나 겠다는 마음만은 글로벌한 사나이

# Kuwait

인턴소개 🔼



#### 이유엽

책으론 배울 수 없는 경험들



#### 내가 직접 경험한 쿠웨이트

처음에 쿠웨이트에 도착하였을 때 기온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7시에 도착하였는데 온도가 섭씨 30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42도, 오후 2시에는 52도를 기록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보통 여름은 최고 온도로 60도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느낌은 한국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느낌이라 표현하자

면 마치 한중막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햇빛이 이주 강한 반면 습도는 매우 낮아서 땀은 잘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쿠웨이트는 알다시피 무슬림이 85%를 차지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혹시, '쿠웨이트가 못 사는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쿠웨이트는 경상북도만한 작은 나라이지만 석유매장량 세계 4위에 속하는 산유 부국입니다. 인구도 쿠





웨이트인은 백만밖에 안되어서 1인당 GDP가 4만 달러로 대한민 국의 2배입니다. 따라서 고급외제차들이 길거리에 즐비하고 온 갖 명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쿠웨이트 적응기

7월 9일에 쿠웨이트에 도착하여 사비야 현장에서 간단한 오리엔 테이션과 안전교육을 받은 후 사비야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1인 1실을 쓰고 있으며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십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 지사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가 쿠웨이트에 도착해 있을 때 시리아로 출장을 가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North-Alzour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3일 뒤에 출장에서 돌아오신 쿠웨이트 지사장님을 만났고 그 다음날부터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지사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쿠웨이트 지역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UAE 등의 다른 중동 국가 지역을 아우르는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경영학을 책으로 배운 저에게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사 사무실로 출근한 이후 줄곧 지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체결하셨던 계약과정,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입찰과정, 그리고 중동인과 영업을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영업인의 마음가짐과 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영업실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시며 설명해주셨고 이는 제가 영업실무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사장님께서는 중동에서의 영업에 대해 더 크게

보려면 중동 각 나라들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소에 대해 교게 알아야 한다고 하셨고 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을 제 공해주셨습니다. 그 자료들 덕분에 중동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 일 수 있었습니다.

####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업, 현대중공업

저는 이곳에서 이윤창출과 더불어 현재 현대중공업이 중동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미 시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위하는 행동이지만 거시 적으로는 중동의 오일머니를 벌어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활동들 인 것입니다. 최근에 지사장님이 하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적 이 있습니다. 다들 '영업'이라고 하면 제가 다니는 경영학과에서 는 다들 '힊든 것, 어려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게다가 해외영 업이면 더 힘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쿠 웨이트 지사장님은 '영업을 할 때, 특히 외국사람, 중동사람과 영 업을 할 때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들도 더해 지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다른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이었으면 열심히 할 동기가 생겼을지는 의 문이다. 내가 속한 기업이 현대중공업이고 또 나의 활동이 대한 민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국활동이라고 생 각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4주 간의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들 이 훗날에도 귀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라마단 기간 동안 쿠웨이트 체험하기!



에비뉴몰과 쿠웨이트 타워, 그리고 시샤

쿠웨이트 지사장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라마단 기간의 시작인 7 월 20일 금요일 하루 문화체험을 하기로 하였다.

#### 에비뉴목과 쿠웨이트 타워

에비뉴몰은 축구장 3개정도 크기로 대형 주차 빌딩과 300여 개의 해외브랜드 상점, 그리고 까르푸, IKEA가 있었다. 하지만, 라마단 기간이라 우리는 닫힌 상점의 문만 구경해야 했다. 그런데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이 대형 쇼핑몰에 전통복장을 한쿠웨이트 인들과 운동복을 입은 3국인들이 줄지어서 에비뉴몰을 크게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것을 의아해 하자 지사장님께선 이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서 에비뉴몰 같은 큰 건물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셨다.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할 생각을 하다니참 신기하면서 안쓰러웠다.

다음으로 우리는 쿠웨이트 타워를 방문했다. 비록 보수 공사로 인해 내부는 못 들어갔지만 쿠웨이트 인이 길거리에 없어서 우 리끼리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 이슬람의 식습관 문화

이후에 저녁 7시정도가 되자 라디오 방송으로 '알라에 대한 기도' 가 도로에 울려 퍼지면서 밥을 먹어도 된다는 방송이 나왔다. 그 러자 각 방향에서 차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들 음식점으로 향했 다 라마단 기간에는 저녁이 되면 음식점이 사람들로 엄청 붐비 고 라마단 기간 한달동안 오히려 그 전과 비교하여 쿠웨이트에 음 식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낮에 못 먹어서 밤과 새벽 에 폭식을 하기 때문이다. 지사장님께서 우리를 이슬람 전통음식 점으로 안내해주셨다. 이곳에서 지사장님께서 우리 입맛에 맞을 만한 음식을 시켜주셨고 우리는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쿠웨이 트는 돼지고기가 수입금지 처분이 되어있어서 대부분 소고기 또 는 양고기 위주로 식사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고기들을 샐 러드와 빵과 함께 같이 먹는 식습관이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시 샤(물담배)와 알콜없는 칵테일을 먹으러 갔다. 옥상에 위치한 가 게에서 바다 풍경을 보면서 칵테일을 마시고 또 시사를 했다. 시 샤는 과일향을 첨가하고 니코틴을 뺀 담배이다. 우리 5명은 시샤 를 처음 접했고 매우 신기했다. 또한 알콜이 없는 칵테일을 하나 씩 시켰는데,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과일주스랑 똑같았다.

쿠웨이트에는 볼 것은 많이 없지만 문화체험 전에 미리 공부한 덕에 하루 동안 더 깊게 이슬람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쿠웨이 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 **Photo Essay**

1. 쿠웨이트 사비야 현장에서 지급해주는 안전모, 선그라스, 형광조까. 2. 도로야경. 3. 쿠웨이트 시티 고층빌딩 모습. 4. 쿠웨이트에 유일한 교회. 오래 전 미국인 선교사가 쿠웨이트에 들어 와서 병원을 짓고 운영하던 중 쿠웨이트 왕의 공주가 실명위기에 처하자 선교사들이 치료해줬고 왕이 이에 보답하여 교회를 짓게 허락했다고 한다. 5. 알주어 건축현장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KOC(Kuwait Oil Company) 사무실이다. 6. 쿠웨이트 지사 사무실. 7. 사무실에서 바라 본 모스크(사원) 8.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다. 일과 후 수영장에 들어간 모습. 9. 회의 실 내부.





#### 김선유 화합의힘, Communication

차가운 첫인상과는 달리 알고 보면 달콤하고 부 드러운 부산남자. 팀의 중립을 지키며 팀 내 화 합을 이끌어 가는 우리의 리더. 팀 동료들을 잘 배려해주며, 필요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내세울 줄 아는 멋진 리더



## **Dubai**

인턴소개 🔼



#### 김인 미녀와야수

겉보기와는 다르게 남다른 매력으로 팀 내 유일 하게 애인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남! 그의 덩치와 외모는 마치 산적을 연상케 하지만 따뜻한 마음 을 지닌 경상도 사나이. 학과 총무부장을 역임한 경험을 비탕으로 팀 내 총무역할을 담당

#### 윤재광 듬직한 Bridge

형님 두 명과 막내 한 명 사이에서 듬직한 중심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도 사나이! 지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항상 자기개발을 위 해 노력하는 멋진 남자. 다양한 해외 경험을 바 탕으로 팀의 가이드 담당

#### 이영택 나홀로 서울남자 팀의 막내이자, 경상도 형님들 등 홀로 서울남자. 막내로 궂은일을



팀의 막내이자, 경상도 형님들 속에서 고독한 나 홀로 서울남자. 막내로 궂은일을 스스로 도맡아 하는 착하고 순수한 남자. 3학년임에도 불구하 고 4학년 못지 않은 스펙을 소유한 능력자

# 지인 A형 인재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

이번 아산나눔재단 해외인턴을 통해 제가 가게 될 지역은 두바이, 직무는 영업부분이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저에게 영업이라는 직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 두바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두바이 지사는 조선, 엔진, 플랜트,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장비까지 모든 사업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맡은 조선엔진영업뿐만 아니라 각 사업을 담당하시는 주재원 분들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업무관련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과 인근지역의 정치동향, 경제동향 그리고 산업동향 등을 파악하면서 저의 전공분야가 아닌 경제, 정치 등의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문분야뿐만 아닌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두루 갖춘 A형 인재가 되기 위한 저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듯 4주라는 기간을 보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주신 두바이 지사 주재원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산나눔재단 청년인턴 2기 파이팅 입니다.



아라비아반도, 아라비아만 연안에 있는 두바이. 늦은 밤 공항에서 밖으로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40도 이상의 고온과 80%이상의 습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게스트 하우스 어머님과 우리의 멘토 사원이신 황시철 과장님의 환대로 인해 두바이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 중심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두바이 지사는 7명의 주재원님들께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주재원 분들은 각 사업부별 영업부서와 C/S부서에서 나와 계십니다. 인턴인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선, 기술영업의 시작 단계인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주로 웹 상의 meed.com 이나 GULF NEWS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의 경제, 사회, 정치, 산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요약 분석 및 발표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A/S 로 많이 알고 있는 C/S분야에서 고객 만족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객을 만족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석원차장님과 토론을 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한 저에게 사실 영업이나 마케팅 분야는 생소한 분야 입니다. 하지만 지멘스, ABB등 세계적인 전기전자 업체의 제품 분석 등을 통하여 현재 산업의 동향과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있는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현대중공업 두바이 지사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The Tallest, The Biggest

# In Dubai



파리의 에펠 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 세계의 유명도시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비즈 니스의 중심지인 두바이의 랜드마크는 바로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입니다. 이곳은 영화 미션임파서블4의 촬영지로도 유명 한데요. 저희는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세계 최 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를 올라가보기로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르즈 칼리파 입장을 위해서는 입장료가 있는데, 예약유무에 따라 금액 차가 상당합니다. 물론, 저희는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했기 때문에 300AED (한화 9만원 상당) 아낄 수 있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가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쇼핑몰인 두바이몰을 통과해서 가야 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지름신의 유혹을 잘 이겨 내셔야 할 것입니다. 두바이몰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4층에 올라, 내려본 두바이의 야경은 그야말로 Wow! Fantastic!! 사막 위의 작은 도시 안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쇼핑몰과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은 두바이라는 도시의 저력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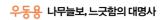
# Photo Essay

1. 메디나 수크/전통 공예품 시장! 관광. 현지인과 함께 매디나 수크에서 찰칵. 2. 사막투어. 사막에 빠진 차를 꺼내기 위해 삽질!?)을 하고 있는 현지인 드라이버. 3. 제벨알리 인턴들과 함께 사막의 열기는 만끽하는 중. 4. 사막에 왔으면 낙타를 한번 타봐야죠? 5. 두바이 뮤지엄. 두바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 6. 부르즈 칼리파의 낮. 고개를 들지 않고서는 한눈에 담기 힘들만큼 높 다. 7. 부르즈 칼리파 밑의 인공호수에서 보여주는 분수쇼. 8. 부르즈 칼리파를 올라가는 것은 유료랍니다. 9. 두바이에 왔으면 수상버스격인 아브라를 타봐야죠?



#### 양시상 낙타, 강한호기심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에게든 먼 저 접근하는 친근한 매력의 소유자. 일단 부딪쳐 보는 도전정신의 청년! 안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특기



이번 해외인턴이 첫 해외 체험. 두바이의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 력하고 있는 나무늘보



# **JAFZ**

인턴소개 🔼

<sup>958</sup> 첫여행, 첫인턴그리고 내인생의 전환점



저는 이번 인턴을 통해서 한국을 처음 떠나보았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9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두바이의 공항.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35도를 넘는 기온과 습한 공기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창밖에 보이는 수많은 건물 중에 유독 높고 아름다운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져 있는 부르즈 칼리

파였습니다. 제벨 알리 지사에 첫 출근길에 세련된 빌딩과 이국적인 풍경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지사에서 지사장님과 친절한 현대중공업 식구들을 보고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소개를 들은 뒤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지사의소개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벨 알리 지사는 건설장비사업부 소속입니다. 중동으로 건설장

П

비부품을 보다 빠르게 보내기 위해 2011년 10월에 세로 새워진 지사입니다. 제벨 알리 지사는 사무실과 물류창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DANZAS라는 물류회사의 공간을 임대하여 중동의 각지역에 48시간 이내로 부품을 보내기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이곳에서 물류창고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 내는 것이 우리 인턴들의 과제였습니다. 전기공학이 전공인 저는 물류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몸으로 부딪쳐보고 젊음의 패기로 극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운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으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인턴은 저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현대중공업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업무

에 임하여 지사와 저한테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귀국하 겠습니다.











# 함께여서 즐거움이 두 배! 사막 체험기

양시상, 우<del>동용</del>



사막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차

에서 내려 바로 차를 밀고, 또 무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였습니

다. 곧 자동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는 인턴들의 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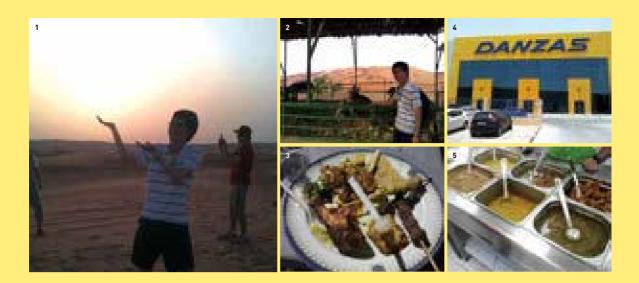
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높은 곳에 올라가, 다같이

단체사진도 한 장 찍고, 운전자와도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었습

니다.

이 후, 사막의 전경을 즐기다가, 바비큐 파티 장소에 도착하여, 바비큐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애피타이저를 바비큐인줄 알고세 접시나 먹어 배가 부르다며, 제대로 된 바비큐를 먹지 못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다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바로 헤어지기가 아쉬웠던 저희들은 버즈만 센터로 돌아와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가보지 못한 다른 여행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다음에도 다시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못내 아쉬운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즐겁게 놀았던 하루였지만, 사실 이 덥고 광활한 사막에 건물을 세우고, 또 그 것을 이용해서 물류의 허브를 만드는 UAE와 그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동과 한국의 현재와 같은 관계가 없었다면, 한국인으로 이렇게 중동까지 나와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국제관계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멋진 야경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 **Photo Essay**

1. 사막황단도중 사진을 찍기 위해 정차도중 한 것. 이름다운 태양을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사막사파리 투어중의 당나귀와 한 것! 보기와는 달리 고약한 냄새를 참느라 숨을 참고 있습니다. 3. 사막 한 가운데서 부페를 먹었습니다. 이국적인 음식이 무척이나 맛있습니다. 양꼬치가 특히 일품입니다. 4. 제벨알리 지사 인턴의 주 업무가 이뤄지는 물류창고 단자스 입니다. 현 대중공업과 계약을 맺은 창고이고, 빠른시간내에 딜러들에게 부품을 배송할 수 있게 하는 물류서터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5. 단자스 식당 내부 모습. 단자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도인이여서 인도음식들입니다. 맛있게 보이죠? 6. 두바이 7성급 호텔인 버즈 이랍. 사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 갈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근처만 둘러 보았습니다. 7. 아틀란티스 호텔 내에 위치한 수족관입니다. 전설의 아틀란리스를 모티브로 아름답게 꾸민 수족관입니다. 8. 항상 세세한 것 까지 챙겨주시고, 인지하신 정신적 지주 지사정님과 사무실에서 찍은 사전입니다. 9. 중동의 국가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한 삼겹살이지만 두바이에서 아주 비싼 고급음식입니다.



#### 김지회 긍정에너지, 알뜰살림꾼

둥글둥글하고 예의 비른 성격의 소유자. Medinat Souq에서 구입한 전통의상이 그의 마스코트, 실제로 이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고, 진지하고 알뜰한 살림꾼



#### 유세현 꼼꼼 성실의 대명사, 길치

가끔은 어수룩해 보여도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청년. 항상 계획하고 두바이를 느끼는데 모든걸 바친 남자. 선배들의 사랑으로 두바이에 와서 살이 쪄가고 있음



U.A.E

인턴소개 💳





#### 기간의 반이 지난 지금, 지난 인턴생활을 돌아보며…

들뜬 마음으로 두바이에 도착한 후 현대 오일뱅크 중동지사의 정 태오 부장님을 통해 두바이에 대해 많이 듣고 배웠다. 정말 끔찍 했던 더위이지만 이제는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다. 부장님의 세심 한 배려 덕분에 다양한 현지 업무들을 접해 볼 수 있었고 많이 배 울 수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이란 어떤 것인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업무가 진행되는 나라의 특성 파악 등) 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두바이를 체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느 껴 보고자 마음먹었다. 잘 쉬지도 않고 항상 더운 날씨에 돌아 다 니느라 힘들었지만 그보다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더욱 보람찬 생활이었다. 처음으로 같이 생활하는 세현이와 밖으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간 곳은 두바이몰. 그보다 더욱 놀라웠던 부르즈 칼리파의 위엄. 덥고 짜증났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던 기억이다. 사실 날이 더우니 실내에서 공부하며 알차게 지내려고도 생각해봤지만,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이 주변이 많이 있었다. 쇼핑도 하고 현지인들과 물건을 흥정해 보기도 하고 맛있는 호텔 밥도 먹고 직접음식을 해먹기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지프차를타고 가는 사막 사파리 투어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보람찬 추억들이었다.

내가 여기서 얻고자 했던 글로벌 감각은 어찌 보면 멀리 있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글로벌 감각이 아닐까? 사무실에서 하는 해외에서 해야할 업무들과 매일 새롭게 배우는 느낌의 인턴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곳 생활은 정말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다. 남은 시간은 더욱 알차게 그리고 알뜰하게!(쇼핑의 천국 두바이에서 너무 즐겼다.) 두바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해 가슴에 담고 와야겠다



#### Part 1. 도서관 모범생, 두바이의 용감한 녀석이 되다!

출국 전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동의 문화, 역사, 경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출국일 전과 기내에서의 시간을 잘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덕분에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두바이 시내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되어 있는 곳에 선정되었으며, 대부분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잘 발달되어있습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해 계획했던 장소에 가거나 쇼핑몰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 Part2. 회사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

상사가 먼저 일을 지시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국가별 개황자료와 석유현황을 PPT자료를 만들 때, 요약 본도함께 제작하여 부장님의 신뢰와 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선적 및 Oil현황과 OPEC의 주요인사를 조사하는 등 중대한 업무를 맡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 사람들

을 만나며 문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해 과감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지전문가가 되기 위해 현지음식에 도전하고, 사막투어, 작은 항구인 Creek 등도 경험했습니다.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각국의 친구도 사귈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턴이지만 현지에 오기 전에 명함을 제작했던 것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사귄 친구와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Part 3. 내가 얻고 싶은 사. 문. 인

제가 이번 인턴 2기가 되어 스스로 얻고자 다짐했던 것은 '사람', '문화', '인정'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주 후 인턴생활이 끝날 때쯤, 저는 저희 부장님과 비롯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 두바이란 어떤 곳인가?



# 잊지 못할 두바이의 추억



### 세계 최고급 호텔 버즈 알 아랍

누구든 들어 봤을 법한 두바이의 자랑,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을 다녀왔다. 그 위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동안 먹을 것을 아낀 돈으로 버즈 알 아랍에 식당을 예약하고 입장했다. 비용은 비쌌지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경험이었다.

#### Something Must Do in Dubai! 사막 사파리

사막 사파리 또한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다. 지프차를 타고 롤러 코스트 타듯 한참을 달려 들어가는 사막. 영화나 TV에서만 봐왔던 사막을 직접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멋진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막을 질주했다. 중간 중간 내려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었다. 사막 드라이브가 끝날 무렵 드디어 사막 가운데 있는 캠프에 도착했다. 우리들은 또 한번의 이색 체험으로 낙타를 타는 경험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이슬람 전통 음식들을 맛보고 종교 의식 같은 춤도 보면서 사막 사파리는 끝이 났다. 이 모든 기억들을 가슴속 깊이 남긴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다.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담아두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벅차 오른다. 기다려라 부르즈 칼리파! 아부다비 모스크 사원!



###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두바이 박물관

두바이 박물관 1층에는 운송수단이었던 나룻배, 19세기 무기들을 전시해 놓았다. 지하에는 두바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을 영 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반세기만에 현대문명을 이룩한 그들 의 선견지명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다른 박물관과 달리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모두 보여준 점이 인상 깊었다

### 오람을 자극하는 전통시장-Soug

우리나라의 시장에 해당하는 SOUQ는 향신료시장과 금 시장이 유명하다. 지금은 현대화가 진행되어 종로3가의 귀금속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코를 자극하는 이국적인 향신료와 형형색색의 귀금속들은 그 자체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 죽기전자족 경험해야 할 사막여행

내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사막 사파리이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사막 드라이브는 정말 최고였다. 세계 각지의 친구들과 사진도 함께 찍고, 노래에 맞춰 장단을 맞추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캠프로들어가서 아라비아커피를 마시고, 두바이의 전통음식을 먹었다. 그후 전통공연을 감상하는 것으로 사막사파리는 끝이 났다. 그곳에서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다.



# **Photo Essay**

1. 두바이 뮤지엄 전경. 2. 크릭 근처에 있는 두바이 뮤지엄으로 들어가면 아랍국가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볼수 있다. 3. 골동품 시장에서 사온 이칼이라는 검정색 띠와 빨간색 체크 두건을 쓰고 있으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온, 두분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 4. 두바이에서 볼수 있는 신기한 풍경 중 하나인 스키두바이. 에미레이트 몰 안에 위치해 있고 더운 중동에서 스키를 탈수 있게 거대하게 실제 스키장처럼 만들어 놓았다. 5. 우리가 묵는 호텔 40층에서 기념촬영. 6.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Bruj Khalifa! 하늘에서 바라본 아래세상을 회상하며. 7. 물속에 비친 Mosque의 모습. 8.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9. 사막에서의 석양은 찾아오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고마웠어 낙타야!



### 공선락 전전사업부영업팀,조장

남자밖에 볼 수 없는 나라에서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맡은 일에만 충실한 선락, 사우디 의 건조함과 힘겨운 싸움 중, 그나마 지사로 파견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지사장님의 미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장



#### 이미재 음주가무,스포츠담당

음주가무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하지만 사우 디에서는 둘 다 할 수 없다) '젊을 때 경험과 역경은 보약'이라고 여기는 당찬 청년

# Riyadh

인턴소개 🌉







<sub>공선락</sub> 사우디의 매력에 매료되다

#### 우리에게 너무나 먼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워낙에 폐쇄적인 국가라서 이곳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설레었을지도 모른다. 공항에 도착하여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렇게 자유로워 보이던 비행기 안의 여성들이 내리자마자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감추고 조신한 여성으로 변신한다는 사실이었다. 사우디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온통 사막의 모래 같은 색깔의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땅이 넓다 보니 집과 도로들이 널찍한 편이었다. 내가 묵었던 게스트 하우스도 굉장히 큰 2층 건물이었다. 일단 시설이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과자와 음료가 무료로 계속제공이 되어서 좋았다. 다만 사우디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집집마다 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하는데 태양열 때문에 물이 데워져서 찬물을 사용하려면 따로 받아서 식혀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배우기!

지사장님이 매우 바쁘셔서 국내에서 교육 받으면서 기대했던 업무와는 다르게 2주일 동안 리야드 내의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다. GIS, T/R의 설치 및 점검 현장을 견학하고 감독관 분들에게 작동원리와 내부구조 등을 배웠다. 이분들은 아들뻘인 우리에게 사우디의 문화와 풍습에 대하여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고 전통음식

도 소개해주셨으며 유명 관광지에도 데려가 주셨다. 그리고 셋째 주가 시작된 지금 드디어 시무실에 출근하여 지사장님의 미션을 수행 중이다.

술과 여자가 철저히 금지되어 이를 어길시 태형부터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 뜨거운 날씨 때문에 낮에는 전부 자동차로 움 직이고 밤에만 행인을 볼 수 있는 국가,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 한 푼 내지 않는 국가, 새벽에도 40도를 유지하는 국가, 이곳에서의 이질감에 흠뻑 매료되어 남은 2주일 빡세게(!) 보내 려 한다.



# 사우디아에 오면 놓치지 말아야할 세 가지!

이민재

낙타 시장, 킹덤 타워, 까르푸



###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낙타

하루는 변전소 현장 업무를 마친 후 낙타 시장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양 옆으로 끝없이 울타리가 쳐져있고 그 안에는 검정색, 흰색, 황토색의 수많은 낙타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느 동물 우리처럼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볼록한 등과 아주 가느다란 긴 목, 잘빠진 다리를 가진 낙타들은 우리를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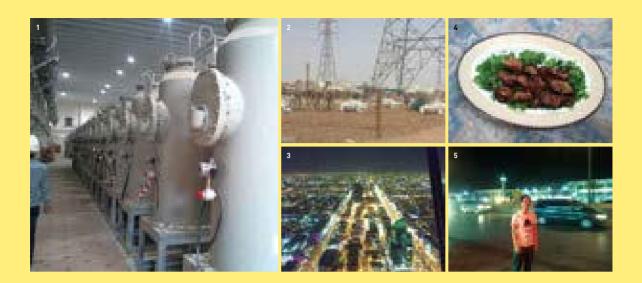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존심, 킹덤 타워

저녁식사 후, 시우디 수도 리야드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99층 높이의 킹덤 타워를 탐방하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사이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킹덤 타워는 높이만으로도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킹덤 타워의 외관이 병따개처럼 생겨서 현대중 공업 직원 분들은 그 건물을 병따개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킹덤 타워 저층부에는 명품 쇼핑몰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했던 명품숍에 들어가 눈요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90만원이 넘는 벨트의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없었습니다.

킹덤 타워 전망대로 오르는 승강기를 탑승하기위해서는 1인당 35 리얄(한화 약 만 천원)의 티켓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티켓 구매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승강기에 탑승하고 77층으로 이동했습니다. 77층에는 킹덤 타워의 소형 조형물과 액자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전망대가 위치해있는 99층에 오르기 위해 다시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99층에 내리자마자, 환상적인 리야드 시내의 야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99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리야드 시내는 도로가 바둑판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반짝반짝하는 불빛들이 끝없는 지평선을 타고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킹덤 타워에서 보는 리야드 시내의 야경을 놓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 아르푸 병문

사우디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은 홀로 외출이 금지되어 있고 외출을 하더라도 검정색 전통의상으로 온몸을 두르고 두 눈만 노출을 시킵니다. 상황이 이렇다하여 사우디에 도착한 후 며칠간은 여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식사 후, 까르푸를 찾은 우리 일행은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많은 사우디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까르푸의 내부는 우리가보아왔던 것과 같은데 고객들은 하나같이 남자는 흰색, 여자는 검정색의 전통의상을 입고 쇼핑을 한다는 것이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의 가정을 보고 싶다면 까르푸와 같은 대형마트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 **Photo Essay**

1. GIS설치현장에서 28Bay의 차단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리야드 낙타시장. 수많은 낙타가 철탑아래서 쉬고 있다. 3. 리야드의 랜드마크인 킹덤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4. 식당에서 시킨 사우디 전통 음식이다. 양고기를 바싹 구워서 빵에 싸서 손으로 먹는다. 5. 숙소 앞 도로가에서 저녁을 먹으러 왔다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6. 리야드 지사 사 무실에서 바로 옆 건물인 킹덤타워를 찍은 모습이다. 7. PP11 현장의 입구에 세워진 안내표지판이다. 8. 리야드 지사 사무실. 사무실에서 공선락 인턴이 업무를 보고 있다. 9. 사무실에서 바깥 풍 경을 찍은 사진이다. 리야드의 강남같은 곳인데도 높은 건물은 많이 없다.









### China

#### 중국 강소

#### 현대중공업 강소 법인

20톤 이상 굴삭 생산 및 서비 스총괄

#### 중국 태아

#### 현대중공업 태안 법인

휠로더 생산 및 러시아, 튀지 니 등 세계시장으로 휠로더를 수출

#### 중국 북경

#### 현대중공업 북경 법인

중형, 소형 굴삭기와 지게차 생산

### 중국 북경

#### 현대종합상사 북경 지사

수십 년 간 축적해온 네트워 크와 빠른 정보력, 숙련된 거 래기법으로 선박, 기계플랜 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와 기타 일반상품의 무역 및 유 통서비스를 제공

#### 중국 상해

#### 현대오일뱅크 상해 법인

신규사업개발과 직거래처 개 발 및 확대. RFCC신규 제품 판매

#### 중국 양중

#### 현대중공업 양중 법인

중국 전기 시장의 3/4는 국내 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나머 지 1/4 내에서 비롯한 ABB, Schneider, SIEMENS, LS산 전 등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 중

#### 중국 상주

####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주요 생산품목은 굴삭기 및 휠로더용실린더 생산

#### 중국 지주

#### 현대중공업 중국지주사

중국 지역에서의 현대중공업 총사령부로서, 중국지역 법인 통합관리업무, 구매업무, 영 업 및 A/S업무, 건장개발 업 무, 감사업무 담당

#### 중국 리스

#### 현대종공업 금융리스사

인쇄기계, 공작기계, 대형설비, 환경 보호에너지 설비 등다양한 산업분야로 리스업무

### India

#### 이도 뭄바이

#### 현대중공업 뭄바이 지사

뭄바이 반드라 지역의 여러 외국 기업과 은행들이 밀집 해 있는 BKC구역에 위치

#### 이도

#### 현대중공업 인도 법인

건설 중장비인 크롤러굴삭기 생산

### Russia

#### 러시아 우수리스크

#### 현대자원개발 우수리스크 법인

연해주 농정(옥수수, 콩 재배 및 수확, 판매)과 목장 위탁 관리

### Indonesia

#### 인도네시아

#### 현대종합상사 인니공단 법인

1992년 인니 공단의 주요 인프 라시설 완공 후 8개국 95개 업 체 입주. 공단 관리,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관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현대종합상사 자카르타 지사

수십 년 간 축적해온 네트워크 와 빠른 정보력, 숙련된 거래기 법으로 선박, 기계플랜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와 기타 일반 상품의 무역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

# Malaysia

#### 막레이시아 쿠앜라<del>룾</del>푸르

#### 현대종합상사 쿠알라룸프르 지시

현지의 각종 SOC 건설사업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PLANT 건 설사업, 대형선박, 변압기, 중장 비 등의 중공업제품 공급. 주요 전략 품목은 철강

청년이여 행동하라!

# 아시아 **45**5 급

### **Japan**

#### 일본 오사카

#### 현대중공업 오사카 지사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배전반, 변압기, 회전 기, 차단기 등을 일본 내에서 판 매. 일본 내 전기 전자업계의 정 보수집 및 일본 관서 지역의 그 린에너지사업분야 영업 담당

#### 일본 동경

#### 현대중공업 동경 지사

선박영업에서는 일본 유수의 선 주 사 방문, 협의를 통해 선박계 약을 위한 본사 지원을 하고 있 고, 전자전기 영업에서는 회전 기, 발전기, 변압기 등 주요 일본 중공업 방문 및 협의를 통한 영 업과 신규 거래원을 개발 중

# Singapore

#### 싱가포르

#### 현대오일뱅크 싱가포르 법인

본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원유 조달, 신규사업 개발

#### 시가포르

#### 현대중공업 싱가포르 지사

조선, 해양, 해양설치공사지원, 선박 입항 시 A/S, 본사 금융지 원 및 선단관련 지금 관리

#### کر کے

### Vietnam

#### 베트남 호찌민

#### 현대종합상사 호찌민 지사

수십 년 간 축적해온 네트워크와 빠른 정보력, 숙련된 거래기법으 로 선박, 기계플랜트, 철강, 자동 차, 전기전자와 기타 일반상품의 무역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

#### 베트남 비나신

#### 베트남 HVS

99년 4월 베트남 국영조선소와 합 작으로 설립. 지금까지 200여 척 의 선박을 수리, 개조. 올 매출실 적목표는 작년보다 100% 증가한 5천200만 달러



#### 홍순권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러시아통상 전 공. 우수리스크 법인과 현대하롤농장, 현대미 하일롭카농장을 왔다갔다하면서 번역작업, 통역 보조, 농장의 옥수수, 콩 필지의 잡초 식 생 조사와 현지 직원과 시원의 업무를 보조



#### 장현찬

러시이통상 전공. 현지 사업의 생산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도감 작성 및 서류번역 과 사무보조 업무 담당. 그간 배웠던 러 시아어와 지역학적 지식을 인턴 생활에 적용 중

# Ussuriisk

인턴소개 💳



### 홍순권 역사적 거점에서 나를 빛내다



인턴 생활에서의 주요 업무는 실무진의 업무를 보좌하는 번역 업무, 통역 보조, 자료 조사였고, 가장 핵심 업무는 콩과 옥수수의 생장을 저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잡초의 식생(분포 형태, 잡초의 종, 퇴치 방법)을 수치로 환산 및 자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전공이 통상계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화계열 학

문에도 관심이 많아서, 식생 조사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작업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식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어떤 종인지 파악하고, 필지에서 구획을 나누어 잡초의 개체 수를 파악한후 낸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필지에 어떤 잡초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성과를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수년을 배웠음에도 어려운 실무적 표현, 그리고 문어체와 구어체, 심지어 상황과 문서 종류에 따라 형식이 다 다른 러시아어의 난관들을 단시간 내에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well-prepared라 불릴 수 있는 러시아 지역 전문가가 될수 있는지 대략적인 방향 설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턴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험은 법인장님과 출장 오신 본부장님께 인생과 회사 생활, 미래 설계에 대한 소중하고 유익한 말씀 많이 들은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법인에서 업무의 흐름과 농장과 목장의 운영 등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해주는 우리나라와 한국인에게 가까이에 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TKR와 TSR이 연결되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러시아로 갈 때가 온다면, 이 땅은 다시 예전 발해의 영광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광활 한 자연환경과 작물 재배에 딱 맞는 기후는 제가 디뎠던 척박하지만 풍요로운 이곳을 앞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줄거라 기대합니다. 그런역사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장소에서 보낸 지난 시간은 저를윤택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희가 있는 연해주는 러시아에서도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인구감소와 산업발전에 제약이 많은 곳이지만, 러시아 연방정부가 야심 차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대자원개발은 이 지역에서 영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후, 이 지역에 펼쳐진 농장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 사유재산이 정착되었으나, 이 농장들을 살리기 위해선 자본투자가 절실했습니다. 현대자원개발은 6,700ha 규모의 농장을 인수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1만 2000톤 규모의 곡물을 수확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고구려와 발해는 이 광활한 만주벌판을 누볐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수많은 독립투사가 일제에 항거하여 연해주에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뿌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남북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분단되는 비극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현실이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연해주는 그렇게 잊혀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아직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해주에 나와있는 몇몇의 기업들 중, 현대는 가장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GIS(고압차단기)공장을 이 지역에 건설 중이며,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은 현지에서 최고급 호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와있는 여러 현대인들을 만났고, 그들이 가진 진 취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라를 짊어 질 청년세대의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연해주의 광활한 평원에서 품은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러시아 땅에 흘린 한민족의 피와 눈물을 보고 오다

# 연해주 문화 탐방기





### 발해 성터

우수리스크 외곽으로 나가면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으며, 그곳에는 발해의 성터가 남아있습니다. 성벽은 파손이 심해 부분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고, 커다란 석상만 그곳이 발해제국의 중심이었음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이 석상은 러시아정부 차원에서 관리 되어서 출 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곳, 연해주는 한민족의 피와 눈물이, 그리고 역사의 흐름의 아픔이 절절히 맺혀있는 곳입니다. 현대자원개발의 현지 법인이 있는 연해주에는 발해의 성곽 터,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집 터, 이상설 선생을 기리는 유허비와 고려인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법인장님과 이야기하다 듣게 된 사실 중 한민족과 관련해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 연해주에는 모두 5가지의 한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남한사람, 북한사람, 조선족, 스탈린의 강제 이주를 경험했던 고려인,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고려인. 다사다난했던 우리 역사 그대로를 이 다양한 민족 분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상설 유허비

우수리스크에는 이상설 선생의 유해가 뿌려진 장소와 유허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은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결연히 맞서 이를 철회시키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상소투쟁을 펼치시던 분입니다. 이후 만주와 노령으로 망명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면서 1907년 광무 황제의 특사로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파견되어 한국 독립을 호소하였으나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연해주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고려인들의 연해주 정착사, 항일투쟁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은 슬픔에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러시아군으로서의 투쟁도 불사하였던 우리 조상, 백군과적군의 권력 투쟁 속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모국을 떠나온 뒤로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백의 (白衣)를 고수하였던 사람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지금 많이 변한 고려인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크나큰 역사적 단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해주었습니다.

### \*\*\*\*\*

### 승마

하롤농장 주변에는 소와 말을 키우는 목장도 있습니다. 가끔 방문객이 있으면, 말을 탈기회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조랑말이 아니라, 덩치가 큰 말이라서 초보자가 타기에는 부담이되는 측면도 있지만, 막상 타면 그 재미가 훨씬 더 큽니다.



# **Photo Essay**

1. 이상설 선생의 유골이 뿌려진 강 어귀에 있는 유적비 2. 목장에서 유유를 짜고 있는 모습 3. 현대하톨아그로 본부 - 본부의 입간판 앞에서 - 인턴 홍순권 4. 항카호수 - 좌로부터 인턴 홍순권, 최준호 사원, 경영지원본부장님, 인턴 장현찬 5. 고려인 문화센터의 전경. 건물은 너무 지저분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6. 현대하톨농장 - 잡초 식생조사를 진행중에 찍은 사 진. 강렬한 햇살에 옷을 벗지는 못하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 7. 우수리스크 법인 목장 - 목장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의 아들과 인턴 장현찬군 8. 블라디보스토크 현대 호텔 - 현 대 호텔에서 바라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9. 우수리스크 주변 마을 - 우수리스크 주변의 한 마을에서 길가를 찍은 사진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하수민 리서치 및 시장조사 업무 담당

고동안 여러 유럽국가를 다니면서 선진국들만 봐왔었는데, 이번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환경 과 분위기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수민. 이 곳의 역동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남은 인턴생활 호빡샤!





#### 유보의 첫해외인턴

이번 청년인턴이 첫 해외 여행이자 첫 인턴이라는 보희. 처음이라는 점에서 서투른 점도 많았지 만 직원 분들과 함께 온 인턴 친구들의 조언덕분 에 즐거운 한 달이었다고

# ' 김다휘 맛집탐방녀

통상통역 전공. 3남매 중 맏이이며 대전토 박이. 영화주로 외화와 미국 드라마, 팝송 을 좋아함. 미식가는 아니지만 맛있는 음 식을 먹는 것도 좋아해서 맛집이나 마트 탐방이 또 다른 취미



인턴소개 💳

인니공단



#### 이슼 인도네시아 전공자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어학연수를 하면 서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 이 많아 다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된 인도 네시아의 여인, 인턴 생활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중





어느덧 인도네시아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한지 2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첫째 주에는 더운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함께 온 인턴들 모두 고생했다. 일주일 동안 자카르타 지사에서 직접 해외영업 업무를 경험 할 수는 없었지만, 인턴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가스, 철강, 조선산업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둘째 주부터 본 격적으로 Bekasi 지역에 위치한 Hyuncki INII Development 에서 근 무하기 시작하였다. 2인1조가 되어 오전, 오후 현대공단에 위치한 공장들을 견학하고 회사 프로파일조사, 공장시찰 등 여러 업무를 하게 되었다. 여러 공장을 돌면서 한국인은 물론이며, 현지인, 일본 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록 한달 동안의 인턴 생활 이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크고,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꿈 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술 Sampai jumpa lagi (또 만나요)!

아산나눔재단 청년인턴 합격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를 다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답 니다. 찌까랑이라는 생소한 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같은 장사봉 부장님,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사리 비서님, 우릴 안 전하게 차로 데려다 주시는 수꼬노 아저씨 덕분에 이곳 생활이 너무 재미있답니다. 요즘은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 이어서 온 마을이 조용하긴 하지만,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인도 네시아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유익해요. 또한 인도네시아에 서도 한류열풍이 불고 있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 도네시아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를 통해 현지인들과 친구도 하 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참 흥미로워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배 우고 더 많은 문화를 체험 하고 가야겠어요. 그럼 Sampai jumpa lagi(또 만나요)!





생전처음 해외로 나갈 기회를 얻은 덕에 기대와 설렘을 한 가득 안고 도착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처음 일주일은 현대종합상사 자카르타 지사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시장 조사와 보고서 발표를 하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자카르타 시내는 서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고층 건물도 많고 차도 많아요. 오토바이가 차만큼이나 많답니다. 자카르타 도심을 한참 벗어난,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찌까랑에 위치한 이 곳 인니공단 생활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단인 만큼 이 곳에는 무려 100억군데 회사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4명의 여자인턴들이 하는 일은 그 공장들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통해 회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에요. 공장을 견학하면서 생산 공단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인니공단의 한국법인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윤보희 현장, 있는 그대로의 생생함을 느끼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한국을 벗어나 타지를 가는 사람들에겐 위험한 것부터 당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외국을 나가는 것, 그리고 인턴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처음인 나에겐 남들보다 두 세배 이상의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내리고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시며 우리를 걱정해주시는 직원 분들의 배려에 걱정이 하나 둘씩 기대로 변해갔다. 일주일 동안의 자카르타 지사에서의 생활은 현대 종합 상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현지상황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철강, 조선, Oil Gas 같은 분야에 문외한인 내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3주의 기간 동안은 인도네시아 Bekasi 지역에 위치한 인니공단에서 지내게 되었다. 부장님의 지시에 따라하루에 최소2개 업체를 방문하여 생산품목부터 향후 계획까지 업체 Profile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다.

# 인도네시아 브까시 공단의 문화 체험

윤보희, 이슬, 하수민, 김다휘



7월 19일 목요일 저희 인니공단 인턴들은 반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반둥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반둥은 인도네시아에서 발리, 족자카르타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날씨도 인도네시아 날씨 답지 않게 시원해서 인기가 좋다고 해요. 우리나라 가을날씨와 비슷하답니다. 저희는 무박으로 반둥을 다녀왔지만, 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재밌고 볼거리가 많았어요!

인도네시아의 마(macet, 교통체증)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시반에 찌까랑에서 출발하여 3시간만에 반둥에 도착하게 되었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가게 된 곳은반둥의 온천이에요. 인도네시아 가족들이 계곡 같은 곳에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길래 "와 엄청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을 물에 담궜는데 너무 뜨거워서 발이 데일뻔했어요! 알고보니 이곳이 온천이더라구요. 이곳은 공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계곡도 있어서 마치 하나의 마을 같아요. 좀 더 오래있고 싶었지만, 인도네시아 날씨 탓인지 너무 더워서 빨리 나왔답니다.두 번째로 간 곳은 반둥에서 제일 유명한 Tangkuban perahu화산에요. 이 화산은 "침몰한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활화산이에요. 그 곳은 인도네시아 답지 않게 너무너무 추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화산 구경도 하며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

요. 그곳에서 끓는 온천수에 발을 담글 수 도 있고, 계란을 삶아 먹을 수 도 있어요.처음 보는 풍경이라 하나하나가 다 신기했답 니다.

점심 시간이 되고 저희는 너무 배가 고파서 Kampung daun이라는 곳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나뭇잎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계곡, 산, 폭포가 어우러진 곳에 오두막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원해서 좋았어요. 계곡의 물소리도 들으면서 밥을 먹어서 좋았구요! 그 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은 후에는 반둥의 딸기 농장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큰 딸기 농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딸기를 딸수도 있었어요. 딸기가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기도 따보고 너무너무 재밌었답니다. 저희가 딴 딸기로 딸기주스도 만들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반둥에서의 하루가 다 끝나버렸네요. 이 곳 말고도 코끼리 박물관, 아울렛 등 구경할게 많았지만 다 못 둘러봐서 조금은 아쉽기도 해요. 반둥은 날씨도 시원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매력이 참 많은 도시랍니다. 혹시 인도네시아에 들리시거든 반둥을 꼭 여행해보세요! 추천할게요!



# **Photo Essay**

1. 인니공단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인턴들이 근무하는 오피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2. 퍼시픽플레이스 식당 - 자카르타에 머물동안 자주 찾았던 mall인 Pacific place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3공단 J.CO 도넛 · . 인니공단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페와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턴들은 J.CO도넛집을 자주 들르곤 합니다. 4. 인니공단 숙소 - 3주간 머물게된 인니공단내의 숙소 Meadow green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5. 자카르타 시내풍경 - 일주일동안 자카르타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찍은 빌딩주변 건물들입니다. 주위엔 온통 높은 고층건물들로 가득합니다. 6. 자카르타에서 몇안되는 관광지중 하나인 모나스광장입니다. 주말에 인턴들과 함께 관광하였습니다. 7. 일주일간 머물렀던 자카르타 숙소인 The sultan hotel에서 바라본 자카르타 시내 전경입니다. 8.인니공단 숙소 내사 사진입니다. 1개의 집에서 여 인턴4명이 2인실, 1인실, 1인실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9. 인도네시아 현지음식 인 빠당맛집을 찾아 갔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밥과 함께 먹을 수 있으며 진정한 Local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궈대우 권현대, 퇴임직전의 교장샘, 듬직함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고 보 고하는 멋진 맏형, 부드러운 카리스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뛰어남



노태경 손진영, 노총각체육샘, 시끄러움

뛰어난 친화력, 능숙한 분위기 메이킹, 포기란 없 는 '무한도전' 형, 업무에서 또한 책임감과 완벽주 의를 추구함



#### 차상현 절대아이다, 무뚝뚝한아빠, 묵직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의 소유자, 모 두 함께 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이끌고 가는 '리 더'형



인턴소개 🝱



#### 김기환 공룡, 노총각 시골교사, 어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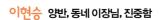
예의 바르고 생각이 깊으며,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사윗감 형. 인턴들의 회계, 인턴들의 문화 탐방 모두를 도맡아 처리 하는 전문가



이해욱 햄토리, 막내동생, 귀여움 인턴들 사이에서 가장 밝고 귀여운 <del>웃음을</del>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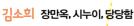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짐

당신은 해피바이러스, 업무에서는 유연한 사고와



여유가 넘치고 인턴들의 심리적 안식처가 되어주는 세 상에서 가장 인자한 형,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도 자기 일까지 해내는 자기관리의 달인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회<mark>의를</mark> 제안, 진행하는 '사 회자'형, 철저한 일처리 등력과 함께 부드러운 센 스를 겸비한 팔방미인



#### 김건아 잉여퀸,사춘기누나,밝음

파이팅, 활력소, 비타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보다 더 인턴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단장. 항상 배 우고자 하는 열망이 커 성장의 잠재력이 큼



#### 허주희 헐준희, 철없는 막내삼촌, 가벼움

저돌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하는 '선구자'형, 어 떠한 장난도 다 받아 줄 수 있는 진정한 대인배



# 이호현 정범균, 전업주부, 이상함

언성이 높아지면 누구보다도 먼저 중재에 나서는 평화 주의자. 주위에서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위험이 있음



#### 최다애 인도미인, 깍쟁이 반장, 똑부러짐

상대방의 장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을 강화시켜주는 동기부여 능력이 뛰어남. 오늘할 일은 오늘 안에 모 두 끝내는 투철한 책임감

# 김세후 세퓌, 어리바리 교생쌤, 빈틈심함

상대의 나이, 직위,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공감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남. 10%를 말해도 100%로 알아들어 효율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 김연수 곰신, 미혼의 양호쌤, 멍함

모든 사람들이 고민상담하고 싶어하는 여자. 조직에 대한 헌신이 매우 높아 어디서든 도움이되는 사람

### 경은선 경은선씨, 육상부, 리액션

풍부한 경험, 왕성한 호기심으로 누구에게 나 친근한 사교성을 가짐. 복잡한 화제와 문 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자



064



소풍 가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부푼 마음 을 안고 출발한 인도. 긴 비행시간으로 지쳐갈 때쯤 도착한 뭄 바이 공항하였습니다. 인도는 엄청난 더위와 습기로 우리를 맞 아주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날씨 속에서 한 달을 보내야 한 다는 사실이 괴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위치한 곳, 푸네 는 해발 600m에 위치하고 있어 첫 날 느꼈던 더위는 좀처럼 느 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인도의 교통 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무질서함' 그 자체였기 때 문입니다. 몇 차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정신 없 이 도착한 법인에서 현지인분들의 환영을 받으니 왠지 모를 뿌 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한 달간의 인턴 경험이지만 첫 직장 을 가진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곳에서 기술 부서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오기 전, 건설 장비에 대한 용어나 지식이 많 이 부족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 만, 실제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 산 공장과 조립 공장을 돌며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 우리의 '진심'

그런데 여기서 봉착한 또 다른 난관은 바로 'Inglish'(인도식 영어)이었습니다. 매번 미국식, 영국식 영어에 익숙한 우리들이 현지인의 발음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소통의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종이와 펜으로 중간 중간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몸짓발짓을 하며 소통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가되려고 마음먹은 순간, '언어'라는 수단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잊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의 기억, 굴삭기 운전

2주간의 짧은 일정 동안 기억에 남는 일 꼭 하나만을 꼽자면, '굴 삭기 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제가 굴삭기 운 전을 해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조이스틱 두 개로 굴삭기의 arm, boom, bucket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새롭고 놀라 운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날까, 조심스레 운전하긴 했지 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굴삭기 운전의 기회는 아마 한국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해외 인턴 기회를 통해 회사 내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지칠 때, 함께 인도에 와서 생활하는 동기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13명의 인턴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주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사히 건강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법인 파이팅!



인도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이다. 공항에서부터 마주하게 되는 인도의 첫인상은 매우 '불쾌'하다. 습하고 더운 날씨,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속이려고 작정하는 상인들, 낯선 향신료 냄새까지…… 그런데 이렇게 불쾌한 나라에 많은 한국인들이 여행오고 또 다시 찾아오기까지 한다.

#### 친근하며 쿨한 인도인들!

인도 문화를 다 이야기 하자면 너무 광범위하다. 인턴활동을 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도문화는 관광지도, 엔터테인먼트도 아닌 사람, '인도인'이었다. 인도인들은 매우 쾌활하다. 때론 시끄럽기까지 하다. 이는 그들이 감정적이어서라기 보다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마음 한켠에 고이 담아두는 '한'의 정서를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천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턴생활 중 함께 했던 인도인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친근했다. 또한 그들은 솔직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앞에서 바로 말하여 오해를 씻어버리는 사람들이다. 무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인도다운 것이었다.

#### 여유롭고 현세적인 그들의 삶!

인도인들은 매우 게으르다. 공장 생산라인을 살펴보면 항상 절반은 쉬고 있다. 또한 아침, 간식, 티타임 모두 지켜가며 여유롭게 일한다. 퇴근시간 또한 매우 정확하다. 성실하고 야망이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또한 매우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인도의 상식적인 문화가 존재한다. 그들은 '지금'을 즐기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 오늘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기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삶이라고 볼 때,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는 인도인들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순간을 즐기다보니 '시간관리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시간관리가 되지 않으니 한편으로 인도인들은 매우 급하다. 인도의 도로사진을 본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질서하고 추월과 경적소

리가 난무한다. 순간을 즐기다 보니 오히려 그들은 순간 순간에 쫓겨 항상 바쁘다. 느림의 미학을 느끼러 여행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일지도 모르겠다.

인턴생활을 하면서 함께 일한 인도인을 통해서 인도 문화의 작은 부분을 배웠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업무 중에 또는 업무 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지내다 보니 문화를 넘어 하나의 '사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수 있었다. 우리의 친구 수만이 말했다. "너희와 우리는 먹는 쌀과 반찬만 다르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에 친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턴생활이 우리에게는 인도의 깊은 문화에 빠지고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인도 최대의 도시 뭄바이를 가다

지기환



### 이디아 게이트와 전통시장

우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뭄바이 남쪽의 인디아 게이트. 바다를 향한 거대한 문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영국 국왕 부부의 방문 기념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식민지의 상징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여행을 온 인도인 학생들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일행은 즐겁게 그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타지마할 호텔 뒤의 전통 시장은 우리를 충분히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인도 특유의 냄새가 물씬 나는 시장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우리를 불러세웠고 그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스카프와 악세서리부터 옛 선원들이 쓰던 오래된 항해도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점심 시간, 인도 향신료 냄새가 나는 식당에 도저히 발을 들일 용기가 없었던 우리는 결국 맥도날드에들어가게 되었고, 인도식 햄버거를 맛볼 수 있었다.

뭄바이의 가장 큰 볼거리는 유럽풍 건축물이었다. 아라비아 해에 접하고 있어 유럽에 가장 가까운 항구 뭄바이는 포르투갈과 영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아왔고 시가지의 건축물에 이러한 역사가 깊이 배여 있었다. 시가지 전체가 성당 같은 분위기를 보여 주었고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마지막 장면의 배경이 된 CST역에도들어가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도비가트, 100년도 더 된 옥외 빨래 터로서 아직도 손으로 세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였다. 이 들의 인건비가 전기세탁기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기 때 문에 아직 이러한 세탁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Jack이란 가이드와 협상 끝에 한국 돈 400원 가량을 지불하고 그의 안내를 받아 도비가트 관광을 마칠 수 있었다.

최첨단의 고층빌딩과 수백년이 넘는 건축물들, 고급 쇼핑센터와 빈민가가 공존하는 뭄바이는 참으로 매력적인 도시였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화려한 유럽풍 건축물보다는 자신의 위치 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빈민가 사람들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단지 내가 그들보다 나은 조건 속에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만 이 아니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여행이었다.

# 전통과 문명이 공존하는 땅,

인도



### 시골과 도시가 공존하는 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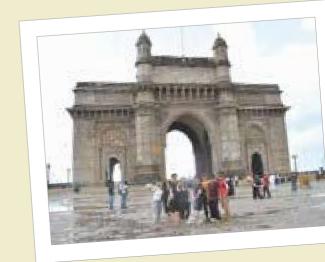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인도의 푸네라는 도시로 인도에서는 7 번째로 큰 교육 도시입니다. 제가 묶고 있는 숙소와 회사는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풍 경 속에서도 인도란 나라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푸네 도시의 중심부는 서울 못지 않은 번화가입니다. 수많은 쇼핑몰은 정말 커서 마치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또한 차도 위의 많은 외제차와 큰 빌딩들, 잘 닦인 도로는 제가 인도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도심부에서 약 10분정도만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도 고유의 풍경 들을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차도위로 한가롭게 돌아다니면서 길을 막고 있는 소떼들과 수많은 오토바이 및 삼륜 택시인 릭샤들 로 인해 정말 길 위는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인도의 시장 및 사원들을 보면서 인도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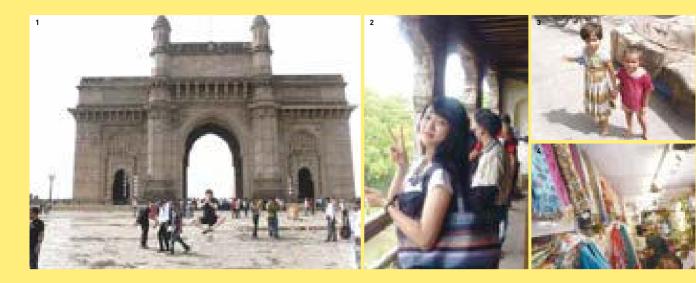
### 똑똑하지만 순박한 인도 사람들

이곳 인도사람들의 공학에 대한 지식은 말로 들었던 것 이상으로 대단했습니다. 이곳 인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때마다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또 전공들을 자유롭게 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순박한인도 사람들의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공장시설이 신기해서물어보려고 다가가기만 해도 어느 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인도 직원의 경우에는 저희 여자 인턴 동기와 사진을 찍고 싶어서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와서 사진을 찍어 달라 요청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 인도의 가족문화 체험

법인 내에서의 한 인도직원의 초대로 인하여 인도의 가족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거트인 라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라는 숄이 둘러져 있는 형태의 옷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인도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순서였는데 먼저 남편과 자식들이 식사를 하고 나중에 할머님과 부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직 인도 가족 사회에서는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Photo Essay**

1. 인도 뭄바이의 명소 Gate of India에서 공중부앙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호현 인턴입니다. 정말 개구장이 같네요. 2. 푸네에 있는 샤니와르 와다 왕궁 김세휘 인턴 한 컷. 인도 남성들의 맘을 설레 게 했다네요. 3. 도비가트에서 촬영한 귀여운 두 아가들. 눈망울이 정말 크고 예쁘네요. 4. 인도하면 생각나는 것중 하나가 예쁜 색의 스카프인데요. 광장히 많은 종류의 스카프를 접할 수 있습니 다. 5. MG 로드 - 푸네의 도심지입니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건물이 인도 느낌을 중기네요. 6. 우리의 왕고! 권대우 조장남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아빠미소를 지어주는데요, 신기한 낙타앞에서 한켓 7. 가타템플 -강정원 부장님과 함께 한 가타템플 나들이! 석양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법인 근처에 있는 사원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답네요. 8. 우리 법인에서 귀염통 이를 알고있는 김연수인턴 노점상과 흥정중인데요 과연 성공활까요? 9. 도비가트 - 몽바이에서 유명한 빨래터에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몽플했어요.







10. 뭄바이의 자랑 타지호텔입니다. 굉장히 컸는데요. 화장실에서 물까지 틀어주는 서비스는 잊을 수 없습니다. 11. 인도의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은 현지인들과의 기념사진! 김소희인턴의 얼굴이 해맑고요. 12. 첫 출근, 인도법인 본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달동안의 인턴기간에 설레는 표정이네요. 13. 세미나롬에는 커피머신이 있는데요. 현지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티타임 을 즐기곤 합니다. 14. 인도 아이들은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진기만 들이밀면 이렇게 해맑아 진답니다. 15. 인도 푸네 법인 2기 파이팅! 현대중공업 인도 푸네 법인 파이팅! 아산나눔재단 파이팅! 16. 인도의 대표 교통수단 릭사입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운전기사들과의 흥정이 필수입니다. 17. 첫번째주 주말 법인장남을 따라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인이 많아서 놀랐 습니다.







#### 김아인 중국인닮은 싱가포르인

덥고 습한 싱가포르 기후에 완전 적응 ! 매 주 교육을 받으며 석유산업에 공부하고 있 다. 한국에선 책으로 공부하는 방식에 익숙 했지만 인턴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는 방식 으로 쑥쑥 성장 중





#### 홋지희 일본인 닮은 싱가포르인

한 달이 너무 짧아 아쉬운 지희, 그만큼 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싱가포르인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 인 도네시아, 중국, 한국, 유럽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글로벌한 시각'을 배우겠다는 야심 가, 어려운 싱글리쉬(Singlish)까지 매력으로 느껴진 다는 그녀는 이미 싱가포르인

# Singapore

인턴소개 📒





김아인 · 홍지희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 저희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지 숙소 'SIS 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 아 가정부 나나와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나나 는 아침, 저녁으로 한국 요리를 해주는데 한국 음식이 전혀 그 립지 않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매일 저희는 성격이 활발하고 대 화를 좋아하는 나나와 수다를 떨며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 니다.

숙소가 위치한 곳은 MRT(싱가포르의 지하철) 초록색 라인의 'Eunos'역입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MRT 노란색 라인 'Promenade'까지 가려면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숙소 근처의 캠방간 역에는 잔디밭과 농구장, 운동 코스가 있어서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숙소에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는 열심히!!

업무는 크게 일일 업무와 수시업무가 있습니다. 일일 업무는 국내, 해외 경제/정유 기사를 스크랩 하는 것입니다. 유가는 세계 이슈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일 신문을 읽으며 주요 이슈들을 알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매일 오전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업무는 석유 산업 정보지를 번역하거나 수시로 주재원들께서 요청하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팜 오일로부터의 바이오 디젤 공정'을 맡아 자료를 검색하여 보고서로 제출하고, APPEC(아시아 태평양 석유 회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일일 업무와 수시업무를 수행하며 정유산업 전반적인 배경지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주재원 분들의 업무를 보며 질문할 때 마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싱가포르 문화!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지하철을 탈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벌금 제도가 엄격하여 'Fine city'라 불리는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치안도 잘 되어있어서 인턴 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환경입니다.







# 국제적이고 아름다운 나라,

싱가포르 ♦ 김아인, 홍지희



#### 시가포르국립대학교

지난 수요일(18일) 싱가포르의 단연 으뜸으로 뽑히는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 다녀왔습니다. 2009년 기준 세계의 대학교 순위에서 88위를 기록하였고 동남아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의 유학생을 볼 수 있어서 국제적인 대학교로 청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탐방을 도와준 니콜과 엘씨에게 어떤 점이 NUS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했냐는 질문에 그들은 첫 번째로 토론수업을 꼽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방문했던 비즈니스 학과의 세미나실에서는 교수님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은 토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학교 시설입니다. 실제 저희가 방문했던 건물의 대부분은 테이블이 충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각 건물마다 열람실이 있었습니다. 유니버시티 타운에는 최고 현대식 시설로 지어진 기숙사가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과 외국인 학생 비율입니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 외적으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논문 작성 등이 NUS를 국제적인 학교로 돋움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탐방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NUS가 국제적인 대학교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자랑하는 NUS에서 졸업 후 세계 곳곳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NUS 학생들을 보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

#### 센토사 섬 그리고 멀라이언 타워

성가포르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센토사 섬(Sentosa Island)은 해 변, 유니버설 스튜디오, 멀라이언 타워 등 볼거리가 풍성한 대표 적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갔던 곳은 멀라이언 타워(The Merlion Tower)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최남단이기도 한 센토사 섬은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팔라완비치(Palawan beach)에 있는 전 망대에 올라서 보았던 센토사 섬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 **Photo Essay**

1. 케펠베이 - 김아인 인턴을 사진찍는 싱가포르 천구 Wayne 2. 이스트 코스트 해변 - 싱가포르 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단체 게임 끝난 후 찍었습니다. 3. 아자수가 많아 이국적인 풍경을 볼수 있었다. 4. 싱가포르 국립대학 - 대학생들을 위한 유니버시티 타운 잔디밭입니다. 누워서 책도 읽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5. 멀라이언 타워 앞에서 - 문화탐방을 도와준 싱가포르 친구 Wayne과 함께 6. 센토사 섬 - 멀라이언 타워 -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상상 속 동물인 멀라이언 7. 래플스 플레이스 역 앞 - 싱가포르 고층 건물이 모여있고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8. 케펠 베이 문화탐방 중 멋진 건물 촬영 9. 리틀 인디아 - 길거리 영화촬영 중. 기발을 쓴 남성이 인상적이었다.





## 김기워 작은눈, 말보로 가이

눈이 작아 렌즈도 못 끼는 비운의 남자. 하지만 작은 눈으로도 더 많은 사람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자

### 김동민 베트남스타일

G7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된장 남. 낮에는 베트남 태양 아래서 자전거를 타는 점잖은 청년, 밤이면 기숙사를 탈출하 고픈 불타는 사나이



## 김동현 불꽃남자

현지인 보다 더한 한국인, 현지 점원의 실수로 더운 날씨에 턱받이를 메고 다니지만, 어느 누 구 보다 베트남 문화를 많이 배우기 위해 열정 을 다하는 청년. 지금도 현장의 열기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현지 엔지 니어의 열정을 배운다

노해성 욕심쟁이

력 중



# HVS

인턴소개 🔀

#### 무희영 베트남어를 글로 배운 여자

비나신 조선소의 면세품 구매 및 환전 담당, 깨알같은 면세점 이용과 환율차익을 노리는 치밀한 성격, 이러한 열정이 업무에도 적용되는 여자, 베트남어를 글로 배워 현지에서 멘붕 중, '베트남'스러운 외모로 매일 놀림 받지만 그것마저 웃어넘기는 대인배



#### 박지현 HVS비타민

HVS의 활력소, '모든 길은 나를 통해서 간 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칭찬과 격려조언 등으로 팀의 분위기를 이 끌어가는 긍정의 소유자, 특유의 친화력으 로 팀원들 외에도 현지 직원들과 친해져 많 은걸 배우고 있다!



# 임성록 미소천사

업무 중에도 죽지 않는 그의 살 인미소. 성시경이 부릅니다. 미 소천사 임성록



## 박상진 최고령자, 부서에선 막내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지옥 같은 육지멀미 와 물갈이 설사에서 죽다 살아 돌아온 노장. 부서 내에 선 뛰어난 적응력과 성실성으로 사랑 받는 귀염둥이 막 내, 평소 과묵하지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재치 있는 말로 주변을 즐겁게 해주는 매력남

업무, 문화, 사람 등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욕심쟁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찾으려는 차 별화된 학생! 주어진 기간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



### 신준영 비나신 조선소의 현지인 담당

베트남어 전공자답게 '베트남' 스러운 외모를 보유, 인턴경험은 물론 베트남 현지 문화까지 배우려는 열정적인 욕심쟁이



### 이종도 경상도양파

과묵한 경상도 사나이지만 서비스 정신투철!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오는 잡기를 가지고 있어 팀원들의 사진촬영, 숙소 내 와이파이 설치 등 필 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담당



# 이은지 베트남인, 번역봇

이번에만 해도 베트남은 3번째! 옆 동네 가듯 베트남에 가는 여자. 그래도 더운 베트남 날씨는 적응 못하겠다는 아직은 내공이 필요한 미래의 현지 전문가, 현지 직원들에겐 '번역봇'



# 이현직

베트남에서 새로운 장소, 시간, 사람을 경험 중. 땀 으로 샤워를 하는 날씨와 새벽 6시 기상 그리고 베 트남 현지인들과의 생활이 처음엔 어려웠다고, 현 지 직원들의 큰 도움으로 지금은 극뽁!



# 오종선 스펀지

해외에 온 만큼 모든걸 스펀지처럼 흡수하 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열정의 소유자,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 해 조선소 이곳 저곳을 뛰어다니며 궁금한 점은 바로 질문하여 자신의 지식을 채우는 적극적인 인재



## <del>손유정 폭풍땀샘</del>

처음에는 진지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친해지면 은근히 웃긴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오후 2시에 열심히 걸어서 야드투어를 다니는 씩씩한 여사 원! 한국에서는 평소 땀이 잘 나지 않아 걱정이 었는데 이번 인턴에서 그 동안의 땀샘이 한꺼번 에 터져 고생 중



# 최용승 에너자이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 나이 멋진 사나이! 뜨거운 태양아래 지치지 않고 조선소 현장을 누비는 만능 에너자이 저!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쉴 땐 쉬고!



#### 조봉한 조기사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조기사' 조선소의 모든 기계, 전기를 유지 보수하는 보전부의 '조기사' 현장 에 없어서는 안될 산소 같은 남자 '조기사'



#### 하지희 대호, D라인

술, 운동을 사랑하고, 젊은 나이에 D 라인의 몸매를 가진 남자. 조선 공학도로서 현대 비나신 조선의 모든 비밀을 알고자 함. 현재 생산기획부에서 공수 및 공정관리 업무 를 배우고 있음

# 최유려 베트남나르샤

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나르샤 도플갱어, 여자가 거의 없는 비나신 조선소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신분상승, 짧은 기간이지만 현지문화체험, 사회 생활방법, 업무지식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 해 노력하는 중!



076



내가 배치 받은 부서는 회계 부서, 원가 절감의 대표 상징인 우리 부서는 같은 층에 있는 모 부서와 함께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고 생하기도 했지만 "현장과 온도가 같아야 한다"는 현장중시의 경 영철학을 가지고 더위를 이겨내려 무지 노력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베트남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가장 큰 소득은 모든 것 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없이도 잘 버텨낸 것을 생각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는 잘 적응해낼 자신감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한국 과는 조금 다른 무대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생활한 것은 오 히려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 한다 이 경험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런 의미에

서 이번 인턴생활은 나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도전 정신과 함께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아량 을 키우게 된 값진 경험이다.

인턴이 하는 일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일도 사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위대한 일의 바닥에는 초석 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 이 인턴 기간 동안에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내가 한 사소한 실수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는 신중함과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인 턴기간을 보내야겠다. 더불어 이 곳에서 배운 교훈으로 앞으로 의 사회생활에 임해야겠다.

조선 전공이 아닌 내게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생소했다. 하지 만 담당 멘토이신 김경락 차장님께서는 인턴은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여 조직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내 전공인 무역과 조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 며 조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주셨다. 또 차장님은 사무직도 현장을 알아야 한다며 안 전장비를 하고 직접 야드를 걸으면서 열심히 설명해주셨다. 나 도 이번 한 달만큼은 선박 건조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 는 각오로 회사 브로셔나 건조과정에 대해 기초부터 열심히 배 웠고, 건조 중인 선박 시찰체험, 선박 감독 회사나 선급 회사 방 문 등을 통해 조선소는 선박 건조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처음에는 아예 선박분야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나마 건조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번 베트남 인턴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나름의 내 공은 바로 '인내'다. 물론 이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것도 인내하 는 것이지만 앞으로 회사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도 묵묵히 견뎌 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인턴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모



든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인내에 대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중 이다.

스티브 잡스는 '앞을 내다보고 점을 이어나갈 수 없다. 거꾸로 뒤를 돌아볼 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이 어떤 방식으로든 앞날에 꼭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 다. 방학 중 짧은 한 달이고, 전공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 지만 나의 사회생활에는 분명 중요한 점이 되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나중에 이 시간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고 느끼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야 겠다





인턴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도착한 하노이 공항에서 처음 맞이한 것은, 동남아의 뜨거운 열기와 오토바이의 매연, 그리 청결하지 못한 환경이었다. 한국의 환경에 적응되어 버린 나는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생활에 대해 약간의 걱정을 안고 나짱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탈수밖에 없었다. 간단한 조선소 소개와 교육이 끝난 후 배치 받은 부서에서는 많은 현지인들이 반겨주었고, 내 짧은 영어실력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들었다.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금은 그런 불안은 없다. 이들은 미소와 배려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고, 서로 부족한 영어로 업 무를 설명하기도 하고 취미에 대해 담소를 나누기도 하며 즐거 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 밝고 즐거운 사람들이다. 선배직원 분들도 교육을 주관하시며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나 에게는 이곳에서의 일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경험이며, 선박 건 조 프로세스를 익히는 일은 차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큰 도 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이곳 해외 인턴에서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베트남 사람들의 여유이다. 도로의 차들도 천천히 달리고, 식당에서 주문한음식도 천천히 나온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탓일까? 한국인인나는 자꾸 확인하게 되지만 그네들은 한없이 여유롭게 담소를나누며 기다린다. 불안이 쉽사리 가신 것도 이런 느긋한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그런 것일까? 짧은 여행이었다면 그저 답답한 나라로만 기억되었으리라. 업무도, 언어도, 문화도 여행을 통해 느끼지 못할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경험할까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재단과 항상 보살펴주는 현지직원 분들께 감사 드린다.

해외인턴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천에서 베트남하노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 12시간이 흐른 늦은 밤, HVS(HYUNDAI VINIASHIN SHIPYARD)가 있는 나쨩에 도착했고 인턴생활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다. 내가 배정받은 부서는 건조부. 현장의 최전방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조선공학을 전공하는 나에게는 전공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부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에서의 인턴생활은 크게 오전과 오후, 그리고 일과 후로 나눠서 생활하였다. 오전에는 멘토님 혹은 현지 엔지니어 분들과 작업장을 돌아보며 작업현황과 선박의 건조과정을 이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멘토님은 전공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되짚어주고 확실히 이해시켜주었다. 오후에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전공관련 파일을 통하여 선박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끔씩은 현지인들과 현장을 둘러보면서 베트남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였다.

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인턴 혹은 멘토님들과 술 한잔 하거나 수 영장, 헬스장 등에서 개인정비 시간을 가졌다. 주말에는 시내를 돌며 맛있는 것도 먹고, 관광지도 둘러보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인턴생활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이곳 베트남에서 최대의 적은 바로 날씨였다. 인턴기간을 지내는 7월 달은 베트남 나짱에서 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날씨가 무척 습하고 내리쬐는 태양빛에 얼굴은 항상 새까맣게 그을리기 일수였다. 선글라스, 얼굴가리개, 장갑을 끼더라도 항상 내 몸은 시꺼멓게 변해가고 있었다

현지문화와 조선소에 대해 많이 배워나갔으며, 현대 아산나눔재 단의 해외인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업무에 최선을 다했 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번 해외인 턴은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크나큰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 현지인 가정 방문기 집들이 행사



# 전장부, 김기원

# 나트랑 대성당에서 만난 신혼부부



김동현



베트남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집을 짓거나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지인들을 불러 같이 밥먹고 술을 마십니다. 집들이에 참여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갈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일과 후 집들이 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집이크고 깨끗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마당과 넓고 화사한 실내, 집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그 베트남 형님은 자신의 집을 맘껏 자랑했습니다. 본격적인 집들이 파티가 시작 되었고 처음에는 새우구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게 양념튀김, 생선찜, 누룽지와 비슷한 과자 등 한국과 비슷한 재료로 요리를 하지만 들어가는 양념이 우리와는 달라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인들 사이에서 미식가로 통하는 저는 이내 익숙해져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아 많은 대화를 하진 못했진만, 같이 술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서로 웃으며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행복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은 떨어지지만 그들의 높은 행복지수가 말해 주듯, 한국인보단 밝고, 조금한 것에도 기뻐하고, 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트남 남부와 중부가 교차하는 지점의 도시 나트랑. 연중 300 일 이상의 맑은 기후, 깨끗하고 맑은 해변의 자연조건 덕분에 전 세계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불교 문화로 넘쳐나는 나트랑의 도시 한가운데 고풍스러운 고딕양식 의 성당. 100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1928년부터 6년간 지어진 나트랑 대성당은 더 이상 식민지의 상징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베트남 양식과는 대 조적인 회색 빛깔의 성당은 프랑스 특유의 고풍 적이고 섬세한 미를 유지하고 있었다. 성당 인근 천주교인들의 묘지에 나트랑 기차역을 지으면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천주교 묘지를 성당으 로 옮기게 되었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성당의 입구 외벽에는 망 자의 이름과 꽃송이가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특히 본당 내부 창에 장식된 스테인드글라스는 나트랑의 뜨거운 햇빛과 서 양의 색색의 유리조각을 만나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 었다. 우리가 방문한 일요일에는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 온 신혼 부부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비록 한때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 서 지어진 성당이지만, 이제는 베트남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사랑과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



# 참파 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뽀나가 사원은 2세기 무렵 베트남에 상륙하여 1300년 동안 베트 남의 중남부 지방을 지배해온 참족의 가장 오래된 유적입니다. 뽀나가르란 10개의 팔을 가진 여신을 뜻하며, 과거 동남아시아에 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여 신을 숭배하는 탑과 기록들은 과거 중국, 한국, 일본 등 유교권 국가보다 베트남이 더 성평등한 사회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뽀나가르 사원은 역사적인 가치의 크기와는 달리 매우 작은 규 모의 사원입니다. 황토색이 전반적인 안정감을 주며, 나짱의 따 가운 햇살과 잘 어울립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육각형 모양의 기 둥이 있습니다. 체스의 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원의 양식이 베 트남의 전통 양식과 달라서, 이국에서 또 다른 이국에 온 느낌을 줍니다. 계단을 따라 오르게 되면 4개의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 된 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세 번째 탑이 뽀나가 여신을 모시 고 있는 메인 탑이고 주변의 3개의 작은 탑은 그 여신을 지키는 탑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참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탑이라 한 바퀴 둘러 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을 감상하던 중 아쉬웠던 점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 분이 파괴되었고 유지보수 했다는 점입니다. 참파족의 아름다운 건축양식과 전쟁의 아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거대 백불상을 볼 수 있는 곳 '롱선사'



유세현

냐쨩 성당과 냐짱 기차역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언덕 위에 새워진 이 절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불교 사찰로, 특히 태국 사찰 서 선물했다는 언덕 정상에 있는 거대한 외불상과 그 위에서 한눈 에 내려다 보이는 냐짱 시내의 전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계단 을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평온한 모습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 와불상이 있습니다. 와불의 길이는 무려 14m나 되는데, 이 와불 은 태국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단을 더 올라가 정상에 오르면 자그마치 24m의 높이를 자랑하는 거대한 좌불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불상 아래에는 얼굴들이 새겨져있는데, 그 중 가운 데에는 1963년 사원의 수도승인 꽝 득(Quang Duc)스님이 있습니 다. 남베트남 정부의 불교 탄압 정책에 저항하며 사이공에서 분 신 자살을 기도했는데, 이 백불상은 바로 그 분을 기리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 그 주위로 꽝 득 스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롱선사를 처음 방문한 우리 인턴사원들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 기의 사찰 풍경이 좋아서 한참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 **Photo Essay**

1 비나신에서의 첫날. 2 현지직원과 하나둘셋! 3 이하! 4 오늘만큼은 내가 영양사. 5 롱선사. 우와-거대한 좌불상이다! 6 출근 길 상쾌한 아침. 7 고아원. 쓱싹쓱싹 깨끗해요! 8 하얗게 만들어보 아요! 9 혼쫑 바위. 뿌잉뿌잉. 10 석양에 비치는 HVS. 11 성당 결혼식 12 우리 아들 나짱대학교로… 13 HVS의 품격. 14 누나, 오빠 사랑해요. 15 가자! HVS로.







### 권유한 니하오마

강소 법인의 인사 담당, 수백 번 "니하오마?", "씨에씨에"를 반복



# 이정영 깃털같은 남자

몹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 소심하기 보다는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운동이 길다고 생각해달라 는 수줍은 남자



# 김정환 감성청년

외유내강의 부드러운 감성적인 사람, 여행과 운동 그리고 사람 을 좋아함. 세상을 많이 돌아다 녀 경험을 쌓고 싶은 젊은 청년



# 권순성 긱스

축구선수 긱스를 닮아서 강소법인에 서는 긱스로 불림. 현대중공업 강소법 인에서 동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중

Jiangsu (江蘇)



## 노규봉 막내, 모기목소리

얇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굵은 매력! 장난꾸러기이 지만 때론 진지남. 도전적인 활동을 즐기는 남자



# 인턴소개 🌌



## 전수연 강소법인 조장

현재 고객지원부 (A/S부)에서 근무. 중간소통자 역할 담당



관리부 재무과 유일한 XY염색체, 해양호텔 남자방 중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운영. 여행, 여자, 고기 그리고 술을 사랑하는 남자



## 민병학 팔씨름 챔피언

중국 강소 법인의 팔씨름 최 강자.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 을 보여주마



### 김경현 리액션 담당

중국 강소 법인에서 리액션을 담당



# 박정훈 이빨부자

강소 법인의 분위기 메이커



# 김영욱 오락부장, 눈웃음

입만 열먼 빵빵 터지는 강원도 사투리로 동기들에게 웃음을 주 는 중, 대륙의 스케일



## 백정범 겁없는 모험가

철저한 경험주의자. 중국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소통을 이뤄낸 패기 있는 부산 사나이



대한민국 특별시민이지만 생후 1개월 간 남해도에 살았다고 가끔 섬사람이라 놀림 받기도 함. 하루하 루 나름의 청춘을 즐기며 살고 있는 남자



# <u> 안성진</u> 부산남자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 좋아하고 말하는 건 다 좋아함



# 오지형 강소법인돌아이

강: 강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소: 소심하지만 일 할 때만은 열정적인 하지만 법: 인의 돌(아이)



# 최미현 비타민

회사의 운영흐름과 현대중공 업의 주된 업무를 배울 수 있 어 행복한 그녀, 한 달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 김소양 학생마인드

중국현지 직원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기업문화 및 중국문화를 배우며 지내는 중, 성실한 모습으 로 인턴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목표



40대 되기 전에 5개국어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남자. 중국이 그 시작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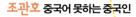
### 오지재 부산출신

부산출신으로 현재는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 후회없는 인턴을 만들겠단 멋진 남자



# 이형준 25살자연사랑

대자연을 사랑함. 외국에 산다 는 것을 하루하루 실감하는 중



처음 온 중국이 몸에 너무 잘 맞아서 2주만에 4kg이 불어버린 남자. 생긴 건 영판 현지인이지만 정작 중국말 은 하나도 못함



## 신보나 문화탐방녀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훈훈한 인턴 생활 중



# 이슬기 첫사회생활 경험자

첫 인턴생활을 통해 회사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가고 있 는 중, 사람관계도 열심히 습득 중



강소 법인의 최고령자로 인턴들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음



# 이조은 존, 무한체력

여행을 많이 해 일명 인간네비게 이션으로 불림, 세계 정복이 꿈





# 오진재 2층 꽃보다 기술부

인천공항에서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는 그 열정과 현지 날씨 때문에 너무 더웠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 다. 낯선 중국에서 인턴을 한지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우선 기 술부에 배치 받은 저는 중국어에 익숙지 않아 언어소통이 많이 힘들었지만 현지 주재원 분들과 동기 인턴들의 도움으로 업무 및 일상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 부서 간 특징과 연계를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

현재까지의 인턴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각 부서가 하는 업무를 다른 부서 인턴에게도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3일 동안 실시되었던 영업부 교육을 통해 소속되어있는 기술부가 다른 부서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라도 입사 후 적성을 살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생활동안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며 제작 및 조립 라인을 눈으로 체험하면

서 굴삭기의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각 공장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며 하나의 건설장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즐거운 인턴 생활

인턴 기간 동안 단체회식, 부서회식, 부장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회사에서 지켜야 할 내규를 알아가고 때때로는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말하면서 피드백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인턴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원님들이 잘해줘서 이로 인하여 힘들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남은 2주간의 인턴도 유익하고 보람되게 보낼 것이며 현재 중국뿐만아니라 여러 각 나라에 파견되어있는 모든 인턴 분들이 건강하게 인턴생활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소법인 FIRE! 파이팅!



# 노규봉 4주간의 인턴 경험, 앞으로 남은 삶의 자양분



#### 나의 삶을 돌이켜보았던 기회

2012년 초, 나는 아산나눔재단의 청년해외인턴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공익근무 도중이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었기에 지원조건만 된다면 나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곰곰이 읽어보니 군복무 전에 별 이력이 없는 나로서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대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만 같았다. 이력서를 쓰며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았다. 쓸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자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어도 보람차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운 좋게 서류통과를 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을 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배정받은 곳이 교육직전에 바뀌는 것은 아쉬웠지만 다른 곳에가게 되더라도 열심히 하지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 쾌적한 시설, 안전한 도시

내가 일하게 된 곳은 장쑤성 창저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강소합 자법인이다. 현대중공업은 중국에 10개가량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강소합자법인이 규모가 가장 크고 깔끔하다고 했다. 나는 건물을 볼 때 화장실의 청결이 건물 청결의 척도라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강소 법인은 비교적 깨끗하였다. 그리고 계획도시라 그런지 길거리가 매우 깔끔하고 건물도 높이 솟아 있었으며 치안도 무척 좋은 편이었다. 상점 간판의 중국어만 아니면 한국의 어느 도시가 아닐까 착각 할 정도였다.

#### 공대생이 관리부에서 일할 수 있는 건 행운

회사에 출근 한 첫 날, 나는 관리부로 배정받아 인턴생활을 하게 되었다. 공대생인 나로서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앞으로 설계나 조선, 해양 공학관련 직장을 구할 계획이라 관리부에서 일을 해 볼 기회가 없을 텐데, 이번 기회에 사람과 회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배울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들었

다. K3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듣고 복리후생에 대하여 연구해보며, 잔반 축소 및 식당개선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볼 기회가 과연 다시 올까 싶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다. 내가 일한관리부 사무실은 매우 깔끔했고 분위기 또한 조용하면서 생동감이 넘쳤다.

#### 인턴생활의 행복! 중국 음식 체험

청년해외인턴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점심과 저녁은 회사에서 한국식으로 먹기 때문에 퇴근 후에나 맛보거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 먹을수밖에 없었다. 훠궈, 사천요리, 동북요리 등 한국에서 먹으려면 돈을 엄청 내야하는 요리들을 기회가 날때 마다 먹었다. 숙소 근처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 편했다. 숙소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공원도 많으며, 테스코와 월마트가 있는데 모두 도보로 해결이되었다. 숙소 안에 탁구장과 헬스장이 있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구조 변경 중이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인턴 2기는 기간이 1달이 채 되지 않는다.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오기 전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있다. 이 4주간의 경험이 앞으로 40년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 같아 매우 기쁘다.

# 자연이 어우러진 항저우(杭州)

# 그리고 동양의 베네치아 쑤저우(蘇州)







우리는 2주차 주말에 창저우와 가까운 도시인 항저우와 쑤저우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항저우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용정촌이다. 산에 계단식으로 녹차 밭이 있었고, 많은 물이 한꺼번에 여러 작은 갈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구계심괄간'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항저우 서북쪽에 위치한 영은사로 갔다. 영은사는 1600여년 전 동진(東晉)시대에 인도 승려 혜리가 항저우에 왔다가 이곳 산의기세가 매우 아름다워 "신성의 영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仙靈所陰)"고말한 후 사찰을 짓고 이름을 영은사라고 지었다. 계곡 옆에 바위에는 촘촘히 새겨진 불상을 구경하는 산책하는 재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항저우의 대표적인 관광지 서호를 탐방하였다. 서호는 항 저우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유명한 미인 서 시를 기념하는 의미로 '서자호(西子湖)라고도 불린다. 서호는 안개가 끼었을 때나, 달 밝은 밤 일출 때 가장 아름다우며, 서호 안에 위치한 10경이 있는데 우리는 단교자설에서 관광을 하고 나룻배를 탔다

## **쓰저**우

항저우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쑤저우의 호구탑으로 향했다. 호구 탑은 959년 오대(五代)의 후주(後周) 때 착공하여 961년 북송(北宋) 태조(太祖) 때 완공된 누각식(樓閣式) 탑이다. 탑이 기울어져 있어 피사의 탑을 연상케 하는데 대나무, 수로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호구탑을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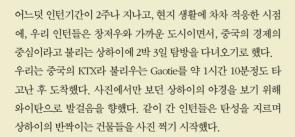
호구탑을 구경하고 우리는 졸정원으로 향했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최대의 정원이며, 중국의 4대 명원으로 꼽힌다. 졸정원은 명나라 때 고급 관료였단 왕헌신이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서 지은 건물이다.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한다'는 뜻의〈졸자지위정〉 이란 시의 한 대목에서 이름을 따와 졸정원이 되었다. 호수에는 연꽃 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이색적인 견산루, 원향당이 정원 내부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쑤저우의 번화가, 관전가로 향했다. 한국에 명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많은 음식점이 즐비해 있었다. 여기서 중국식 저녁을 먹고 1박 2일간의 짧은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 중국의 경제 중심지,

# 상하이(上海)

# 전수연



일정 2번째 날 아침, 루쉰 공원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라탔다. 루쉰 공원은 중국인의 문화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으며, 윤봉 길 의사의 기념관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기 념관에 들어갔을 때 윤봉길 의사의 독립 의지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정숙해졌다.

다음으론 상하이속의 서양을 느낄 수 있는 신천지로 향했다. 중심가로 향하기 전 상하이임시정부를 가보았다. 임시정부 건물에들어서니 독립운동시절 독립열사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서신이나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임시정부를 다 돌아본 뒤 점심을 해결하고, 신천지 중심을 볼수 있었다. 신천지는 동양이지만 서양의 느낌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건물들과 여행객들을 봐도 많은 외국인들이 보이는 곳이었다. 건물들과 여행객들을 봐도 많은 외국인들이 보이는 곳이





었다. 중국 안의 작은 유럽을 보는 느낌이었다. 신천지를 다 보고 난 후에는 예원의 시장거리로 이동을 하였다. 신천지와는 반대로 전통 중국식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중국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와이탄의 반대편을 보기로 결정하고, 중국 돈 2위안을 내고 강을 건너가는 배를 탔다. 짧은 시간 동안만 배를 타면서보는 상하이의 전경은 무척 멋있었다.

와이탄을 강 건너편에서 본 상하이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야경 또한 와이탄 못지않게 무척 예뻤다. 저녁으로는 중국의 전통음 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딤섬을 먹었다.

마지막 날은 중국의 현지 문화를 보고 싶어 유명한 장소보다는 시장을 선택하였다.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던 물건 흥정하는 법 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좋은 물건을 값싼 값에 쌀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 또한 있었다.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창저우로 오는 기차에 올랐을 때 빠르게 지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재미있는 여행을 했다는 뿌듯함이 들었다.







# **Photo Essay**

1.上有天堂, 下有苏杭. 땅에 있는 천국이라 불리는 항주, 그 아름다움이 서려있는 서호의 해질녘 풍경. 2.常州 시내의 주전부리 거리 앞에서 한 컷. 대단한 유적지나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사진은 동기들의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3.출정원 내부의 연못. 아름다운 연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4.상해 신천지 중심지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찰칵 ~! 날씨가 너무 더워 분수대가 너무 뜨거웠지만 사진 찍은 보람이 있네요. 중국이지마 유럽인들이 많았던 곳 이었답니다. 5.항주 서호에서 한 컷. 멋진 풍경과 저 멀리 보이는 내봉탑 잊지 못할 항주 여행기!!! 6.대륙의 무덤은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다. 송중산 무덤 7.항상 여행은 설레고 즐겁다. 8.열심히 일하고 배운 당신, 떠나라! 9.상해로 여행을 떠나요~ > ♬ (상주역, 기차 타기 전 단체 켓 인턴생활 2주 만에 떠나는 여행!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10.명나라의 고급관리가 부모님께 선물한 예원(機関)을 둘러보며 부모님을 떠올려보고, 따픈따끈한 남상 만두와 함께 상해의 뜨거운 열기도 느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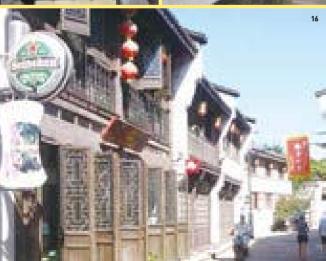




11.상해에서의 2박 3일간 '딤섬' 만 고래고래 외처됐습니다.마침내 마지막 밤 늦은 저녁식사는 딤섬을… 하지만.. 저 양으로 누구 코에도 붙이질 못했네요 ㅠ 다음엔 더 저렴한 곳에서 ^^ 12."We are in Shanghai. 37도 무더운날씨, 상해 루선공원에서도 사진을 위해 Smile-!! 13.상해에서 2원주고 배탓을때인데요 !! 와이탄 전경을 한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당^^!! 우리 2기들 너무 멋찜!!♡ 14.용사 4명이서 난징에 다녀왔습니다!! 순원의 모를 보기위해 중산룡에 오르고 총통부까지 다녀왔습니다!! 힘겨웠지만 절대 잊을 수 없을듯^\*^ 15.중국의 아침식사 겸 간식인 煎饼 16.전통 중국용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향주 신천지의 건물들. 현대와 고전의 적절한 조화가 정말 잘 어울렸고 정말로 중국을 느낄수 있었던 거리였다. 17.상해속에서 찾은 유럽 중국 아침의 여유를 느낄수 있었던..!! 18.우리들의 첫 여행!! 힘들지만 즐겁게 상해와 함께 찰칵!









# 김하늘 이름뿐인조장

안경은 필수, 가려야 빛이 나는 여자. 럼블피쉬 보컬 최진이 닮음. 매일 아침 맛있는 커피와 간식을 챙겨 조 원들에게 나눠주는 착한 심성의 조장



# 겉도

겉모습은 천상 여자, 조용한 그녀. 하지만 밥먹을 땐 본색이 드러나는 여자.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사 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는 경상도 아가씨

최연지 수줍은 많은 경상도 그녀



인턴소개 🌌



# 여승빈 포도밭그사나이

리스사의 근육남. 특유의 말투와 재치로 못 여 성들을 설레게 했을 '듯'한 그, 잘 놀 것 같은 오빠 스타일





### 최유광 식신,여행가이드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 리스사에서 '혼자' 환치우 건물에 올라가 푸동 전경을 보고 조원들에게 지랑을 함. 얼굴은 과장님 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리스사의 여행 가이드





처음 나의 발령지는 상해가 아니라 보일러 생산라인이 있는 옌 타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였다. 옌타이로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친분이 있는 상해 지주회사 사람들과 국내 교육기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중, 신기하게도 교육 마지막 날 나의 발령지가 옌타이에서 상해 금융 리스로 바뀌었단 소식을 접했다. 혼자 갑자기 금융 리스로 바뀌어 조금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 모두 잘해주셔서 현재는 아주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 지주 회사와도 숙소가 같아서 금융 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주 사람들과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회사 생활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회사가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일 할 맛도 나고, 회사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가

장 좋았던 것은, 현재 중국 내 리스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현 대 금융리스사의 실제 업무, 조직 등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다. 비록 짧은 인턴기간이라 직접 많은 업무를 해보지는 못 하지 만, 이런 많지 않은 업무라도 경험 해보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 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인턴은 앞으 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 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 얻은 인 연들은 나에게는 소중하다. 비록 이 인턴기간이 끝나면 해외에 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자주 만 나지도 못하겠지만 가능한 한 인연의 끈을 이어 가고 싶다. 이 제 인턴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또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후 회 없도록 여기에서의 생활을 즐기다 돌아 가고 싶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 하고, 더 열심히 놀고, 더 열심히 돌아 다니는 등 남 은 기간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 여기고 생활 할 것이 다. 상해금융리스, 상해지주회사 그리고 한번 밖에 뵙지 못한 상 해 현대오일뱅크 분들을 포함해 상해에 계신 모든 인턴 2기 분 들 모두 남은 상해에서의 삶이 더 즐겁고 유쾌하길 바라는 마음 이다

점점 더워지던 5월 초 어느 저녁, 얼굴에 마스크 팩을 붙이고 있 던 나는 메일을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렇게 됐다 "꺅!"하고 소리 를 지르고 싶었지만 주름이 생길까 속으로만 소리를 질렀다. 아 산나눔재단 해외 인턴으로 선발되었다는 메일이 온 것이었다. 6월 말 울산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나니 정말 내가 현대중공업 인턴이 되었구나 하고 실감이 났고, 과연 인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무실에서 민폐를 끼치 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달 동안이지만 그 동안 최대 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 중공업 견학을 갔을 때 정주영 회장님이 붓글씨로 쓰신 '盡 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이 붓글씨 는 내 휴대폰 사진첩도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앞 으로 자신을 믿으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서 적극 적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 해 치열하고 뜨겁게 노력한다면, 그 경험만으로도 인생을 열심 히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 결과에 상관없이 뿌듯할 것이다. 울산 현대 축구 팀 마라냥 선수가 경기 내내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 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과장님과 부장님들께서 일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시며 치 열하게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



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주어진 업 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금융리스에 대해 배우고 가야겠다.

눈깜짝할 새 인턴 생활이 반 정도 지나갔다. 반이나 남았는지, 반 밖에 안 남았는지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번 인턴 경 험을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법인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남은 기간 동안 '탐욕스럽게' 배우다 가야겠다. '탐욕 스럽게' 배우기 위해 마라냥 선수처럼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누 벼야겠다.

# 상하이(上海)는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



낮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 와이탄(外灘), 예원(豫园), 항저우(杭州) 여행

우리에게 퇴근 후 나머지 시간은 행복한 관광시간이었다. 상해를 즐기려면 '올빼미 족'이 되어야 한다. 낮에는 햇빛이 아주 강렬하여 답고 사람 또한 너무 많기 때문. 하지만 상해의 밤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답고 분위기가 있다. 특히 회사에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볼 수 있는 푸동의 강변 가에서는 상해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푸동 강변은 한산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야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으로는 차마 다 담아 낼 수 없는 그 멋진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하루의 피곤함과 고단함은 사라지고 벅차 오르는 감동과 감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게 된다. 황푸강의 잔잔한 물살과 그 위를 얌전히 지나가는 유람선을 보고 있으면 마냥 기분이 좋다. 신천지 또한 나에게는 또 다른 중국의 느낌을 가지게 해주었다. 특히 신천지 근처에 있는 벨라지오에서 파는 땅콩빙수는 내가 중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 맛난 땅콩빙수를 한국에 어떻게 수입해서 팔 수 있으면 대박을 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훗날 중국 상해에 내가 다시 왔을 때는 상해가 얼마나 더 높고 많은 고층빌딩으로 나를 반겨 줄지 문득 궁금해진다.



금요일 저녁에 지주회사 사람들이랑 와이탄을 함께 갔는데, 유명한 관광지이고 금요일인 만큼 사람이 엄청 많았다. 황푸강을 따라 아 름다운 옛 건물들이 줄지어 이어져 있고, 황푸강 건너편에는 푸동의 건물을 감상할 수 있다. 밤이 되면 황푸강에 따라 있는 옛 건물에 조 명을 켜놓는데,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강 건너 있는 푸동의 모 습을 눈과 사진 속에 닦으며 추억 속에 남겼다.

# 생대의 아름다운 정원 예원

중국 강남지방은 정원으로 매우 유명하다. 예원은 상해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예원 주변에 있는 여러 옛 상점들로 유명한 곳 이다. 예원에는 건물과 조각, 연못, 나무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된 곳이다. 중국 사람들이 정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항저우

상해 근처 도시 중에 항저우에 다녀오기로 했다. 항저우의 유명한 볼거리인 서호에 갔을 때 더위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였지만, 아름다운 호수와 주변의 경관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둘러보았는데, 주변 경관과 넓은 호수가 정말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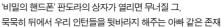


# **Photo Essay**

1. 첫 주말을 맞이하여 예원 탐방 중 너무 더워 휴식 취하는 중 찰칵! 역시 얼굴은 가려야 돼. 2. 장난감 가게 구경 중 귀여운 모자 발견!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상해에서도 우리의 귀여움을 모자를 통해 한껏 발산중! 3. 신천자를 구경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대한민국 역사의 혼적, 너무나 초라해서 멋도 모르고 지나칠 뻔 했다는… 4. 안개에 가린 푸동의 고층 빌딩이 장관을 자아냄. 회사 앞에 바로 빌딩 숲이 있어서 매일 퇴근 길이 행복했어요. 5. 상해 금융리스 인턴 4명인 우리들, 당당하게 지랑스럽게 현대인의 자부심 만당! 즐거운 인턴생활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6. 예원 들어가기 전 의 입구 길목, 사람도 많고 덥지만 관광에 한껏 들뜬 두여자. 7. 항주에서 주말동안의 자유를 만끽하는 중. 8. 연꽃 숲을 이루고 있는 항주, 거대한 호수 앞에 할말을 잃음. 9. 소주의 아름 다운 다리, 밤이 되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막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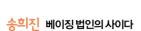
# 박준태 아빠같은 맏형





### 김보연 포커페이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최고의 포커페 이스.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새침 한 서울 여자



맑고 청명한 콧소리로 16명의 베이징 법인 인턴을 이끄는 사이다 같은 여자, 늘 조원들 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 유창한 중국어로 우 리 조원들의 베이징생활을 이끌어 나감



# 김수봉 봉이언니

콧소리가 멋진 봉이 언니, '스타봉스' 회사 설립자. 사거리를 사랑하는 남자, 베이징법인에서 가장 작 업복이 잘 어울리는 만큼 일도 완벽하게 처리함



# Beijing(北京)

인턴소개 🌌



# 이호영 허당

허당 이호영 선생. 봉이 언니와 사거리 동반자,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 의 업무까지 배우는 실력자



#### 김유택 암세포, 다크템플러

베이징법인의 암세포, 저승사자, 강 시, 다크템플러. 성실히 현장에서 직원 분들과 함께 융화되려 노력하 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해냄



'박찬호'와 아무 관련없는 찬호, 외모면 외모, 일이면 일! 꼼꼼하고 책임감 넘치는 대세남



# 황승민 궁디를 확자삐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서울메이트, 베스트 오 브 인턴, 진정한 인턴의 모습을 보여줌



#### 아병서 애정남

팍팍 좀 먹어라! 인간미가 넘치는 인턴. 베이징법인의 모든 사원들과 융화되려 노력하고 우리 인턴 개개인 마다 관심 과 애정을 쏟음





### 김수영 눈웃음담당

크리스마스를 세 글자로 줄여버리는 대담한 언어의 마술사. 베이징법인의 눈웃음 담당. 관리부에서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대구 여자



# 이강현 옴므파탈

베이징법인의 옴므파탈, 끈 킬러, 인턴 남자 막내, 늘 언제나 '행뉘임~'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눈웃음이 매력적인 상남자



#### 이소원 소원을 말해봐

대세는 이소원, 소원을 말해봐. 중 국어면 중국어, 영어면 영어. 아침 에 식사 못한 친구들을 위해 손수 샌드위치를 만드는 천사



### 박아름이 부산여자

내 귀에 봉지, 현란한 발차기로 조원의 안전담당. 놀 때는 화끈하지만 일 처리 는 세심한 부산 여자



'오빠야~', '게이워빠삐야요', '뿌용뿌용' 개발부 홍일점. 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쓰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함



소주 세병은 거뜬! 모델 같은 몸매의 소유자. 무더위 속에서도 자재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 및 체크하는 세심녀





### 이지혜 자기관리철저

'언니~ 저 번개 한방 맞았어요~' 통근 시간을 함부로 허비 하지 않고, 자기 계발에 힘쓰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여자





해외인턴 2기의 합격통보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파견지역을 기다리던 중, 기존의 지원국가였던 중동이 아닌 중국으로 파견 지역이 바뀐 점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중동의 엔지니어들 에게 플랜트지식을 얻고자 했던 저에게 중국은 가깝지만 너무나 생소한 국가였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태로 도착한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그곳에서의 3박4일의 교육을 통해 배운 '현대정신'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자!'라는 도전정신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베이징 법인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몇 일간은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많이 힘들었지만, 부장님, 법인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와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에 노력했습니다. 매일 먼저 출근하여 사무실 청소를 하고, 매뉴얼을 보며 굴삭기와 지게차의 전장품과 제어장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현장실습 때생산라인에서 부품들이 모여 거대한 굴삭기가 되고 지게차가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몸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속한 고객지원부 기술과에서 굴삭기 및 지게차의 A/S업무를 지켜 보면서 대학에서 배운 전기공학의 지식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실무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한 중국여행은 그 동안 국내에만 간혀있던 저의 좁은 시아를 한층 넓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인턴기간 중 법인장님, 부장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운 현대중공업의 도전정신과 신뢰의 중요성은 앞으로 제 인생의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목적을 위한 여정이 아닌 여정그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견지역이 바뀌어 오게 된 중국과의 인연을 통해 배운 건설장비의 전장과 제어의 지식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등 모든 시간이 소중한 참된 지식을 배우는시간이자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해외인턴 2기의 기회를주신 아산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취업 후 해외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도전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7월 9일 설레는 마음을 간직한 채 오전에 부푼 꿈을 안고 베이 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인턴이고 무엇보다 외국에서의 생활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도착하였을때에 느낀 첫 인상은 중국의 거대함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입국심사를 밟고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바로 호텔로 갔습니다. 이 숙소에서 한 달을 지낼 생각을 하니 무척 좋았고 아산나눔재단의 배려에 감탄하였습니다.

#### 현지 직원들과 취해지기

우선 첫날은 오후에 도착하여 짐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에 첫 출 근을 하였습니다. 호텔 앞에 기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 리를 태워다 주셨습니다.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서배치를 받고 상무님과 부총님의 환영인사를 듣고 바로 배치 받은 부서 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치 받은 부서의 부장님이 출장을 가신 터라 중국 현지 직원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 다. 중국인 직원 분들을 처음 만나 뵙고 강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방사람 특유의 까칠함이 느껴졌지만 막상 얘기도 몇 번 나눠보고 하니까 친절한 분들이셨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셔서 한 국어로 이름과 인사를 알려 주면서 일주일 만에 같은 부서 사람 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부장님이 출장에 복귀 하셔서 인사를 나누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저녁에 진행된 첫 회식에서 회사의 사정과 앞으로의 전망 에 관하여 이것 저것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식 문화에 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 여행도 공부하듯 열심히!

이렇게 일주일간의 생활을 하고 주말마다 같은 인턴생과 베이

징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왕푸징에서의 꼬치, 세계에서 제일 넓은 천안문 광장, 영화 〈마지막 황제〉촬영장소로 유명한 자금성, 세계적인 명성의 만리 장성, 황실의 정원 이화원, 중국 옛날의 주거생활을 엿볼 수 있는 후통 등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비록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곤하기도 했지만 인턴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시간 외의 여행 또한 공부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따라다니세요

4주 동안의 인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국어를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얻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것 저것 문고 먼저 말을 걸고, 다른 부서에서 현장학습을 가면 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따라가보길 권합니다. 자기 부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가 하는 일을 해보면 자신이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중국 직원들과 시간을 지내다 보니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직업윤리 등을 알 수 있어 중국의 전반적인 문화를 짧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떠한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다음 인턴 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면서 인턴생활을 하셨으면합니다.

#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중국

# 베이징(北京)의 명소 100배 즐기기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국 정치 변화의 중심지인 천안문. '천상의 평화의 문'이라는 뜻에 걸맞게 이른 아침 방문한 천안문은 많은 여행객들로 붐비는 상황 속에서도 규모의 거대함 덕분인지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 이곳이 천안문 사태의 아픔을 담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천안문을 거쳐 다시 이동한 곳은 자금성. 면적은 72제곱 미터로 9,000여 개의 방이 있는 자금성은 남북 중심선을 축으로 동서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전통 건축물 구조의 특징이라고 했다. 이러한 방식의 구조는 황권의 지고 무상(至高無上)함을 상징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여의도 광장의 다섯 배라는 넓은 규모의 웅장한 자금성을 둘러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답답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자금성을 지나 간 곳은 베이징의 전통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후 통. 후통은 골목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 베이징의 가옥들 이 즐비해 있는 모습이 이국적인 느낌과 예스러운 멋을 자아냈다. 후통에는 사합원이라는 중국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ㅁ자 형태로 가운데에는 마당을 두고 본채와 사랑채 등 4개의 건 물이 둘러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베이징 특유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은 사합원은 문화재 보호 단위로 들어갈 만큼 문화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더위에 지친 모두들은 커피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커 피숍이 밀집해 있는 스치하이로 이동했다. 후통과 도보로 15분 가 량 떨어져 있는 스치하이는 드넓은 호수와 나무들이 우거진 아름 다운 자연경관이 인상적이었는데, 호수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 는 사람들, 모터보트와 페달보트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람 들로 인해 하가로운 정취가 느껴졌다.

어느덧 어둑어둑해진 풍경에 우리는 허기가 느껴져 근처 베이징 카오야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다. 처음 베이 징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낯설었지만, 이렇게 곳곳을 돌아보다 보 니 베이징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정말 우리가 베이징에 와 있 다는 실감이 났다. 앞으로 펼쳐질 베이징에서의 3주가 더욱 더 기 대되는 하루였다.

# 중국 문화의 중심지 시안(西安)에 가다





한나라에서 당나라를 거치는 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의 수도였던 서안. 세계 4대 고도로 손꼽히는 서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우리는 무박 2일의 일정으로 기차에 몸을 실었다. 베이징서 역에서 출발해 열 세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서안.

처음 서안 역에 도착하자마자 옛 장안성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현대식 고층 건물이 조화롭게 펼쳐져 있는 전경을 보며 우리는 감탄했다. 그것도 잠시, 여기 저기서 여행사와 택시 기사들의 호 객행위가 몰려들어 우린 빠르게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버스를 타 고 화청지로 출발했다.

화청지는 최고의 미녀 양귀비가 목욕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름에 걸 맞게 모든 건물들은 섬세한 멋이 살아있었으며 양귀비처럼 이름다워지고 싶던 우리는 화청지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양귀비 동상 앞 분수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여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병사와 말의 모 형을 흙으로 빚어 실물 크기로 제작한 병마용에 갔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병마용은 평소 TV나 책을 통해 많이 알려져 익숙했지만 2000구의 복원된 병마용의 웅장함은 실제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다. 병마용에서 나와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진시황릉에 다녀오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기차를 타기 전마지막으로 간 곳은 서안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명나라시대의 서안종루이다. 번화한 도시 속에 있는 서안종루는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보신각을 연상케 했다. 아쉽게도 폐장시간이 5시까지라서 내부에 들어가볼 순 없었지만 밖에서 본 모습만으로도 그 당시 종소리가 우렁차게 들릴 것만 같았다.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탄 밤기차. 서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탄을 하는 사이 금새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때로는 뛰고, 걸어가며 라면을 먹었고, 공공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 등 다들 고생했다. 하지만 고생 한만큼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이다. 천안문, 고궁에 이은 이번 서안 문화 탐방은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Photo Essay**

1. 북경행 비행기 안에서 : 드디어 출발~ 시작이 반이다! 설레는 우리들 ··· 북경법인 파이팅! 2. 왕징 동방호텔에서 바라보는 이름다운 전경, 밤에는 더욱 이름답게 변합니다. 3. 매일 오후 점심식사 전 회의하는 인턴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4. 점프샷에 신난 우리들, 모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5. 북경법인에서 만들어진 굴삭기. 이번 달도 영업 목표 달성! 6. 자 금성에서 단체샷 그런데 ··· 호영아 좀 웃어줘 7. 긴급 상황 발생! 류양의 발가락을 걱정하는 북경법인팀. 힝 8. 설레는 첫출근! 통근버스를 기다리면서··· 9. 북경법인 파이팅! 짧은 기간이지만 열 심히 일하겠습니다.















10. 비온후 맑은 하늘 아래. 천단공원에 왔어요. 11. 우리는 북경법인 패션왕!스타일~ 12.기차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인 서안에 역사탐방을 가기전 북경서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13. 황실 정원에서 한컷 :왕들이 걸닐던 화려한 자금성 정원에서 황제의 기분을 만끽하며… 14. 드디어 만났다 병마용! :이천년전 예비군선배들과 현재 예비군과의 조우. 15. 하프타임 : 전반전을 마치고 작전 회의 중··· 수비위주로··· ㅇ\_ㅇ 16. 호텔 헬스장 : 내실있는 호텔 헬스장, 일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17. 버스를 기다리며 : 버스를 기다리는 일 어렵지 않아 요~ 소두 인증샷! 18. 중국 CCTV 건물 : 인상깊은 멋진 디자인의 CCTV 건물, 지나가며 한컷!



# 이상현 박학다식, 시골총각

충청남도 청양군이 고향인 순박한 시골 총각. 각종 잡다한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음. 가끔 말 도 안 되는 개그를 하기도 하지만, 상주유압법 인 인턴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 마하지 조장, 법인의활력소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낙 천적인 조장, 그녀랑 있다면 시베리아 현 지 인턴도 가능하다! 현재 기업문화와 덜 웃는 법 배우는 중



### 박소라 법인의막내, 독특한유머코드의소유자

유머 코드가 매우 특이하여 그녀를 웃기는 것이 상주유압법인의 가장 큰 목표. 다년간의 중국 생활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감정변화가 매우 격렬하여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귀여운 막내

# Changzhou (常州)

인턴소개 🌌

# 설용표 센스담당,애주가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1人, 상주유압법인의 센스를 담당, 사람들의 기분을 파악에 자신의 센스를 적절한 타이밍에 발휘할 줄 아는 남자



# 김재형 법인의큰언니

상주유압법인의 모든 남자들에게 만년필 열풍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 상주유압법인의 큰언니. 평 소에는 만년필만 쥐고 있을 것 같은 비실비실 모 범생의 모습이지만 작업복만 탑재하면 완벽한 컴 퓨터 엔지니어의 모습으로 변신!



매일 아침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세팅을 하는 부지 런함의 대명사. 그 부지런함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여자들은 부담스럽게 하는 비운의 사나이



마하진 혼란 이후의 깨달음



중국에 도착해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난 한동안 혼란에 빠져있었다. 인턴으로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일년 동안 중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기업문화와 기업 내에서의인간관계, 업무처리 모두, 내가 지금껏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방식과 설렁설렁하는 습관으로는 통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일찍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실수를 좀 해도 가르쳐주시고 이해해주시지만,실제 기업에 입사해서는 모든 행동에 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게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내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나에게 맞는지 막연하게나마 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영업부에 배정받아 업무 설명을 듣고 직접 과장님들을 따라 협력업체에 외근도 나가보고, 멀리 있는 업체에 출장까지 가봤다. 과장님들이 급한 시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직접 지켜보면서 영업부의 업무가 참 재미있게 느껴졌다.

하루는 절강성에 있는 한 업체로 출장을 갔다. 납기일이 촉박한 부품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로는 납기일에 절대 맞춰줄 수 없다고 한 업체였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재고를 찾아서 주고, 부족한 건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주었다. 그 때의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영업부는 회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부장님의 말씀이 참 와 닿는 순간이었다

중국인의 성향을 '만만다'라고 표현한다. 흔히 중국인들이 일 처리를 하는데 있어 느리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백년, 천년 앞을 내다보고 모든 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다. 중국인들은 하루, 일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천천히 단단하게 쌓은 것에는 당할 자가 없다. 이런 중국을 경험해 본 것은 큰 경험이었다. 경험을 토대로 더 준비하고 성장하고 싶다.

이상현 '회사'라는 조직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 느꼈던 막연한 불안함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아마 그때 느꼈던 군대에 대한 불안감은 바로 군대라는 조직체를 명확히 인식 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었다. 또한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들이 대부분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고 과장 또한 무척이나 심했다. 지금 대다수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입대날을 찜찜한 마음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끝나고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될 '회사' 라는 조직체에 대하여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 아산재단이 모집하는 해외청년인턴에 대한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다행히도 중국 상주유압법인에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기 때와 다르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었지만, 회사라는 조직체에 대하여 각 부서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으며 각부서들은 회사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인 맥을 잡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실질적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무척 아쉬운 점이었으나 그래도 조직에 대해 이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큰 밑거름이 될 것 같다. 더불어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환경 속에서 지내봄으로써 우리와는 다른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바다 건너엔 정말 넓은 세상이 있으며 이 넓은 세상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넓게 사용하는지,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되는 시간이 되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그간의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나 날보다 내게 더 큰 교훈을 주었다. 또한 나의 미래를 대하는 사고 방식과 내가 삶을 영위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 상하이(上海) 문화 탐방

# 창저우(常州),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 김재형

◆◆◆◆◆◆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울보다 더욱 발전된 시내를 볼수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있던 신천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곳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가구 박물관, 고급 레스토랑 등 외국인들도 많았고, 볼거리도 매우 많았다. 스타벅스에서 목을 좀 축인우리는 바로 다음 목적지인 예원으로 향했다. 예원이 중국에서 손에 꼽히는 공원이라는 소문은 들었었지만, 규모가 엄청났다. 거위, 잉어, 거북이, 자라 등이 있었고,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과학 기술대쪽의 시장이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제품들이 다 가품이었다. 아이폰도 모양이 완전 동일한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이었다.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우리는 현대오일뱅크 상하이 지사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하이 구경이 시작 되었다. 물론 오는 길에도 건물들이 몇몇 있었지만, 푸동 시내의 대형 건물들은 정말 규모가 컸다. 우리는 시골 쥐 마냥 사진을 몇 백 장씩 찍었고, 지나가는 건물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동방 명주(东方明珠), 금무대하(金茂大厦), 금융센터 건물(병따개 건물)이 인상적이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상하이에서 꼭 봐야 할 야경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고, 우리 인턴 사원들은 기차를 타고 창저우로 복귀하였다.

# 박소라

\*\*\*\*\*\*

상주(常州)박물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에 새로 지어 외관과 내부 모두 매우 깨끗하였다. 이중에서 우리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곳은 바로 2층의 상주역사문화관이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저우를 만났다. 창저우는 생각한 것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 창저우는 2500여 년 전부터 문자로 기록이 된도시로, 춘추전국시대 유명한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계자의 고향이다. 또 한국사람들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북송시대의최고의 시인인 소동파가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가기 전에 창저우에 '동파공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창저우에 동파공원이 있는지 의아했던 것이 이것을 보면서이해되었다. 상주박물관을 관람한 후, 우리는 숙소 앞에 있는 완다광장에서 딤섬으로 저녁을 먹었다.

이번 문화체험으로 창저우라는 도시가 고대에는 계자, 소동파 등의 걸출한 위인들이 태어나고 머물렀던 문화도시였고, 현대에는 공업 산업의 발상지로 공업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계기로 고 대문화와 현대의 공업이 어울려져 있는 창저우가 더욱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 **Photo Essay**

1. 호텔 숙소 주변입니다. 상주는 상해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도시로써 근래 몇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호텔 창문으로 바라본 풍경이다. 앞의 정원은 호텔 3층에 위치한 발코니와 같은 장소에 조성한 공간이다. 3. 일층에는 주로 의류매장이 늘어서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4층부턴 노래방과 같은 문화시설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4. 매일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습니다. 뷔페식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매일마다 음식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5. 주말을 맞이하여 상주박물관을 견학하였다. 6. 주말에 다녀온 난따지에. 주로 쇼핑몰이 많이 밀집해 있으며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다. 7. 상해에서 꼽하는 관광명소 예원. 명나라때 만들어졌다는 예원정원은 특히나 아름답다. 8. 예원가든의 입구에 있는 비석에서 사원들과 함께 단체컷. 9. 회창한 날씨에 활짝 판 꽃.



## 강상우 동료들의 자양강장제

양중의 분위기 메이커 뛰어난 친화력으 로 곳곳에 웃음을 몰고 다니지만 회사 에서는 중 · 저압 반에 배정 받아 진지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는 멋진 사나이



# 최종범 양중의 든든한 기둥

양중 법인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맏형, 항상 자신보다 어린 동료들을 챙겨주고 격려해주면서 인턴 사원들의 힘이 되어주는 아빠 같은 남지



#### 정상민 구수하지만 날카로운 매력남

재치 있는 말 솜씨로 가는 곳 마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양중의 '재미' 담당, 겉보기에는 장 난끼 많고 가벼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 이 깊고 진중한 모습을 가진 매력적인 경상 도사나이



# Yangzhong (揚中)

인턴소개 🍱

# 박쥬혁 베일에쌓인스포츠맨

구매부의 청일점.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가 진 양중 법인인턴들의 통역가. 퇴근 후에는 뛰어난 배드민턴 실력으로 동료사원들에게 배드민턴 기술을 전수하는 양중의 이용대



## 김세정 '양중호'를 이끌어 나가는 현명한 선장 양중 법인 인턴의 총 조장. 차가운 첫 인상과는 달리 날이

갈 수록 밝혀지는 엉뚱한 매력으로 모든 사원들의 호감을 받음. 말을 많이 하기보단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 할 수 있는 양중의 완 · 소 · 녀



# 정명식 헬스보이 in 8510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남자. 파견 초기 숙소에서 잘 나오지 않아 주변 의 걱정을 샀지만, 최근 운동 삼매 경에 빠지면서 퇴근 후에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강의 아이콘



# 김윤성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파견 생활 초반, 적은 말 수와 모범생 스타일로 대표되던 그, 날이 갈수록 밝 혀지는 끼와 재치로 양중의 관심이 집 중되는 캐릭터로 급부상, 대표 브레인

## 유혜진 톡톡 쏘는 비타민 C

양중 법인의 막내. 출근 첫 날, 양중의 비타민이 되겠다는 자신의 말대로 동 료인턴사원들과 현지 직원 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음.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갖고 있는 넘치는 끼의 소유자!



# 이소역 미소천사 부산아가씨

귀여운 사투리와 리액션이 매력적인 그 녀. 고압 반 내에서 나이는 제일 어리지 만 뛰어난 중국어 실력을 가진 능력자



## 심준성 노력하는 남자 1호

양중 법인의 몇 안 되는 솔로 '남자 1호'. 일과 공부, 구애, 사진 촬영 등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노력파. 공학도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 그 실력 또한 전공자 못지 않은 수준

## 박가은 울산에서 온 미니마우스

유창한 통역실력을 위해 공학용어공부에 매진 중. 꼼꼼한 성격으로 매사 철저한 계획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특유의 엉뚱함과 발릴함으로 양중 법인 남 성인턴 사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그녀



## 김아름 IU에 버금가는 가창력, 아름U

시원 시원한 성격의 그녀, 3개 국어가 가능한 능력자로 중·저압 반의 귀와 입 담당. 최근에는 숨겨져 있던 CAD실력과 가창력이 공개되면서 'CAD천재 아름U'라고 불림



# 박재한 지식백과 in 양중

뛰어난 준비성과 넓은 지식으로 양중 법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남자. 뛰어 난 정보 수집능력을 바탕으로 양중 법 인에서 인턴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슈퍼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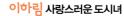
# 정승진 사슴 눈을 가진 위트 가이

양중이 인정하는 동안, 하지만 가끔 정 노인 내구성 스캔들'이 불거지기도, 고 압 반 맏형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사나이



### 홍정민 양중의품격홍도진

양중 법인의 대표미남. 중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183cm의 퍼펙트 바디를 소 유한 엄친아. 경영학 전공자답게 회계를 맡아 양중의 살림을 살뜰하게 꾸려가고 있는 살림꾼



유창한 중국어와 함께 산업공학을 전공한 팔 방미인. 산소탱크라고 불릴 정도로 지치지 않 는 체력과 끊이지 않는 웃음을 가진 양중 법 인의 긍정 아이콘



108



#### 양중은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요?

해장쑤성 진강에 위치한 섬 도시 양중은 난징과 타이저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양중은 화려한 도시 속의 인턴생활을 꿈꾸며 온 우리에게 조금의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중은 1970년대 후반 중국 정부의 횃불 계획에 따라 전기/전력 특화 지구로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약 300개가 넘는 기업이 유치되어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양중 법인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중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온 중국인 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퇴근 후 양중시내를 걷다 보면 낯선 한국인들을 향한 중국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접하게 되지만 양중 법인의 인턴사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한 인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화려한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저녁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곳곳에서 있는 광장 앞에서 춤사위를 볼 수도 있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현대중공업 앙중 법인은 배전반, 중저압, 고압, 품질관리 4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지만 회사내부에 인턴 사무실이 따로 마련되어있어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전문적인 업무를 경험하기 보다는 회사의 총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경쟁사를 조사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공대, 인문대, 상경대 전공을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여 회사생활을 하려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넘게 현대중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시켜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입사하기 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애살스럽게 여쭤본다면 그 누구보다 도움을 많이 주신답니다. 회사 입사하기 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 애살스럽게 행동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조언입니다!













### 양중의 주말, 떠나자!!

우리 아산 나눔 재단 해외인턴 2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주! 꿀 맛 같은 주말의 늦잠을 즐기는 것은 우리에게 사치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주말 여행 계획을 짜는 것 역시 우리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양중의 경우 섬 도시임에 불구하고 내륙과 왕래가 쉬워 난징으로 1시간 반, 상하이로 2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관광명소를 1박2일 혹은 당일로 둘러보기에 충분하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항저우와 쑤저우, 양주, 닝보 3팀으로 나눠 첫 여행을 하였답니다. 숙소 바로 옆에 기

차표 대행점이 있어 세 팀은 표를 쉽게 끊을 수 있었고 양주 팀역시 양중에서 바로 가는 차가 있어 버스터미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어느덧 양중에서의 인턴 생활이 한 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인턴 교육때의 마음가짐으로 마무리 잘 하고 건강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양중법인 파이팅!

1.근무 첫 째날, 법인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양중팀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첫날인지라 떨기만 했던 우리! 표정들이 다들 어색어색; 법인 관계자분들 및 인턴사원 자기소개 그리고 법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순으로 진행되었답니다. 2.중저압반 공장 부품 조립 실습 - 공장을 한처례 다녀오면 다듬 힘이 빠지지만 자신들이 만든 완성품을 보면 엄청 뿌듯하겠죠? 3.고압반 CAD 실습 - 말로만 듣던 CAD. 고입반의 이소연 인턴이 의외의 선전을 해주어서 양중팀에는 CAD열풍이 불었답니다. 저도 배우려고 낑깡해봤지만 이제 사각형 그리기 정도?너무 어려워요! 4.미스 양중들의 바방문 ^3^ 5.7시 출근, 5시반 퇴근으로 몸이 뻐근하다면 발 마사지가 최고조^ 6.8항수 무엇을 먹을자가 가장 고민인 우리의 저녁시간 하지만 이것도 행복한 고민입니다. 7.인턴생활중 가장 더웠던 날. 모두 힘이빠져 더 이 상못 걷겠다고 할 때 짠!하고 나타난 사랑스러운 보트 안에서^ 8.양주 시내 관광 중 교통은행 앞에서 찰칵~^^



### 중국 닝보(宁波) 여행기

### 유혜진

### 중국인의 화끈한 '칭커(请客)'





### 중국인 친구의 집을 가다!

湖力尹의 초대를 받아 현지 문화체험과 중국인과의 더 깊은 교류를 위해 그녀의 집에 방문을 하였다. 집의 구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 가운데 놓인 마작용식탁이었다. 집에 도착 하자마자 과일, 죽, 마화 등의 간식을 끊임 없이 나와 대식가다운 중국인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 영화의 중심지, 천일광장

천일광장은 닝보 시내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상점과 식당이 즐비하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유럽풍의 건물이 많아 거리 전체가 서구적인 느낌이다. 이 곳의 한 전통식당에서 우리는 닝보의 특찬을 먹을 수 있었다. 단 맛이 강한 이곳의 전통 음식은 전형적인 중국 남방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남방지방의 문화와 현지 중국인의 가정집의 생활 방식을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었던 닝보 여행은 따뜻한 중국인의 인심과 무한 성장하는 중국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고 있던 무렵, 최덕효 구매부총님이 구매 부 회식 날짜를 잡았다. 원래 구매부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할 예 정이었으나 준가가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오면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중국인들의 '칭커'(손님에게 한턱 내는 문화)를 경 험하게 된 것이다.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니 둥그런 식탁에 요리 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각자 자리에 앉자마자 준가의 아 버지가 우리들에게 담배를 권하였는데 담배를 안 피워도 받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받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비싼 고급 담배 였다.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계속 올라왔다. 중국에서도 먹기 힘 든 고급요리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식탁이 꽉 차서 더 이상 음식 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이 쌓였다. 원래는 중국의 고량주와 마셔야 했지만 다음날의 업무를 위해서 가볍게 맥주를 마셨다. 우리나라와 달리 각자 앞에 한 병씩 놓고 자유롭게 마신다. 테이 블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옆 사람과 건배하고 거리가 먼 사 람들에게는 테이블에 술잔을 부딪쳐서 건배를 한다. 즐거운 식 사가 끝나고 준가의 아버지가 다시 차로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 다



# 역사와 문화의 도시,

# 양주(揚州) 체험기



### 최종범





### 수서호(瘦西湖)와 더위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수서호였습니다. 서우시호라는 명칭은 항저우의 시호보다 물줄기는 가늘지만 경치가 수려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수서호의 입장료는 90원(한화로 17000원 정도)으로 상당히 비쌌지만 우리를 가이드해준 중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입장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쳤던 진짜 문제는 호수의 습기가 더해진 더위였습니다. 그날이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라 수서호의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안들어올 정도로 더웠습니다. 이 더위에 계속 걷는다면 우리는 위험할 것 이라고 판단되어 배를 빌려서 수서호를 보았습니다. 수서호의 크기는 작지만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서호에는 아치형 돌다리와 백탑이 있습니다. 다리에 올라가면 수서호의 시원한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 동관거리와 마라샹궈(산초볶음요리)

수서호에서 더위에 지친 우리는 동관거리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동문으로 나가는 옛길을 쇼핑거리로 만든 것인데 영화에서만 보던 중국의 옛 건물들 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과 기념품가게가 주를 이루며 전통가옥 호텔 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카페 와는 메뉴가 달랐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카페를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양주 시내의 중심가인 시대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가 마라샹궈를 꼭 먹자고 졸라서 우리는 마라샹궈를 먹었습니다. 마라는 산초열매로 추어탕에 넣어먹 으며 중국에서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대중적인 향신료입니다. 그 맛은 혀 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마라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는 옆사람 이 움찔움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샹궈는 자신이 원하는 식재료 를 마라와 함께 볶아 먹는 음식인데 의외로 마라의 향이 강하지 않아서 맛있 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 대운하

저녁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양주의 대운하를 보러갔습니다. 대운하는 수나라 때 만들어졌으며 황하강과 양쯔강을 연결하는 운하입니다. 항저우부터베이징까지 연결되는 운하이며 도시가 현대화를 통해 팽창하면서 양중의시내를 가로지르는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운하에 형형색색의등이 빛나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밖에 나와 모여서 춤을 추는 중국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중국 사람들이 살이 안짜는 이유는 춤을 좋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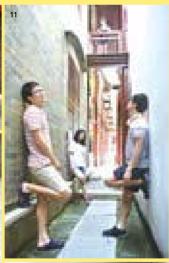






1. 현지인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가는 박재한 인턴사원. 춘절도 아닌데 벌써 현지인이 관광을 온 것 같습니다. 니하오! 2. 뜨거운 별아래서 지친 우리, 수서호 한가운데 등등 떠서 녹음을 즐기니 더위가 싹날아가는 듯! 3. 수서호 모터 보트에서 핀 한국과 중국의 꽃(?)들 입니다. 우리팀을 위해 양주 관광 가이드를 해준 왕란 고마워용~~^^ 4. 양주에 있는 하원의 내부. 한국은 자연환경을 끼고 살고, 중국인은 집안에 자연환경을 만들고 산다는데, 마치 호수 근처의 정자를 하원 안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5. 따거와 부조장~ 동관가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맥주한잔 했더니, 하트가 절로나 이용! 양주팀 파이팅~! 6. 하원에서의 공중부양 집념의 박준혁 인턴사원이 여러 번의 시도끝에 어렵게 성공한 사진입니다. 여행자에서 이런 사진 한장쯤은 필수 아닐까요? 7. 수서호 입구 근처에서 박준혁 인턴이 빠진 단체샷! 호수에 비친 햇빛처럼 밝은 인턴사원이 되고 기종아요! 아직 더라에 지치기 전인 듯! 8. 양중팀 최고의 귀여움, 깜짝함을 보유한 박가은 인턴사원의 동사진입니당. 뜨거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법인팀에 바이타민이 된 소중한 사원입니다용. 9. 똥관거리에서 최종법, 감아를 그리고 김윤성 인턴사원이 중구난방 샷. 큰형님 최종법 사원은 현지화에 일찍 성공하신 듯한 모습이 엉망 귀엽죠?

















11. 미로처럼 생긴 하원의 사잇길에서 화보컨셉으로 찍은 베스트샷! 다들 생각에 잠긴 모습인데 설정인 것이 타가 많이 나네요.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세정 인턴 사원도 보입니다. 12. 사무실 셀카 2탄! 이소연 인턴사원은 두번째 등장입니다.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서로 친밀한 모습입니다. 13. 인턴 사무실의 아침 회의 모습입니다. 김병욱 부총경리님이 방문해서 인턴 사원들을 격려하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수 세번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14. 양중의 활력소 정승진 인턴사원과 강상우 인턴사원의 셀카! 셀카시전을 찍는 실력이 아주 수준급입니다. 강상우 인턴사원의 귀여움이 듬뿍 묻어나네요. 15. 양중법인 인턴생들의 첫 여행, 남경. 비가 내렸지만 왠지 모르게 상쾌한 발걸음. 16. 오픈 버스를 타고 명효릉으로 가는 길. 다들 똑같은 생각. 관광하는거보다 이거 타면에 대있어! 17. 화창한 하늘아래 멋진 세사람! 둘째날에 찾아간 천일광장은 평소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강탄이 절로 나왔습니다.18. 우리들의 비타민 혜진 천일각의 동상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 도아름 브레인, 애교담당(옥슈슈), 빵순이 1

외모면 외모, 똑똑함이면 똑똑함. 게다가 'Never Stop'의 끈기까지! 털털한 성격에 애교까지 갖춘 지 주회사의 대표 매력녀!



### 오수현

#### 천사, 파워포인트 고수, 미모

자는 모습까지 예쁜데 아무진 면모까지 가진 팔방미인. 영어 · 중국어 원어민 수준. 천사같이 착함. 파워포인트 고수. 너무 완벽해서 사람인지 화성인인지 의 심스러운 여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사 랑 듬뿍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Shanghai (上海)

인턴소개

김린 능력자, 빵순이 2

없는게 없는 엄친딸

영어와 중국어 모두 원어민 수준의 구사력

을 갖춘 능력자, 고수의 묵직함 뒤에, 티벳여

우의 귀여움까지, 잘생긴 남친까지 있으니,

### 박서연 몸짱모델,폭

### 몸짱모델, 폭풍 가창력, 원더걸스 뺨치는 춤

끝내주는 몸매와 끼를 소유하고 있는 반전녀 박서연!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활 력소,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데 실은 절대 찌지 않는 축복받은 몸! 머리부터 발 끝까지 사랑스런 언니



### 김이지

### Lizzy, but not easy!, 이마미인, 맏언니

13억 가지 매력을 발산하는 중국 지주팀의 맏언 니, 때로는 똑 부러지는 '이지(Easy)하지 않은' 모 습도 가진 그녀, 누구보다 오피스룩이 잘 어울리 는 이 시대의 여성 리더



### 대리급 포스, 홍콩 부호의 더 카리스마

쌓이는 업무량에 대리급 포스였던 그의 얼굴은 점점 과장급이 되어가고 있음. 여자친구 앞에서는 온갖 애교와 귀여운 착하는 어린아이. 양 옆에 미인 두 명만 있으면 홍콩부호보다 더 부호처럼 보일 거 같은 착하고 등직한 형



### 나 미: 만 는 있

### 정성빈 모태동안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동안의 소유재! 항상 엄마 미소로 중국지주 식솔들을 챙겨주는 '외유내강'형 맏형! 영어와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시하고, 현재 는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은 욕심쟁이 훗훗훗!

### 김예리 언제나귀여운사투리로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대구 여자

로봇 영업부의 발로 뛰는 로봇의 꽃, 출근할 땐 언제나 오늘은 쉬겠다 하지만, 퇴근후 눈 반짝거리며 놀러 가는 여자.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예리예리알라!



### 안용태 미륵, 환자, 스티브 잡스

술도 잘 못 마시고, 자주 아파서 매번 한식 먹으러 가자고 하지만 옆에서 괴롭혀도 화내지 않는 자상한 남자. 하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확고한 자신을 가진 그런 남자



### 강동한

### 강한 남자, 열정 가이, 활동남

1분 1초도 방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남자. 언제나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떠 나며 생활에 열정이 가득하다. 그가 폭 발할 때면 드센 중국 아저씨들도 두려 움에 떨곤 하는 강한 남자



### 이후과 후과니즘

찢어진 눈매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기진 그. 지주회사의 후관니즘. 타고난 용모와 업무능력으로 현지 여사원들 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이폰도 혼자 서 척척 고쳐내는 그는 중국 지주사의 가제트



중국과의 끊을 수 없는 질긴 인연. 중문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며, 중국인들마저 쉽게 범접하지 못한다는 마라(麻辣) 마저 폭풍흡입 할 만큼 그 내공이 대단한 그, 잘생긴 외모와 나지막한 목소리는 덤.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의 소유자





### 오영훈 하루 하루 배우는 즐거움

2년 전 베이징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상하이에서 4박5일 동안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그 때 보고 느낀 상하이는 중국에 대한 나의 편견을 산산이 부쉈었다. 서울의 야경보다 훨씬 아름다운 와이탄,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짝퉁' 이미지만 가득하던 중국이 나에게 새롭게 보였다. 그런 상해에서 4주간 인턴생활을 한다니 마음이 설레고, 몹시 기대가 되었다. 상하이에서 4주간 인턴생활을 한다니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다. 하지만 첫 출근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상해의 무더운 날씨와 어색한 정장 때문에 땀이 비 오듯 내리고, 첫 출근이라는 긴장감에 중국어가 잘 들리지도 않아 실수투성이였다. 내가 일하는 곳은 상하이에서도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홍차오 기창(虹桥机场)이었다. 숙소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였다.

반나절간의 교육을 받고, 인사부에 배치 받았다. 내가 처음 맡 은 임무는 사원수첩의 번역이었다. 50쪽이 조금 안 되는 사원수 첩이지만 사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요약되어 들어가 있는 책이어서, 2주간의 시간이 걸려 번역을 모두 끝마쳤을 때의 성 취감은 말로 이룰 수 없었다. 또 다른 나의 주요직무는 면접시간 을 안배하고, 지원자에게 회사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 다.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인재를 뽑는 일에 내 가 관여한다는 것이 몹시 신기하고 뿌듯했다. 면접을 하러 다니 는 입장에서, 면접을 배정하고, 참관하는 입장이 되니 어떻게 하 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정 리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직무는 전화 면접이었다. 전화 면접 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지원자의 상태(재직, 이직, 재학)를 물어보고, 현대중공업에 입 사하고 싶은 이유, 희망 연봉 등을 물어보고 면접시간을 안배하 는 일이었다. 매우 간단한 일이었지만,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나 에게는 몹시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서툰 중국어로 더듬거리 며 세 명의 면접시간을 나 스스로 배정했을 때는, 회사채용의 첫 시작을 내가 진행한 것 같아 매우 뿌듯했다.

회사 생활의 또 다른 재미는 회식이었다. 딱딱할 줄로만 알았던 회식은 부장님들의 배려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현지 인들과 회식을 해서, 훠궈와 백주를 먹으러 갔는데 그 맛 역시 일 품이었다. 회식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니,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부장 님들로부터 회사생활에 대해 살아있는 경험담을 들으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뿌듯하다. 남은 2주간의 시간도 나에게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경험해보고, 느끼며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노력해야겠다.



ZIOIXI
Seeing
is
believing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지주회사 PR부 인턴 김이지입니다. 제 전 공이 중국어와 언론홍보이기 때문에 중국지주회사의 홍보부서는 제가 딱 원하던 이상적인 부서였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매일 본사 및 중국 자회사의 기사 수집 및 한중 번역, 전기 전자사업부 카탈로그 제작, 경쟁업체 마케팅전략 분석 등 중국 현대중공업의 홍보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번역이나, 업체 동향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부족한 중국어 실력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현지기업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고, 현지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생 각하면 한없이 신기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업무를 하나하나 끝내고 제가 수집하고 번역한 기사들이 현대홈페이지와 중국웹 사이트에 올라가고, 회사 내부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중국현지회사에서 인턴생활을 해보니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점수를 위한 영어, 중국어 공부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쌓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만의 '하면 된다'라는 정신이 이곳 상하이에서도 어김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모습을보고 그 강인한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명 극작가 조지버나드쇼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젊음'이라는 찬란한 보석을 마음껏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온몸으로직접 부딪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임무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나날입니다.





# 아름다운 밤의 도시

## 상하이(上海)





상하이에 도착한지 5일째 금요일. 회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인턴 동기들을 불러모아 와이탄 구경을 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경동로에 내려 역을 나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한 거리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감탄도 잠시, 굶주린 배를 안고 왔던 터라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남경동로 역 근처 골목으로 가서 여러가지 중국음식을 먹고, 우리를 기다리는 와이탄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비가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시원하지 않은 날씨에 기분이 나쁠 법도 했지만, 번쩍이는 간판과 조명이 비춘 멋진 건물들 덕분에 마음만은 시원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반짝이는 장난감을 파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가족끼리손잡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약 15분 정도 걸어가니, 강 건너편에는 동방명주가 보이고, 그 옆으로는 병따개 빌딩도 보였습니다. 상하이는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와이탄쪽에는 유럽식 건물이 들어서있고, 강 건너인 푸동쪽에는 60층이 넘는 건물들이 힘차게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문이 열렸을때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와이탄에 건물을 지었고, 중국은행 및 주요 기업들이 그 건물들을 구입하여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해서 고층건물과도 잘 어울리는 유럽풍의 건물들이 와이탄을 밝게하였습니다. 건너편 푸동에는 유럽식 건물들이 아닌 높은 마천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며 중국이 정말 발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푸강에는 유람선이 여러대운 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네온사인으로 크게 기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였습니다.

비 때문에 야경을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지 상 6층에서 야경을 볼 수 있는 조그만 바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우 리가 이 곳에서 얻어갈 것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 상하이. 이곳은 화려함과 낭만이 함 께하는 도시입니다.

# 보산강철을 다녀오다

도아름, 박서연, 오수현

### 7월 19일, 미녀 삼총사 출동

최강 구매팀 장호진 부장님과 아름, 서연, 수현, 金文, 徐蕾은 현대중공업 에서 사용하는 강판의 중국최대 구매처인 보산강철을 다녀왔습니다.

전시관 관람 후, 항구와 창고를 방문하여 실제 구매품목인 강판을 보았습니다. 구매부 입장에서 공급처의 실태를 알고, 구매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보산강철은?

여러분께 보산강철을 소개하게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보산강철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맞추어 30년간 발전해왔습니다. 1978년 12월 23일 상하이의 Baoshan District, 양쯔강을 따라 공장건설이 시작되었고, 최고의 철강업체로 거듭났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Fortune Global 500에서 19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16,702명의 직원과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special steel을 주로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한국, 일본, 유럽에의 수출하고 이는 자동차, 기계, 에너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보산강철 회장 Xu Lejiang

###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보산강철

국영소유인 보산강철이기에 아직 공산주의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혹서기여서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았고, 항구와 창고에도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 산강철측의 배려로 관람이 가능했답니다.

### 그래도 아직은?

보산강철 공장은 신일본제철의 공장설계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건설됐다고 하네요. 강(steel)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로 포스코 (POSCO)보다 1위 앞섰지만, 아직은 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창고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 공업으로 보내는 강판들이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딱 봐도 불량 품인 강판들이 많더라고요. 품질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재미로 알아보는 울산 현대중공업과 상해 보산강철 비교

유시점	차이점
현대/보산 "월드" 같은 옷을 입고,같은 지역에 거주, 광활한 대지에 거대한 기업그 기업 으로 인한지역의 문화형성	품질 최고의 품질과 고부가가치창출의 현대/s.품질관리의 완벽성이 떨어지는 보산
<mark>안전교육</mark> 위험한 작업으로써 안전교육 체계화	기업문화 유무 고 정주영 회장님 이하로 전승되는 기업문화, 이념, 가치의 현대 vs 국영기업으로 주인 없는 회사느낌의 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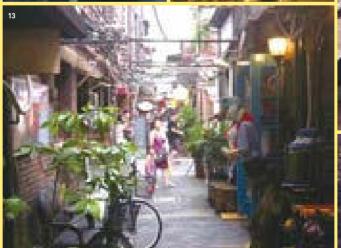


1.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책상 뒤쪽 편으로는 큰 창이 있어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구 조의 공간이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첫 주말을 맞이하게 되어 상해 밤거리를 돌아 다니는 인턴들. 아름다운 아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상해의 명물인 동방명주 의 사진입니다. 첫 주 금요일 밤, 인턴들은 업무를 마치고 모두들 모여 와이탄으로 떠났습니다. 가까이 보이는 동방명주는 소문대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4.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 는 상해 임시정부 사진입니다. 주말을 맞아 인턴들이 여럿 모여 방문했습니다. 5.법무부서 현지 직원분께 중국의 국가체계, 기업구조, 회사법 등에 관한교육을 받았습니다. 6."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7.평일인데도 상하이박물관에는 중국인과 외국인들로 발디딜들이 없었습니다. 8.예원에서 파는 빨대로 먹는 만두! 입이 데지 않게 조심하 세요! 9.사무실이 공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점심은 간단한 패스트푸드로 떼우곤 합니다. 10.사람 정말 많은 황산 황산을 갈 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피하세요!





















11.회의실에서 구매 업무 이해에 관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2.상하이 내의 유일한 정원 주변으로 기념품이나 귀금속을 파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밤에 조명을 켜서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9시면 영업을 끝내기 때문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는 9시 전에 가야합니다. 13.우리나라의 인사동 같이 중국의 예술품,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분위기 좋은 식당과 카페들 도 있어서 기분전환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14.중국 보산강철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강판을 한대중공업 조선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판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가서 강판의 보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15.대한민국 임시정부 방문 후, 신천지에서 맥주 한 잔. 가로수길과 흡시하며 고급 카페, 부티그 숍, 쇼핑몰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16.보산강철의 제품을 수출하는 항구입니다. 양 쪼강을 따라 공장이 설립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수질은 매우 안좋았습니다. 17.다중다량의 꽃들이 있는 상하이 꽃시장입니다. 우리 지주회사의 꽃인 수현이가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있네요. 허허. 18.계속된 회식과 잦은 회의로 자치신 부장님들을 위한 미녀삼총사의 에너지층전! 당 떨어지신 부장님. 힘내세요!







### 아범석 안빤씨, 태안법인의 S라인!

구매부에서 생산제품 구매업무 담당. 인턴사원 내에서 중국인과의 소통을 담당



### 남상민 부산사나이, 트러블 메이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배움에 있어 하나하나 배우는 꼼꼼한 부산사나이, '무대뽀 정신'으로 사고부터 치고 보는 트러블 메이커, 사고도 치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퓨쳐 메이커



### 김만수 델리만쥬, 시들지 않는 열정의 사나이

중국이름은 찐완쥬. 별명은 델리만쥬. 갓 나온 델리만쥬 같이 따뜻한 내면을 가진 남자. 하지만 아쉽게도 솔로의 길을 걷고 있는 가슴 따뜻한 한 남자



# Taian (泰安)

인턴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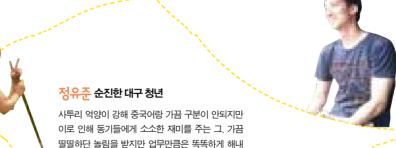


### 양승우 태안법인의조장, '잘생긴오빠' 담당

강렬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현실은 '초식동물'남. 불모지를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촉매역할

이예덕 사람을 사랑하는 4차원 소녀, 태안법인

밤마다 돈 정리를 하는 꼼꼼한 회계!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지만, 툭툭 던지는 말에 뼈가 있어서 '이예독'



### 홎서경 수입미녀, 태안법인의 사진사

'남는 것은 다 사진이다!' 8명 인턴들의 일거 수 일투족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 태안법 인의 대표미녀



### 송호재 얼굴은 중국인

"니하오!" 한마디와 인턴사원 중 가장 중국 스러운 외모로 현지직원에게 스스럼없이 다 가가는 열혈 청년! 진지함 속의 엉뚱함으로 빵빵 터뜨리는 웃음 바이러스

는 멋진 남자!





김만수

\_ 앞으로의 삶에 방향을 잡아준 경험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설레던 순간이 이제는 익숙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인사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인사과를 지원하여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현지 법인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정한 노동법에 의거하여 회사 인사 정책을 정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과장님과 1:1로 중국의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제도를 교육받고 이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실수를 해도 언제나잘했다고, 격려해주신 인사과 동료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턴생활이 저에겐 정말 큰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외에 현장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에도 나가 직접 건설장비 중의 하나인 휠로더를 운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도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하게 될 텐데 현대중공업 태안법인에서 배운 것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신분과 사회인으로서의 일 처리는 정말 다르다는 것도 조금이나마 느껴본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인사과 직원 분들을 포함 하여 모든 태안법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턴 동기들 8명, 부서는 다르지만 일과 후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그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시고 뒤에서 항상 든든히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산나눔재단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턴 기간, 지금처럼 인턴동기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 현대중공업 감사합니다!

양승우

보다 더 큰 <del>꿈을</del>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3박4일간의 교육을 거쳐 중국에 온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현대중공업 인턴생활이 절반 지났습니다. 이젠 출퇴근 길이 제 생활에서 빠진다는 생각에 허전함을 느낄 만큼 회사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원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잘 맞고함께 있으면 즐거운 동기들을 얻게 된 것이 인턴생황의 큰 수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난 사람 없이 유쾌하고 마음 씀씀이가 예쁜 동기들을 알게 되어서 마음까지 풍요로워 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A/S부서에 배치되어 회사에서 판매한 건설장비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S부서는 고객지원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내의 건설장비 시장은 제조회사에서 대리상을 거쳐 고객에게 이어집니다. 고객으로부터 고장, 보수 신고가 접수 되면 A/S부서에서 부품과 인력을 파견하여 장비를 보수 또는 교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A/S보고 및 신청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하여 속도가 더디지만, 한 건씩 번역서를 완성하고 업무를 배워가면서 차츰 이 일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인턴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의 인턴 경험으로 사회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단계에서 현대중공업인턴 기회를 가지게 되어 행복합니다. 특히 저를 아들 대하시듯 잘 챙겨주셨던 자상하신 부장님과 질문할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던 부서 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배운 많은 것을 잊지 않고 2주 후 한층 더 발전된 제 모습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남은 기간 좋은 경험과 많은 추억 쌓고 돌아 가겠습니다.

### 공자의 도시, 중국 산둥성(山東省)

취푸(曲阜)

중국의 5대명산 오악(五岳)중에서도 천하제일명산으로 꼽히는 타이산(泰山)을 정복하다!

저희는 타이산 버스터미널에서 취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일단 택시를 타고 공묘(공자 사당), 공림(공자 무덤), 공부(공자가 살던 곳) 지역으로 이동하여 입장권을 인당 150원을 내고 구매하 였습니다. 역대 황제들이 공자를 기리기 위해 문과 비석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공묘, 공부, 공림 세 곳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묘는 산둥 성의 취푸시 남문 내에 있는 공 자를 제사하기 위해 건립된 사당으로 처음 기원전 478년 공자의 옛 집을 사당으로 하여 황궁의 격식에 맞추어 건립된 중국 3대 고 건축의 하나라고 합니다. 공부는 공자의 후손이 집무를 보고 그 가족들이 거처하던 곳입니다. 공자의 가족들이 대대로 집무를 보 고 거주하던 곳으로서 공부를 집행하는 곳, 공부하는 곳, 손님을 접견하는 곳,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 등으로 구분되어 있 습니다. 다음으로 공림은 공자를 비롯하여 10만 명이 넘는 공자 의 후손들이 묻혀있는 세계 최대의 묘지입니다. 수 많은 후손들 의 묘와 함께 수백 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매우 많습니다. 공림은 걸 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기 때문에 택시나 오토바이를 개조한 운송 수단을 타고 이동하는데 저희는 코끼리 열차를 타고 이동하였습 니다. 보람 찼던 취푸 문화탐방.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추 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일천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정상의 옥황정까지 돌계단이 무려 7,412개에 달하고 올라가는 데만 4시간이 소요되는 험난한 산행이었습니다. 샘솟듯이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적셔가며 완만한 구간과 경사가 심한 구간을 몇 번을 넘은 끝에 산행의 중간지점인 중천문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산 산은 예로부터 영혼이 깃든 산이라 하여 고대 제왕이 봉선의식을 행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숭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르는 곳곳마다 커다란 돌에 글귀들이 무수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선이 내려온다는 신선방을 지나고 어느덧 1300m를 넘어 정상 바로 밑인 남천문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천문에 도착하여 보니 많은 상점들도 보이고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하나의 마을처럼 많은 건축물도 보입니다. 땀을 식히며 이곳 저곳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언제 힘들었나는 듯이 모두들 웃으며즐기고 있었습니다. 타이산 산의 마지막 고지인 옥황봉으로 향하였습니다. 더 올라갈 힘은 없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오를 수 있

었습니다. 타이산 산을 오르는 내내 힘들었 지만 조원들과 정상에 도착한 뒤 함께 느끼 는 상쾌함과 짜릿한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1. 울산에서 3박 4일의 교육을 마치며 장봉근, 김유승 사원과 함께..... 우리 나름 귀엽죠? 2. 태안에서의 첫 나들이에 즐거운 우리들 3. '공부' 앞에서 단체사진 찰칵 4. 남상민씨! 뭐하시는 겁니까? - '공부'에서 5. 도대체 계단이 몇 개나 있는 거야!!!! -태산 중턱에서 6. 태안의 장동건 양승우 조장님. 태산의 정기를 받다. 7. 늬들 잠든거맞니? 왜 웃고있어????? 8. 법인장님께 업무보고 중인 김만수, 송호재 인턴사원 9. 태안법인에서 생산중인 흴로더 HL850K



### 정인선 중국시장의인재

현대 오일뱅크 상해 지사가 법인화 과정에 있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인선. 현대 오일뱅크가 세계 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이번 작업에 제 노력이 미 약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 김지영 미래의 글로벌마케터

조사를 위해 시장 중국 주유소들을 답사하여, 설 문조사를 받느라 정신 없이 지내는 지영. 이번 인 턴생활을 통해 중국에 능통한 글로벌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



# Shanghai (上海)

인턴소개 🌌



有志者事竟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어느새 연봉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고 열정으로 비전을 그려보는 도전정신은 희미해진 지오래다. 자아와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도전적인 미래가 그려질 리만무하다. 그래서 청년의 삶은 슬프다. 내 삶도 그와 다를 바 없었다. 인턴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겉으로는 의기양양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조차 갈피를 못 잡고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불안의 연속이었다.

재미없고 우울했던 지난 날이 잊혀진 것은 첫날 상해의 수 많은 빌딩 숲을 내려다 보며 느낀 벅찬 감동을 느낀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인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한달 동안의 계획 작성이었다. 브레인 스토밍을 하면서 한달 동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바, 경험하고 싶은 대상 등을 구체화 시켜 나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제출 한 문서를 보고 돌아온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우리가 제시한 프로젝트로는 시장조사와 리서치라는 직무를 굳이 현지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사유였다. 이에 좌절할 수 없었던 우리는 다시금 프로젝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상해의 주유소를 서비스, 가격, 상품으로 구분하여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상해에서 실시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조사를 가미한 프로젝트를 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습기로 숨이 턱 막히는 상해를 걸어 다니며 이동한 덕에 모을수 있었던 설문지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기억속에 자리할 것이다.

프로젝트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은 무역기초 스터디였다. "해외영업 하고싶습니다!" 라고 외친 우리에게 부장 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질문은 "무역이나 회계에 대해 아 느냐?"하는 것이었고, 각각 정치외교학과 보건행정을 전공한 두 사람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한달 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역에 대해 다 알 수 는 없지만, 적어도 국제 계약서의 표준 양식과 용어에 대해 아 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신 끝에 부장님께서는 샘 플 계약서와 무역용어 정리과제를 내주셨다. 생소한 용어로 총 망라된 계약서를 보고 있자니 고통스러웠지만, 완성된 번역본을 들여다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미래의 직업이 적어도 어떤 것들을 다루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 지 알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바쁘신 와중에 짧은 인턴 기간 동안 부족한 인턴들을 직접 지도해 주는데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직원들 덕분에 무료할 틈이 없는 알찬 시간을 보낼수 있었다.

한 달의 인턴 기간 동안 압축적이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하는 2기의 특성 상,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적어도 주체적인 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과 무역기초에 대한 스터디로 인턴생활을 풍부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자신한다. 또한 인턴 생활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 이영우 법인장님, 배움으로 인턴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이끌어 주신 정하석부장님, 언제나 가까이에서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주세진 대리님, 상해지사의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인 한애금 대리님, 짧은 시간 함께했던 정세영 대리님, 그리고 언제나 옆에서 함께해준 지영,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우리가 경험한

### 쭝귀!







### 금강산도 식후경 - 만두와 훠궈

중국에서 가장 먼저 먹어야 할 음식은 단연 만두이다. 하지만 만두라고 다 같은 만두가 아니다. 상하이에서는 다양한 만두를 만날수 있다. 길에서 맛보는 전통 중국식 교자(餃子)부터, 우리나라왕만두에 속하는 만토우, 속에 고기 혹은 해산물 등의 재료를 넣어만든 담섬, 또 만둣국 같은 훈둔까지 만두의 종류는 이주 다양하다. 우리가 가장 즐겨 갔던 만두집은 바로 '딘타이펑'이었다. 법인장님께서 우리 인턴들에게 제일 처음 사주셨던 점심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래서 '딘타이펑'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첫 점심식사자리의 설렘과 긴장을 항상 추억하곤 한다.

중국식 샤브샤브인 훠궈는 진하게 끓여낸 육수에 해산물, 육류, 야채 등 다양한 재료를 익혀먹는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과는 달리 개인 육수 냄비가 있어, 본인이 원하는 탕으로 끓여먹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소스 역시 한국의 샤브샤브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다양하여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다. 특히, 이 훠궈는 중국 상주인턴 동기들이 상해에 여행을 와서 함께 식사 하였던 메뉴였다. 훠궈는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려, 식사 시간도 매우 길다. 하지만동기들과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직장 생활을 물으며 담소를 나누다 보니, 그 시간도 매우 짧게 느껴졌었다.

### 상해의 야경 - 와이탄(外灘)과 푸동(浦東)

상해는 현대와 전통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하지만 낮보다는 밤이 더 매혹적인 도시이다. 황푸강을 중간에 끼고, 양 옆으로 와이탄과 푸동이 위치한다. 현대오일뱅크 상해지사는 푸동에 위치하여서, 우리는 운 좋게 퇴근 후 마음만 먹으면 야경을 즐기러 갈 수 있다. 푸동에서 상해의 상징인 동방명주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근처 근사한 바(bar)에도 가서 마치 유럽에 와있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와이탄의 야경을 즐겼다. 화려한야경과 함께 칵테일이나 와인을 한잔씩 마시며, 첫 사회 생활의하루를 정리하였다.

와이탄을 갈 때는 조금 더 특별했다. 왜냐하면 호텔 직원 분께서 호텔에서 와이탄까지 갈 수 있는 수상버스를 알려주셔서, 황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와이탄에서 바라보는 푸동의 야경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빼꼭히 늘어선 최첨단식 건물들은 답답함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게 해줬다. 특히, 맥주 한 모금으로 목도 축이면서, 시원하게 야경을 즐길 수 있었다.

강 중심에서 와이탄과 푸동을 한 눈에 즐길





1. 이사하고 첫날 깨끗한 새 사무실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무실 뒤로 펼쳐지는 빌딩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2. 중국에서 과일은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비싼 열대과일을 매우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상해 과학관의 전경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철 역과 연결되어있는 큰 가품 시장이 즐비합니다. 4. 호텔에서 회사로 오는 길엔 사진에서처럼 고층 빌딩들이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 "중국 티엔즈맹(田子坊)의 벽 한면. 상해의 예술의 거리라 불리는 티엔즈맹에서 엽서 한장의 여유를 생각나게 했던 한 벽면." 6. 동방명주. 상해의 상징인 동방명주는 전망대가 있어 올라갈 수 있는데, 바닥까지 통유리로 되었어서 한없는 아찔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7. 현대와 고전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와이탄. 붉은 조명이 서양식 건축물을 한층 분위기 있게 만들어, 남녀가 데이트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8. 상해 오일뱅크 인턴들의 든든한 멘토이신 주세진 대리님의 멋진 모습. 9. 정하석 과장님과 인턴 사원 정인선이 함께 한 사진, 과장님께서는 사진발의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은근 귀엽게 생기셨답니다.





### 백이혜 일당백나홀로인턴

성신여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 베이징지사에 홀로 인턴으로 온 당찬 여자, 짧은 시간이지지만 해외영업 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와 안목을 키워가려고 노력 중

# Beijing(北京)

인턴소개 🌌

백인혜

나의 베이징 인턴 계획서



베이징의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으로 입국한지도 어느덧 2주가 되었다. 출근 첫 날 과장님께서 2012년 현대종합상사 베이징지사의 영업 및 전략 보고서를 보여주셨다. 반나절 동안 읽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면서 상당히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원한 직무로 해외인턴을 온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그 순간에 느낀 것은 아직도 해외영업과해외마케팅이라는 직무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날 바로 과장님께 인턴 계획서를 써서 제출했다. 과장님께서도 한 달이라는 나의 짧은 인턴 실습기간이 헛되지 않도록 계획을 함께 짜 주셨다.

첫 주,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이해 높이기!

첫 주는 상사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현대종합상사는 어떤 제품의 유통 서비스를 맡고 있는지, 매출이익은 어떻게 창출되는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해왔는지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베이징지사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분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많은 보고서와 논문을 읽으며 세계 철강시장의 동향을 파악했다. 한 주 동안 공부한 결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과장님께 제출하여 피드백을 받았다.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신 과장님께서는 공부한 내용을 질문해주셨고, 궁금한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해주셨다.

### 둘째 주, 거래처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기

둘째 주는 현대 종합상사의 지난 실적을 정리하고, 신규 거래처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이다. 과장님의 조언에 따라서 중국 국영 기업 중 최대 전력 및 건설회사인 SINOHYDRO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산하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중 어느곳에 영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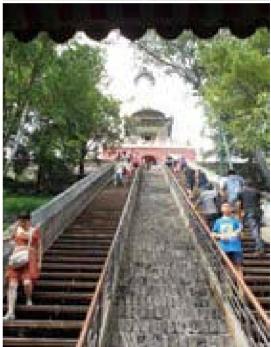
향후 과장님과 짠 계획은 SINOHYDRO 산하 자회사 중에서 한 곳 과의 미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거래처와 어떤 방식으로 접 촉이 이루어지고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어떤 영업 방법 이 쓰이는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종합상사는 다른 현대 그룹의 회사와는 다르게 컴퓨터와 전화기로 사업을 하는 곳이다. 그것은 곧 회사 소유의 생산시설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큼 고급인력을 중요한 자 원으로 하여 이끌어가는 회사임을 의미한다. 업무 시간 동안 직 원 분들의 동선은 크게 않지만, 많은 영업 경험과 거래처와의 신뢰를 쌓아오신 선배들의 바쁜 손놀림과 전화 업무를 직간접 적으로 접하며 충분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욕심은 비우고, 기초부터 차근 차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영업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 모두 갖겠다는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왔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정보망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종합상사에서 기본부터 착실하게 회사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 나홀로 베이징 여행

# 천안문, 고궁박물관, 북해 공원, 후통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밤을 설치다가 나 홀로 베이징에 도착한지도 2주가 지났다. 중학교 시절을 보내던 광저우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었지만, 베이징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설렘이더 컸다. 첫 주말에는 천안문과 고궁박물관, 북해 공원, 후통을 다녀왔다. 지하철을 타고 가 사진으로만 봐 왔던 중국의 상징 천안문을 마주했다. 그날 특히 날씨가 좋아서 경관이 굉장히 멋졌다. 13억 전국민이 오고 싶어하는 곳인 만큼 엄청난 인과가 몰렸다. 황궁에 걸맞은 화려한 장식들과 건물의 섬세한 문양이 정말 멋졌다. 고궁박물관을 통과해 북해공원으로 걸어갔다. 인공산 위에 있는 백 탑까지 들어가는 표를 끊고 들어갔다. 북해 공원 입구에들어서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었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크기의 공원과, 자유롭게 길을 거닐며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는 중국인들이 매우 부러웠다. 곳곳에 숨어있는 사찰에 들어가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가파른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 백 탑 정상 위에 올라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침에 걸어온 고궁과 우뚝 솟은 경산공원의 사찰까지 한 눈에 다 들어왔다. 짜증과 외로움이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

이었다. 북해공원을 1시간 좀 넘게 반 바퀴를 돌아 그토록 보고 싶었던 구룡벽을 보고 후통으로 향했다. 후통은 한국의 인사동 같은 분위기였다. 미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보물 찾기를 하는 느낌이 든 달까. 작고 귀여운, 또는 중국 분위기가 물씬 나는 가게 들을 찾는 기분이 남달랐다. 두 번째 주말에는 798 예술구를 방문했다. 원래는 군수물자 공장이었던 이 곳은 예술인들의 작업장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베이징의 현대 예술의 메카로 떠올랐다고 한다.

파이프와 콘크리트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마저도 하나의 예술 품으로 보일 정도로 건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골목골목 숨어있 는 예술 장식품 가게들이 매력적인 곳이었다. 상당히 큰 규모로 전시회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직도 사전 검열이 이뤄 져서 사회 비판적인 예술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순수 예술 분야에서만큼은 높은 가치가 있는 공간이 었다.



1. 숙소에서 나와서 **克马桥**역 쪽으로 5분 걸어가면 백화점이 있고, 그 지하층에는 서라벌이라는 매우 큰 한국 식당과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포장김치 및 한국 음식도 많이 팔고 있지 만 가격이 조금 비싼편입니다. 2. 숙소에서 40분 정도 걸어가거나 지하철로 2정거장 + 도보 5분이면 싼리툰에 갈 수 있습니다. 북경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치량입니다. 특히 육교가 없을 때 9 차선을 건널 때는 신호를 맞춰 건널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3. 13억 인구의 중국인이 모두 오고 싶어하는 곳인만큼 사람이 매우 많고 북적입니다. 가이드를 붙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므로 디파 짓을 걸고 이어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4. 북해공원의 크기는 어마어마 합니다. 한바퀴를 도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어 미니 카를 입구에서 타도 좋지만 여유롭게 거닐면 서 호수 정경을 보거나 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5. 입구에서 반대쪽에 위치해 1시간을 걸어 찾아간 구룡백입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매우 섬세하고 멋있습니다. 7.정원에서 나온 음식 중 하나인 새우튀김입니다. 7. 798 예술구 가게에 있던 벽 장식품입니다. 중국풍이 물씬 풍기는 가게들이 꽤 많은데 가격이 후통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물건 값을 깎는 것은 필수! 8. 798 예술구는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건물이 많습니다. 파이프를 사진처럼 그냥 그대로 실린 건물도 많아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9. 哈密瓜라는 과일입니 다. 마트나 시장에 가도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광동성에 비해서 열대 과일이 달지는 않지만, 먼 길을 걸어갈 때 과일 꼬치는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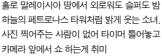


# Kuala Lumpur

인턴소개 💴

# 홀로 말레이시아 땅에서 외로워도 슬퍼도 밤

김현주





### 새로운 환경을 홀로 마주한다는 불안함

홀로 어딘가를 간다는 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누구나, 언제나 한번쯤은 겪어 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첫 경험을 나 홀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섰다. '난 잘 할 수 있 어'라고 속으로 되 뇌이며 홀로 쿠알라룸푸르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쿠알라룸푸르의 하늘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환영의 의미 인지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창 이 뚫릴 정도로 거세게 내렸다. 그러다 비는 언제 내렸냐는 듯 거 짓말 같이 멈췄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센 비가 왔다 갔다 하는 말레이시아 날씨는 아무래도 나의 말레이시아 생활을 예견하는 것이었을까?

#### 막레이시아 대체 넌 뭐니?

첫 출근, 처음 맡은 업무는 말레이시아 조사였다. 물론 간단한 일 이었지만 한달 동안 있게 될 말레이시아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 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60% 와 중국계 30%, 인도계 8%로 이루어져있다. 인종이 다양한 만큼 종교도 다양하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어우러져 말레이시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풍성한 문화를 자랑한다. 말레이시아 국가 조사를 하다 보니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다. 한달 안에 말레 이시아의 모든 색깔을 다 경험할 수 있을까?

#### 두번째 미션, 말레이시아 쌐 시장조사

나의 두 번째 미션은 말레이시아의 쌀 시장조사. 처음 하게 되는 시장조사였지만 부장님과 대리님의 조언으로 약 2주에 걸쳐 보 고서와 발표를 해냈다. 사실 처음에는 모두들 한달 짜리 인턴이 무엇을 하겠냐는 눈치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와 발표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웠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인연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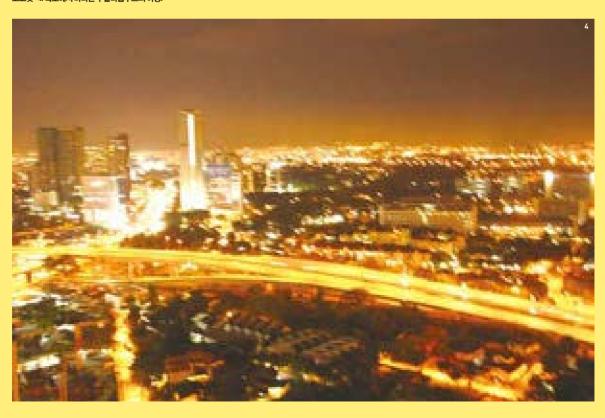
쌀 시장조사를 마치고 나니, 나에게 남은 인턴기간은 고작 1주일 도 채 안된다. 이 시점에서 나의 인턴기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말레이시아에 처음 와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정 말 힘든 시간이었다. 인간관계에서부터 환경, 업무까지 모두 새 롭다 보니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 다. 또한 내가 힘든 것을 공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적 응기간을 더 길게 만들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 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기에 인간관계이며, 업무 등 모 든 것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 결과, 지금은 업무나 생활 모든 측 면에서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소중한 친구들을 얻게 되었 고, 말레이시아의 인턴경험은 잊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한 기 억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에서 만난 코타키나발루 소녀 Mimi, 말 레이시아 생활에 적응하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 히 챙겨준 엄마 같은 비서언니 Sylvia, 쿠알라룸푸르 bar& club guide Ken, 말레이시아 엘리트 Jeya, 말은 안 해도 아빠같이 푸 근한 Azman, 쿠알라룸푸르 행 비행기에서 만난 Zul,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한달 인턴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노력하신 신 민철 부장님, 정성기 대리님 모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김현주

나 홀로



1. 정말 보고싶었던 친구 Mimi! 2년만에 재회 2. 다양한 인종이 모여사는 말레이시아는 음식도 다양해 즐길거리가 많다. 지금은 덤플링을 먹고있는 중!!! 3. 말렝이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드링크 코코넛 4. 숙소에서 바라본 쿠알라롱푸르의 야경.



### 조한민 도전정신, 사교적, 만성피로

경제학과답게 항상 분석적이고 날카로운 피 드백으로 리서치업무를 수행. 매사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알아야만 하는 호기심과 도 전정신의 소유자. 항상 사교적이고 열정적이 지만 퇴근 후엔 만성피로



### 이현철 얼리어답터, 연결고리

얼리어답터인척 근사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매사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 모국어와 함께 영어, 인니어를 완벽 하게 소화하는 능력자. 다만, 차분하고 젠틀한 목소리로 사람을 약 올리기도 한 다고, 현지 직원분들과 파견직원분들 사 이의 완벽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

# **Jakarta**

인턴소개 💳

### 이현철

비즈니스의 최전방에서 보낸 한 달



사무실은 선배사원님들 세분 외에는 모두 현지 채용자들로 구성 되어있다. 사무실의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현지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직원 분들을 보면서 현대종합상사의 저력을 느 낄 수 있었다.

자카르타 지사는 오일, 가스, 조선, 발전/화공/플랜트, 송변전공 사, 정보통신, 철강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 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원강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석탄, 팜 오일, 주석 등의 천연자원 수출이 주를 이룬다. 인턴들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인도네시아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현황 조사였다.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으나, 분석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의 잠재적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종합상사의 사무실은 늘 분주하다. 현대종합상사의 최고 경쟁력은 신뢰와 투명성이다. 냉엄한 시장에 대해 이윤극대화를 최고의 솔루션으로 삼기보다는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 비즈니스파트너 모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독자생존의 기반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상사의 인재상에도 녹아있었으며, 한국 직원들과 현지채용자들 간의 신뢰와 믿음은 능동적인 조직과 효

율성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나는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비즈니스의 최전방을 경험 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과 전공공부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실전 비즈니스 창의성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현대종합상사 선배직원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무더운 열대기후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대한민국국가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진정한 애국자의모습을 보았다. 비록 28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아산나눔재단해외인턴 프로그램은 세계를 보는 시아를 확장시켜 주었다.





현대종합상사의 자카르타 지사로 파견되어 본격적으로 인턴생활이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배움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물실의 한 켠에 마련된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는 직원들, 테러에 대비해 호텔, 대형 쇼핑몰 곳곳마다 설치된 폭탄 검문대, 한국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수준의 위생개념 등 적응할 것 투성이였다. 사실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 조심하고자 길거리 음식은 피하고 대형 쇼핑몰의깨끗한 식당에서만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파견된 일행중 몇몇이 탈이 났다. 나 역시 2~3일간 물같이를 겪었다. 위생뿐만 아니라 치안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불안한 국가였다. 이곳에 처음 도착해서 사측으로부터 가장 먼저 교육받고 당부 받았던 것 역시 안전이었으며 항상 택시를,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이 나있는 Blue bird를 타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그랬다.

인턴 1주차 동안은 본사에서 있었던 임원진 회의 때문에 지사장 님이 사무실에 계시지 않았고, 현지 선거로 휴일이 있었다. 그래 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과제를 통해 몸을 풀며 시간을 보냈다. 이 후 2주차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무실에 자리를 배정받고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 인도네시아 자료를 얻는 노하우의 부재, 조직 안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의 미숙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격려와 조언 속에 용기를 얻었고 끊임없이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조금씩 업무에 자신감이 붙었고 나중에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까지도 믿고 맡겨주셨다

아산재단 해외 인턴은 모든 면에서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자신 감 있게 해주었다. 또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행을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현지 삶과 문화를 더 깊게 관찰할 수 있었다. 아산 재단이 내게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선물해 준 이 소중한 경험을 나 역시도 나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무슬림의 나라,

# 인도네시아에서 라마단 체험하기





조한민, 이현철

처음 문화 탐방이라는 과제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자 카르타는 그 자체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서 무슬림 들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전체 인구 중, 무슬림이 약 90%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 아의 하루는 도시 전역에 위치한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로 시작된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정당 중 대다수가 보수 성 향의 이슬람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국가적인 종교지침을 내 리기도 한다. 우리들의 인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슬람의 가장 큰 행사인 금식기간, '라마단'기간이었다. 약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은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심 지어 물도 마시지 않는다. 이 같은 종교 행사의 시작은 가난한 자 들의 고통을 나누자는 가르침에서 나왔다. 한편, 이 시기는 이슬 람종교단체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마 단 기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은 발을 내리거나 커다 란 수건 등으로 창문을 가리고 영업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종교간의 조화와 존중의 정도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뛰 어나다. 라마단 이후에 찾아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르바란이 되 면 모스크에 수많은 신도들이 찾아오는 데 이 경우 맞은 편의 교 회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우리는 지사장님의 배

려 아래 하루 문화탐방의 날을 정하고 지사장님의 차량을 이용 해 자카르타의 이곳 저곳을 탐방했었다. 단순히 문화재만 탐방 한 것이 아니라, 하루뿐일지라도 라마단의 규율에 맞게 생활하 기로 했다. 무더운 열대기후 속에 금식한다는 것은 매우 고된 일 이었다. 배고픔보다도 갈증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오 후가 다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었고, 오히려 저 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가난한 자 의 고픔을 공유하라'는 코란의 가르침이 진심으로 와 닿았다. 그 러면서 동시에 해가 진 이후에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이들 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짧다면 짧은 시간인 한 달, 우리는 운 좋게도 인도네시아의 특색이 가장 뚜렷해지는 시기에 이곳에 있었고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감춰진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국과는 무척이나 다른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공유와 나눔 을 강조하는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이곳에서 얻은 소중 한 선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것을 약속해본다.



1. 안쫄 아쿠아리움 - 수달이다! 2. 울산 본사에서의 우리 인도네시아 팀! 아리따웠으면 하는 밑의 네 동생들은 모두 자카르타에서 약 2시간 가량 떨어진 쪼끼랑에 있는 인티 공단으로 갔다~장부 장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무나도 잘 지낸단다!! 3. 우리 지사에서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시는 노진수 과장님!!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4. 센트럴 자카르타 독립의 상징인 골든 모나스이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한다. 5. 여기가현대종합상사 자카르타 지사입니다. 6. 따만미니 국립박물관 -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 7. 뒤에 조형 물 같은 것은 모두 나무이다. 원근법과 사진에 잘려서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성인 남자 5명 정도가 팔을 갑고 나무를 빙 둘러야 그 둘레를 잴 수 있을 정도이다. 8. 힌두 교 신화에 나오는 금수를 형상화한 분수이다. 9. 모나는 광장 - 모나스 광장에서 만난 아이는 아주… '시크'했다. 오빠가 그렇게 싫더냐…





# Ho Chi Minh

인턴소개 😿



#### 기무선 현대종합상사의 **매력**녀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를 꿈꾸지만 현지 아저씨들과 베프를 맺고 있는 여자, 로컬식사 를 즐기다 배탈이 났지만 어느 환경에서도 적 응할 줄 아는 환경친화적인 여자

호찌민시의 중심가인 Centec tower 19층에 위치 한 현대종합상 사 사무실은 베트남 현지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좋은 근무환 경을 갖추고 있었다. 출근 첫날부터 사무실에 계신 현지직원 분 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일에 대한 성실함과 동료들간의 우 정을 쌓는 현지직원들의 모습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현지 직원 분들은 나를 무척이나 따뜻하게 반겨주셨다. 먼저 장난을 걸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등 기존 동료들과 다를 것 없 이 나를 대해주셨다. 덕분에 새로운 환경에서 4주 동안 홀로 시 간을 보내야 한다는 나의 걱정은 사라졌고 일에 적응하는데 어 려움이 없었다.

### 첫 번째 미션! 베트남 LED 가로등 설치 현황 조사

베트남에 온지 3일째 되던 날 생긴 나의 첫 번째 일은 베트남의 LED가로등 설치 현황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기 존에 한번도 시장조시를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 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소위 멘붕(멘탈 붕괴)의 상태에 이르 게 되었다. 먼저 베트남 LED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찾아서 정리를 한 이후에 그 곳에서 현재 베트남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존에 베 트남에 설치 되있는 LED를 하노이 시와 호찌민 시로 나누어 정리 해보았다. 이렇게 내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처음이 었기에 어떻게 테두리를 잡아야 할지도 몰라 대략 한 시간을 우왕 좌왕하기는 하였지만, 실수투성이인 첫 번째 시장조사를 끝마치 고 난 이후는 시장 보고서의 윤곽과 시장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 해할 수 있었다.

#### 두 번째 미션 ! 베트남 지하철 현황 조사

베트남에 온지 4일째 되던 날 생긴 나의 두 번째 일, 베트남 지하 철 현황 조사였다. 베트남 지하철의 현재 현황 및 과거를 정리해 서 하노이와 호찌민으로 나누었고, 그에 맞게 신문기사를 정리 를 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보고서였기 때 문에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노력 했다. 베트남 철도청에다가도 연락을 하여 정보를 얻기도 했다.



김문선 Welcome to HoChi Minh city in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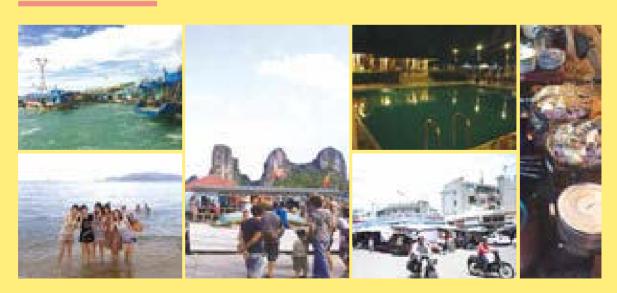
시장조사를 끝마치고,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두 번 째 보고서를 끝 마치고 나니 조사한 정보들이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시장조사 때에는 자료의 내용조차 이해가 되지 않았고, 중 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두 번째 시장조사 때에는 기 사가 이해되고,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분석 계획이 생겼다.

#### 세 번째 미션 ! 회의 참석

벌써 내가 여기 온지 일주일이 되는 날. 이번 주에는 회의가 있어 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호찌민 지사를 찾았고, 7월18일-19일 날은 나도 서울 본사에서 오신 과장님을 따라서 회의에 참여하 게 될 예정이었다. 이 곳에 와서 처음으로 하게 된 회의여서 설렘 을 가지고 기다렸다. 회의 첫 째날 총 4개의 회의를 하게 되었다. 4개의 회의를 하나씩 끝내면 끝낼수록,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 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전문적인 무역용어 및 상품의 번호를 이 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회의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흘러서, 회의를 모두 마 치고 이틀 동안의 일정을 정리해서 회의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상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4주 동안의 인턴생활을 이제 끝마칠 준 비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나간 3주 동안의 인턴생활에 대한 아쉬움 이 많이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면서, 다음 번에는 아쉬움 이 남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1. 하롱베이 안쪽으로 펼쳐지는 동굴의 모습, 생각했던 것보다 동굴 안에 길이 잘 닦아져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 2.하노이에서 유명한 큰 성당, 설날이 되면 이곳으로 모여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실날을 즐긴다고 한다. 3. 원숭이 섬 - 원숭이 섬에 원숭이는 없고, 물고기만 있다. 4. 에메랄드 색깔의 나짱 바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가 바로 나짱 바다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 5. 거북이 밥 주다가… 손가락…찔릴뻔……역시 동물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되는것인가… 6. 다이아몬드 프라자-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 쇼핑몰 뿐이 아니라 한국 회사 및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건물이다. 7. 중앙 우체국 - 베트남에 시내 정 중앙에 위치 되어진 베트남에서 가장 근 우체국 8. DUC BA성당 - 베트남이 프랑스에 점령 되어졌을 때 세워진 성당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 전상류 인도잡초

인도의 잡초만큼이나 강한 생존 본능. 괜찮은 현지 음식 및 한국음식 먹기가 어려운 것을 판단하고 숙소에서 주는 음식만 전략적으로 섭취 중. 기업가 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 중



# Mumbai

인턴소개 🔼



평소 인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뭄바이 지사에 지원, 비록 전공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 중





전상륜·박종호 내가 인도 뭄바이 지사에서 배운 것들

### 여전히 열악한 인도의 풍경

숙소에서 지사까지 오가는 길에서 수많은 인도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아, 이,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 등 한국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3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창 밖 구경을 통해 수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지사에 도착하게 된다.

### 현지 신문 읽기!

사무실에 도착하면 The Economic Times, The Financial Express 등과 같은 인도 현지 신문이 우리를 반긴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놓칠 수 있는 인도경제현황을 조금 더 심 충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유럽 발 위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 동반침체로부터 인도 또한 예외대상이 아님을 현지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자본 투자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인도정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만이 드러나고, 그것이 인도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요인임을 알수 있다.

#### 입찰조건 분석

신문스크랩을 통해 인도 및 세계경제 동향을 파악한 뒤 현대중 공업의 고객ONGC(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가 공사에 필요한 다양한 입찰조건을 명시해 놓은 문서를 읽는다. 하나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보면서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성공하기 위한 하고 있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현지지사장을 맡고 계신 박창희 부장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이외에도 보증과 관련한 금융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입찰을 위해 동원되는 관계사 및 금융관련 회사들간의 조화가 프로젝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열쇠인 것이다. 또한해외 지사에서 해외 수주를 담당하다 보니 어떠한 곳보다도 고객 및 관계사와의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힌디어 공부

이렇게 실무와 관련한 내용을 경험한 뒤 힌디어를 공부하게 된다. 힌디어는 글자 모양만큼이나 발음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곳 현지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발음 구분이 쉽지 않은 단어가 굉장히 많았다. 현지직원이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발음해 주지만 내겐 발음 구분이 쉽지 않다.

#### 회사 밖에서의 배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생활 또한 나에게는 소중한 재산이 된다. 다른 한국기업에서 오신 주재원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인도 현지 비즈니스 및 생활의 어려운 점을 들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인 인도는 우리가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낙후되어있지만 발전가능성이 큰 곳이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많은한국기업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도의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그를 통해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구제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색적인 나라 인도의 문화를 체험하다

#### \*\*\*\*\*\*\*

### 이도의 대중교통, 릭샤

일주일 일과를 마치고 뭄바이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움직였다. 인도의 일상적인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택시 대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럭샤'라 불리는 인도의 세발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기차역으로 향했다. 20루피(한화 500원)를 지불하고 럭샤를 탔다.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교통수단이라 재미있었고 많은 차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스릴도 느낄수 있었다

#### **\*\*\*\*\*\***

### 이건 정말 인도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역에 도착 한 후 나는 문화충격을 받았다. 문을 닫지 않고 열차가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열차에 타지 못하고 문 주위에 사람들이 메달려 있었다. 두려운 마음에 세 대의 열차를 놓치고 네 번째 열차를 타는 것에 성공하였다. 우리가 탄 열차의 칸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인도 할아버지께서 소리를 치셨다. "handicapped! handicapped!" 그 열차의 칸은 장애인을 위한 곳이었다.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자 옆에 있던 젊은 인도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힌디어를 사용하여 정확히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경찰을 부르려 하는 것을 젊은 분들이 막아 준 것 같았다. 심지어 그 분들은 다른 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문에 매달리지 않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두려움도 조금 사라졌다.

### 다양한 인도인을 만날 수 있는 뭄바데비 사원

열차를 내려 가장 먼저 간 곳은 뭄바데비 사원. 뭄바이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작은 힌두교 사원이다. 사원 내에는 소를 먹일 풀을 사서 소에게 먹이고 그 앞에서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이마에 빨간 점을 찍어주고 한 방울의 물을 마시게 한 후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상한 그림들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다큐 멘터리를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았다.

### 음작식의 앤드마크, 인디아 게이트와 타지마할 호텔

사원을 나와 인도의 시끌벅적한 시장을 지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인디아 게이트와 타지마할 호텔에 도착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 듯 웅장한 건물들은 유럽풍과 인도풍이 잘 어우러져 있는 듯 하 였다. 첫 주말을 맞아 뭄바이를 둘러보니 인도는 다른 나라와 비 교했을때 참 이색적인 공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가올 주말에는 또 다른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다.













1.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인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회사의 현지 직원분들이 아주 질해주신다. 2. 전철의 내부도 사람들로 가득찬다. 한국의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불반다. 3. 처음보는 인도 젊은이. 인도사람들은 동양인을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사건을 찍어주기를 원한다. 4. 릭사를 처음 타고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다. 세발 오토바이로 스릴었고 재미있다. 5. 힌두 및 이슬람등 다양한 종교분쟁에 의한 테러에 대비해 사원 주변에는 많은 경찰 및 장갑차가 배치된다. 6. 간디가 살아 있을 때 뭄바이지역에 머물렀던 곳이다. 지금은 간디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7. 인도시장- 저사람은 무언가를 배달 하는 것 처럼 보인다. 더운날씨에 머리에 무거운 것을 지고 쉽게 다닌다. 8.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 열차가들어오면 뛰어가서 타이한다.







#### 고정민 노력파

싱가포르에서 조선업, 해양업과 전전, 엔진 A/S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공부 중. 항상꿈을 갖고 살아가라는 주재원님의 말씀, 청년들이야말로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Michelle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파이팅!



#### 오지혂 노안막내,조장

중어중문학과 경영학을 전공. 하고 싶은 일 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 22살 노안 막 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해외인턴기 간 동안 쉬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

### Singapore

인턴소개 📒



#### 오지현

싱가포르에서 이루고자 한 세 가지



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라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현대 중공업 싱가포르지사에서 인턴근무를 하게 되었다. 인구의 대 부분이 중국인이고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있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접하는 모든 것이 흥미롭고 즐거웠다. 아마도 내가 중어중문학 을 전공하는 학생이라서 더 그러한 것 같다. 한 달은 짧은 시간 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얻어가고 싶은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다.

첫 번째는,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성격이 많이 다른 부서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또 세계 1등 기업 현대중공업지사의 직원분들이 외국지사에 나와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직접 보고 싶었다. 두 번째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발전하는 성가포르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다. 세번째는, 세계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화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견문을 넓히고 싶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싱가포르 입국한 날부터 바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이곳 싱가포르지사는 해양사업이 주축인데, 이곳을 기점으로 주위에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호주 등도 주요 영업 지역에 포함된다. 재정관리, 엔진과 전전 A/S, 구매, 해양과 조선영업을 주로 맡고 있다. 나의 업무는 지사에서 각 부서별로 실행하는 실제적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일이었다. 싱가포르의 해양 관련기업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 위치한 여러 항구에가서 여기서 배우고 조사했던 쉽 야드, 잭업리그, ING선 등등 여러 배와 크레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각 분야의 정문가라

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재원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했고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제 2주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 느끼고 들은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마음속에 많이 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이번 해외인턴체험의 기회가 내 앞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한국을 떠났던 저의 생각이 무색해질 정도로, 싱가포르의 멋진 모습과 지사에 계신 주재원님들의 환영에 첫 주를 정신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싱가포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그 면적 또한 서울보다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동쪽 부근만 많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사실 상 전체로 보자면 서울보다도 개발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면적의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풍경,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오고 첫 주말에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라고 불리는 마을에 가보았습니다. 이곳의 지하철, MRT를 나오자마자 도심에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에 조금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첫 주에 여러 번 가본 Clark Quay는 마치 우리나라의 대학로, 또 는 신촌거리의 느낌이 나는, 그렇지만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이었



고정민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품고 있는 싱가포르

습니다. 싱가포르의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강변을 따라 배를 타보기도 하고, 멋진 야경을 사진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교차로 하나를 두고, 한 블록 차이를 두고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는 싱가포르에 지내면서, 한국과는 많이 다른 다민족, 다문화 국가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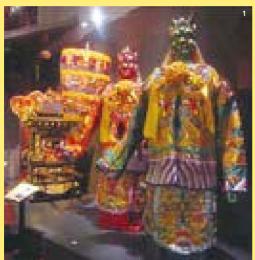


### 싱가포르 여행기

주말중 하루를 박물관 두 곳을 방문하는 것에 할애했다. 첫 번째 로 간 곳은 아시안문명박물관 이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넓 게는 서남아시아와 중동, 중국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 한 역사를 전시해 놓았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와는 달 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만이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이 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싱가포르국립박물관이었다. 아쉽게 도 몇몇 관은 문을 닫아 다 구경할 수는 없었지만 우선 각 층마다 각각 다른 고대 그리스의 건축양식을 재현해 놓은 것이 아름다웠 다. 여러 전시관 중에서 음식, 의상, 사진 등 테마 별로 전시해놓 은 living gallery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 나는 중국영화를 좋아하 는데 영화 색계 속의 배우가 입고 나올법한 우아하고 아름다운 치 파오 전시가 인상적이었다. 박물관건너편에는 싱가포르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가 있어 캠퍼스 를 구경했는데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건물이었다. 기회가 있 으면 다시 방문해서 학교 안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주말에는 센토사섬을 방문하여 해변을 산책한 뒤 트램을 타고 섬을 한 바퀴 돈 다음 4D가상시뮬레이션 놀이기구도 타고 밤에는 센토사의 유명한 프로그램인 Song of the sea 를 관람했다. 해변에서 배우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폭죽놀이로 마무리되는 것 이었는데, 관람객이 굉장히 많았고 나 역시 흥미를 느낀 공연이었 다. 싱가포르의 자연조건과 상상력을 적절하게 이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가포르의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성가포르가 자국의 장점 을 확실히 인식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부분이 인상적 이었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힘이 굉장히 커서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언론통제도 심하지만, 이러한 정치형태가 싱가포르에 오히려 득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에게 친화적인 정책이 많아서 외국기업들이 계속해서 싱가포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키워드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장점은 크게 부각하되, 단점은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워 우리식으로 소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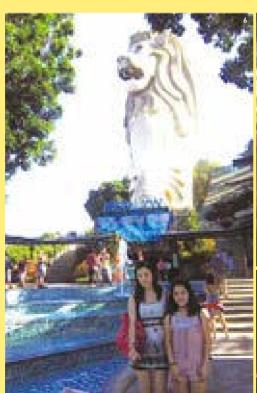








1. 박물관 내부가 어두웠는데 이 전시를 보니 조금 놀랐습니다. 수호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 라우 파 삿의 내부 모습입니다. 3. 이곳은 주말 중에 방문한 asian civilization museum입니다. 아시아전체의 역사,문화 등을 다루고 있어서 볼거리가 풍부했습니다. 4.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IMTECH 사의 직원 분과 저희 인턴 두명입니다. 5. 저 뒤에 보이는 것은 현재 공사중인 페리터미널입니다. 역시 김상문차장님과 함께 간 필드트립에서 찍은 사간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6. 싱가포르에 익숙치 않은 저희 를 위해서 출동한 구매부 차동환부장님의 자녀분과 오지현인턴입니다. 7. 최근에 지어진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의 모습이고, 이 사진을 찍은 곳 또한 며칠 전에 오픈한 가든 바이 더 베이 라는 정원 다. 영화 아바타가 생각나는 느낌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고인돌을 닮은 것 같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투숙객만 이용가능하다고 해서 안타까웠습 니다. 8. 센토사성의 마지막 코스는 song of the sea 였습니다. 해변을 배경으로 배우들이 스토크를 가지고 충추며 노래하는 공연이었는데, 레이저쇼와 분수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입니다.







### 구민정 동경지사의조장, 사진작가

찍는 사진마다 화보가 나오는 동경지사 사 진작가! 짧은 4주 동안이지만 다양한 경험 을 해보다는는 열정의 조장



#### 최지연 명랑소녀

언제나 명랑한 에너지를 가진 동생. 일찍부터 지취생활을 해온 듬직한 그녀. 사진 찍을 때마다 풍부한 표정을 보여주는 명랑소녀



인턴소개 **●** 〈



#### 구민정

소중한 기회 특별한 경험



Secen1. 첫 출근, 두근거림을 안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라는 상 무님의 말씀에 8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가벼운 아침체 조로 하루를 시작하며 부장님과의 면담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 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달이 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출장이나 공장견학을 시켜주시며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상무님이나 부장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너무 소중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배울 수 있었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짧다고 느껴졌던 시간이었지만, 일본에 오기전과 지금의 저는 분명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ecen2. 해외인턴은 업무 이외에도 일본과 일본인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존경어, 겸양어, 공손어 등경어가 존재하는 나라인 일본에서 비즈니스적인 일본을 배울 수

있었고, 배려를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했던 인턴친구가 휴대폰을 공중전화 박스에 두고 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난 후에 근처 역무원에게 물어보게 되었지만, 휴대폰은 고스란히 분실물 센터에들어와 있었고 이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일본인은 신뢰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 감동을 소중히하는 나라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이 업무에어떻게 반영될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훗날 이를 업무에 어떻게 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턴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봤지만, 이제는 해외지사라는 큰 틀과 분명 아직까지 배울 점이 많은 일본이라는 선진국과 그들의 국민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루하루가 모인 26일의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달 간의 현대중공업 동경지사에서의 경험이 미래에 제 인생의 큰 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일본인들은 무척 친절했다. 길에서 무언가 물어볼 때에도 바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말을 기다려주고, 길을 알려줄 때에도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으로 알려주며 멀리 있는 지도까지 가지고 와서 세세하게 알려준다. 이런 국민의 모습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얼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일본기업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 신문 번역 등의 일을 했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회 도서관으로 견학도 갔다. 부장님께서는 회의실에서 일본의 생활, 일본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회사에 있는 언니들도 우리가 일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식당, 백화점, 볼거리 등을 알려주셨다.

숙소가 있는 에도가와바시 역에서 회사가 있는 유라쿠초 역까지 지하철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20분 동안 굉장히 많은 회사인과 마주칠 수 있었다. 나는 일본에서 홈스테이와 교환학생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중문화와 일본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턴을 하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일하는 일본'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회사원은 와이셔츠 색도 다양한 색으로 입고, 여자들은 원피스나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기도 하는데 일본의 사회인들은 모두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정장 바지로 획일화된 옷을 입고 있었고, 혼잡



함 속에서도 무질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인 모습이었다. 교환학생을 하며 만났던 일본 친구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자유분방한 모습이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일본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화려한 패션에 특이한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일 하는 일본인'은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취업활동을 시작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나에게 여행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기업문화를 몸소 느껴볼 수 있었던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인턴은 소중한 경험이 었다고 생각한다.

### 도심 속 전통의 거리 아사쿠사



### 명품형 신도시 오다이바!



구민정



역에서 내려 3분거리에 위치한 아사쿠사에 도착하면 대표적인 상징물인 가미나리몬이라는 정문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가미나리몬은 센소지 경내로 들어서는 첫 번째 입구로 아사쿠사 의 아이콘이며 도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문화재 중 하나 로 꼽힙니다. '벼락의 문'이라는 뜻의 가미나리몬은 센소지로 들 어오는 귀신과 액운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곳이며 오른쪽에는 바 람의 신상이, 왼쪽에는 천둥의 신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입구 로 들어서면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센소사까지의 긴 길 이 이어져 있습니다. 길 양옆에는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일본 인 형, 전통적인 느낌의 지갑, 빗, 거울, 부채 등 기념품을 사기에 안 성맞춤인 곳에서 우리의 발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일본식 빙수, 일본의 떡꼬치 당고, 아사쿠사 전통 빵 등 먹거리 또한 가득했고 일본의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은 일본인들과 그런 일본의 전통 을 느끼려는 외국인들이 섞여 아사쿠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 뤘습니다. 휘황찬란한 빌딩으로 둘러싸인 동경에서 고풍적인 분 위기를 자아내며 일본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사쿠사 는 그 희소가치만으로 단연 매력적이었습니다.

\*\*\*\*\*\*

'유리카모메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자기부상열차로 1시간도 걸 리지 않아서 편하게 오다이바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도착해서 보 니 인공해변을 따라 복합쇼핑몰과 아파트들이 들어서있었고, 후 지TV 본사와 연구시설들도 있었으며, 건물들 사이에는 작은 공 원이 있었다. 알고 보니 오다이바는 도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은 신도시들이 동경과 거리가 멀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것 을 교훈 삼아,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면서도 동경을 세계적인 교 류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로 만든 곳이었다. 오다이바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으며, 도심에 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 브리지를 건설하고 모노레 일도 확장했다고 한다. 내가 봤던 오다이바의 이미지처럼 최첨 단 도시라는 이미지가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다이바의 입주를 선호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 다. 일본의 모습을 한국과 비교해가며 좀더 구체적인 눈으로 보 니 다른 일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국민성과 합리 적인 정책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남은 기간에도 색다른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우에노 공원옆에있는 아메요코 시장. 생선, 반찬,과일 등 도쿄에서 보기 드문 모습을 볼 수 있다. 2. 우에노 공원에 있는 관음사. 관음사는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3. '야타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포장마차. 아시쿠사 앞에 더위를 달래주기 위한 '카키코오리'(얼음에 음료수를 뿌려 먹는 빙수)야타이가 인기다. 4. 오다이바에 있는 후지 TV본사. 특이한 건축구조 로 유명하다. 5. 디즈니랜드 퍼레이드. 알라딘, 백설공주, 신데렐라, 피노키오, 토이스토리, 메리포핀스 등 다양한 주인공들이 퍼레이드를 한다. 6. 오다이바 안의 비너스 포트 과거의 그리스를 재현시켜놓은 장소. 7. 시부야의 거리. 다양하고 높은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 8. 시부야 역 앞에서 공연을 하고있는 인디밴드.



#### 배수력 허당, 긍정마인드

2%가 아니라 20% 부족한 허당, 앞으로 200% 알찬 인턴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 이번 인턴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와 회사생활의 기본을 배우 고 있다. 생활하는 모든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마 인드의 소유자, 목표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는것



#### 김세인 팔방미인,재주꾼

재주 많은 팔방미인, 미모로도 미인, 실질적인 언니, 무엇을 맡겨놔도 꼼꼼히 잘 수행하는 게 특징, 재주가 많은 만큼 꿈도 많아 진로에 대해 고민 중, 우리 인턴 생활의 활력소를 담당



### **Osaka**

인턴소개 **●** 〈



배수련 귀중한 경험



사회초년생, 한 달간의 인턴일 뿐이지만, 공식적인 첫 사회생활 입니다. 그런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오사카에 발을 내 디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현대 중공업 오사카지점은 전기전자영업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와 본사를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 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전기전자영업이라는 생소한 부서에 배정 받았습니다. 국내 교육에서 전기전자분야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일 해보니, 제품 이해 를 하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문대 생이었던 저로 서는 전공 밖의 지식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정재용 지점장님께서 직접 인턴교육을 해주십니

다. 오사카지점의 사명이나 해외영업의 진행과정, 애로 사항 등 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멘토 한 분을 얻은 듯 든든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지점의 일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희 가 주로 맡는 업무는 일본 기사를 스크랩하고 번역하는 업무입 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일본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이 지 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파괴의 여파로, 현재 일본은 그린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린에너지 사업 본부의 성장가능성을 이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 니다. 저희들은 아직 번역문서 작성이 미숙해서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첨삭을 받고 있지만, 완벽한 번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햇병아리 인턴사원들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하나 알아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퇴근 후의 여가시간에는 오사카 곳곳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여 행 책자에 실린 맛집이나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오사카를 알아 갑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가, 관광명소인 통천각과 전기상 가인 덴덴 타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걸음으로도 여행자 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오사카 지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주재원 1명에 현지 직원 1명이면 작은 사무소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다 한 달이 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턴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 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사카 지점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일 당백의 역할을 하는 큰 사무소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 고 여기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생각보다도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에 아쉽지만, 그만큼 시간을 더 아껴가며 쓸 수 있어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인턴 생활도 절반이 남았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도시 오사 카 한복판에 있는 이곳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얻어갑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더 열심히 일본 을 탐방할 생각입니다. 청년해외인턴 여러분 파이팅!







## 일본 3대 마츠리,

#### ♥ 배수련, 김세인

### 기온마츠리를 가다!

일본의 3대 마츠리 중 하나이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도 등록된 교토의 기온마츠리. 7월 내내 열리는 축제 기간 중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7월 17일, 우리는 교토로 문화탐방을 떠났다.





야마보코 행진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기온으로 이동하였다. 기 온에는 마츠리가 열리는 본당인 야사카 신사가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야사카 신사는 액과 화를 면하게 해주고, 상업을 번성하게 하는데 영험하다고 한다.

시모가와라도리를 지나 네네노미치를 올라가다보면 고다이지가 보인다. 고다이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 '네네'가 도요토미 의 명복을 빌기 위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재정원조를 받아 지어 진 곳이다. 계속해서 올라가자 유명한 니넨자카와 산넨자카가 나 온다. 산넨자카는 전통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길이지만,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고 하는 무서운 전설도 전해진다.

길을 걷고 걸어 겨우 기요미즈테라에 도착하였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기요미즈테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사원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붉은 색의 니시몬이 보인다.

사원 아래에 있는 오토와 폭포에서는 세 줄기 물이 쏟아지는데 각 각 건강운, 학업운, 연애운을 뜻한다고 한다. 이 중 건강을 빌며 첫 번째 줄기의 물을 마셨다.

저녁 6시부터 거행되는 신코우사이는 신코우사이는 아사카 신사에서 오타비쇼(신이 신사를 나와 인간이 사는 곳에서 쉬는 곳)까지 가는 의식이다. 신을 모신 3채의 미코시(신을 모신 가마)가야 사카 신사에서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한 시간 전부터 아사카 신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장정들이 미코시를 지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데 장관이 따로 없다. 미코시를 지는 역할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참여하는 훈훈한 모습도 볼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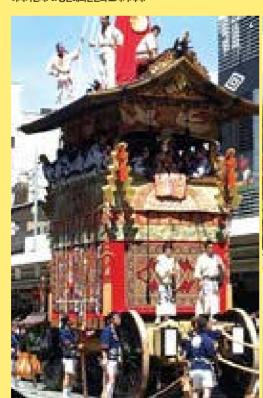
이 신코우사이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토 기온 마츠리 탐방은 끝이 났다. 더운 날씨와 많은 인파에 지치기도 했지만, 소중한 추억을 남겨올 수 있었다.







1. 오사카지점이 위치한 나가호리플라지빌당. 2. 교토를 대표하는 사찰, 키요미즈테라입니다. 교토에 가면 이 곳은 꼭 봐야한다고 하죠. 3. 키요미즈테라로 가는 길, 산넨자카에서 만난 마이코 분 장을 한 여성 두 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한 장의 엽서 같지않나요? 4. 일본 3대 마츠리로 유명한 기온마츠리.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행사인 아마보코 행진입니다. 이걸 보려고 무더위에도 사람들 이 바글바글 했어요. 5. 오늘의 기온마츠리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코우사이입니다. 신을 모신 미코시(가마를 이고 행진하는 걸 말해요. 신이 마을로 내려가는 과정이지요? 6. 아마보코 행진. 7. 아사카신사. 8. 청년해외인턴과 오사카지사.









#### **England**

#### 현대중공업 런던 지사

영업부, 전기전자영업부, 구매부 총 3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유럽 전 지역의 총 관리를 담당하는 헤드 쿼터



#### 현대중공업 오슬로 지사

주 업무는 선박영업. 계약 협상을 통해 사양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하기까지가 지사의 주요업무. 주고객은 해외 선주사이고 그 중에서 유럽선사가 50% 이상을 차지



#### 현대중공업 로테르담 지사

엔진기계 사업부 제품 보증 및 유상 서 비스, 대 선주 기술지원, 해외영업 및 영업 지원, 전전시스템 사업부 제품 보 증 및 유상 서비스, 엔진부품 판매 기 술지원 등



#### 현대중공업 모스크바 지사

건설장비 해외 영업을 위한 시장 조사



#### 현대증공업 마드리드 지사

남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 담당. 변압기, 배전반, 회전기, 풍력, 태양광발전시스템



#### 현대중공업 아테네 지사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태리, 터키, 이 스라엘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선박 신조 영업, 계약관리, A/S를 맡으며, 엔진, 중전기 등 타 사업부의 장비, 부 품 판매 영업, A/S 지원 ₹ C· 〈

### Turkey

#### 현대중공업 이스탄불 지사

터키뿐만이 아니라 아제르바이 잔,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그리고 북아프리카 5개 국의 건설장비 영역을 담당 " 청년이여 행동하라! "

# Europe



강승연 그리스 아테네지사의 홍일점

혼자! 여자가! 그것도 요즘 경제위기 로 힘들다는 그리스에서! 씩씩하게 인턴을 하고 있는 당찬 그녀

### **Athens**

인턴소개 🔙

#### 강승연

선박의 나라 그리스에서 선박 영업을 경험



#### 그리스에서 보낸 첫 주

그리스에 도착한 첫 일주일은 즐겁고 또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공부하고, 질의응답시간에 조선영업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정말 매력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테네 지사의 직원 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

후며 음식이며 모두 잘 맞았기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동시에 기본상식이 부족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어디에 앉는 것이 좋을지, 선주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조금 더 일찍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늦게 가야 예의인지를 몰라 간단한 문제에서도 움츠러들었습니 다. 황당한 실수도 잦았습니다. 문을 잘못 잠가서 화장실 안에

갇히기도 하고 프린터 작동을 잘못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을 때 는 반응속도가 너무 늦어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 화를 제 때 받기 위해 맨발로 사무실을 뛰어다녔던 기억도 이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7월, 인턴하기 가장 좋은 계절!

저는 운이 참 좋았습니다. 선박강국인 그리스에 오게 된 것 도,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지만, 시기도 제일 좋을 때 에 왔습니다. 7월은 날씨가 가장 좋고,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라 인턴을 오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또 현 지사장님 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지사장님이 부임하실 때여서 덕분 에 선주들과 아테네의 다른 공관과 주재상사의 계신 분들을 만 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점심과 저녁 약속에 동행해서 현대중공 업과 선박업에 대해, 더 나아가 인생교훈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 다. 그리스인들은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한국인들보다 훨씬 늦 게. 그리고 오래 하기에. 늦은 시간까지 과식을 해서 배탈이 여 러 번 나기도 했지만,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역사적인 인물들과의 만남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George Moundreas & Co. S. A.와 Sun Enterprise LTD와의 만남입니다. 사주인 Mr. George Moundreas가 친히 자택에 초대해주셔서 집 구경도 하고 근처 에 있는 그리스의 타베르나에 가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습니 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밤, 소나무로 둘러 쌓이고 넝쿨 채 뻗어 있는 청포도 아래에서의 맛있는 식사, 전통악기에 맞춘 회장님 과 식당 사장님의 노래, 그리고 회사 식구들과 함께 부르던 아 리랑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Sun Enterprise LTD의 Mr. George. S. Livanos는 현대중공업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선박 발주자를 찾아 헤맬 때, 그의 패기를 믿고 선뜻 26만톤급의 유조선 계약을 맺 은 사람이 바로 해운계의 거물, Mr. George S. Livanos입니다. 이 분이 없었다면 현대조선소가 건립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닌데, 직접 만나게 된다니, 정말 긴장됐습니다. 그 의 아들 Mr. Stavros Livanos와 다른 직원 두 분과 함께 한 저녁 식사는 예상외로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이 곳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그리스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회사의 사주와 중요인물로, 현대중공업에서의 인턴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 었을 분들이었기에 그분들과의 만남이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 집니다.

유서 깊은 선박의 나라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에 가까운 아테네 지사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한달 남짓의 시간이 너 무나도 짧지만, 선박영업의 매력에 흠뻑 젖어 뜨거운 날씨도 견 더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조금 더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이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해주시며 배움의 기회를 주신 지사장님, 상무님과 과장님 께 감사 드리며, 아산나눔재단과 현대중공업에 이런 기회를 주 시고 즐겁고 뿌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점에 대해 고 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꽉 찬 마음, 꽉 찬 머리, 그리 고 꽉 찬 배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저앉아 있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 그리스







첫 번째 주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숙소를 나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불행 때문인지 축 쳐졌습니다. SNS를 통해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속상한지를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남긴 덧글 하나. "You are in Greece. How can you be miserable and sad?"

다음 주말 다시 기운을 내고 씩씩하게 나섰습니다. 폐리를 타고 4시간 넘게 걸려 산토리니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호텔 이름이 적혀져 있는 판을 들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꼬불꼬불 절벽에 나있는 길을 따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일 것도 없이 해변가로 갔습니다. 검은 모래, 북적이지 않는 해변, 따뜻한 햇살이 절반깁니다.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아 맥주와 수블라끼를 먹으며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올해 이만큼 걱정 없이 느긋하게 누워서 휴식을 즐겼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일분 일초가 소중해졌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썬베드에 누워서 읽는 "Eat, Pray, Love". 여행하면서 자아를 찾는다는 내용의 이 책은 지금 여기서 읽으니 더 와 닿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달콤한 낮잠도 청해봅니다. 몇 시간 있지 못했지만, 개운한 샤워를 하고 시원한 마사지를 받은 듯 맘도 몸

도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한 이온음료 광고 촬영지로 유명한 이아마을로 향했습니다. 온통 하얗고 파란 마을을 보며 땀도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세한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이 가는 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걷고 싶으면 걷고, 나만의 자유라는 것을 최대한 즐겼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이아마을의 골목은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을 가득 메우지만, 이내 단념하고 발걸음을 돌려 아테네로 다시 향했습니다.

흰 찰흙으로 빚은 것만 같은 마을에서 쏟아질 것만 같았던 별과 밤바다를 밝히는 반달. 그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고 성찰의 시간 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잃어버린 지갑일랑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산토리니의 그때의 그곳을 떠올리며 숨을 고르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 서 SNS에서 했던 친구의 질문에 저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응, 말도 안돼. 그리스는 우울해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나라 야."











1. 내리자마자보이는 호객꾼들. 서로 자기 호텔에 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2. 지사장님, 상무님, 과장님, 그리고 저! 세분 모두 너무 잘해주세요. 3. 노을지는 풍경의 레스토랑. 이때가 8 시쯤이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9시정도부터 붐비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4. 회사 식구들과 사무님들과 함께 로맨틱한 저녁식사를 한 곳! 이탈리안 음식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무엇 보다 경치가 정말 예뻤어요. 바로 얻에는 수영하는 사람들까지. 5. KR과의 식사를 위해 간 곳.여기도 경치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도 훌륭했구요. 바로 앞에는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수영하 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6. 안에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듯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에 책들이 빼곡히 꽂혀져 있었어요. 그리스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언어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7. 아무 래도 고지에 있다보니 건물들이 하나같이 아담하지만 복층으로 이루어져있고 윗층은 좀 더 좁게 해서 아래 바다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지어져있었습니다. 8. 갤러리나 공방또한 마찬가지로 지주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구경만 하고 비싸서 구입은 엄두도 못扰네요. 9. 그 계단이 너무 많아 보통 사람들은 내려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울라울 때는 당나귀를 탄다고 해요. 보이시나요? 마을과 잘 어울리는 당나귀들. 하지만 이 더위에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 조현영 좌충우돌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녀

러시아어로 면접보고 네덜란드로 파견되었지만, 네 덜란드의 자유로운 문화와 사회 복지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후 네덜란드와 급 짝사랑에 빠진 그녀. 완벽 주의자 기질이 있어 시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느 펴이라는 역포신성







### Rotterdam

인턴소개 \_\_\_\_

#### 김진우 네덜란드의 매력에 푹 빠진 청년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네덜란드와 사랑에 빠진 네덜란드 빠돌이, WTO에서 근무하는 국제통상전문가를 목표로 Leiden 대학교 통상법 석사를 준비 중에 있는 야심찬 청년, 수준급의 네덜란드어로 현지인과 간단한 대화만 가능. 호기심이 많으며, 약간 4차원적인 사람



김진우

한진수호 선박 탑승 체험기

로테르담 지사에서 인턴으로 2주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3주차 월요일에 드디어 '한진수호'라는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한진수호(HANJIN SOOHO)는 현대 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선박으로, 최신 전자해도 항해시스템, 선박용 블랙박스 및 최첨단 항해 장비를 장착했으며, 중국, 부산, 싱가폴, 수에즈운하,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아시아-유럽 (NE6) 노선을 11주(77일)동안 항해합니다.

배에 오르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가 주는 위엄에 압도되었는데, 배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진수호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항만에서 배로 연결된 임시계단를 통해 올라가야만했는데, 그 폭이 매우 좁았고, 마치 정글에 있는 외나무다리를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배 위에 올라서는 방선자(visitor) 출입중을 받기 위해 리스트에 이름과 방문 목적을 작성했고, 출입중을 받은 후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서야 9층 높이의 브릿지(조





정실)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9층에 위치한 조정실은 한진수 호의 선장실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바라본 선박과 항구 전경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조정실에 올라갔을 때 마침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선적되는 시간대여서 거대한 크레인이 육중한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을 보았는데, 모든 절차가 직원 한두 명의 조작에 의해 무인 자동화 크레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으로 맛있는 한식을 먹고, 드디어 선박의 핵심 부분인 엔진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에서는 로테르담 지사 주 재원분들께서 직접 수리 및 관리를 하시는 엔진과 관련 기계를 볼 수 있었는데, 엔진의 크기가 거대한 건 물론이고 그 열기와 소음 또한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재원분들께서 조금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거대하고 복잡한 엔진과 기타 장치를 직접 수리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첨단 컨테이너선에 올랐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 깊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흘리는 지사 직원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좌충우<u>돌</u> 네덜란드 인턴 생활

조현영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네덜란드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는 책 상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덜란드 어도 모르는 상태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딪쳐보니 언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 다. 회사생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실수하는 일이 수두룩 했었습니다. 그래도 김진우 인턴의 도움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적응 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은 한국말도 매우 잘하시고 한국음식도 맛있게 해주시는 분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회사 점심시간에도 아주머니께서 도시락을 보내주셔서 세끼 모두를 한국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잘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께서 휴가를 가셔서......)

사실 국내에서 교육받을 때 까지만 해도 저는 한 달뿐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걱정했었습니다. 재단 분들도 할 일이 주어지길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하는 게 좋을거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해외지사에 도착하고 보니 주재원 분들이 저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겨우 한 달 파견 오는 인턴을 위해 계획표를 짜서 저희에게 건네주시는 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에게 주어진일이 있다 보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근무시간에도 보고서를 쓰는 양식, 엔진 MANUAL을 관리하는 법, 유럽항구들의 정보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더많은 업무를 해보고 싶은 욕심에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끝내고 싶었지만 주재원 분들께서 오히려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씀 해주시고, 절대로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소가 회사에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로 태워주시기도하고, 아침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데리러 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주재원 분들과 현지인분이 이와 같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저 또한 인턴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Schiermonnikoog





네덜란드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네덜란드 축구리그에서 석현준 선수가 뛰고 있는 Groingen 시 기차역에서 Kroeze 가족 을 만나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30분 뒤에 드디 어 섬에 도착! 도착하자 인상 깊었던 것은 여기서도 누구나 자전 거를 교통수단으로 탄다는 점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본토가 자전 거 천국인 것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섬에서까지도 그럴 줄은 몰 랐습니다.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부두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 대 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 섬 내부로 향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푸른 바다를 옆에 두고, 자전거를 타고 해변 을 달리는 기분은 매우 상쾌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간 작은 항구에서는 개인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 안과 밖에 서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자 전거를 타다가 상점들이 모여 있는 섬 중심부로 들어갔는데, 관 광지답지 않게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어 마을이 매우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Kroeze 가족과 함께 보냈던,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서의 평 화로운 주말 오후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 니다

### 진정한 네덜란드의 매력은 암스테르담에!

조현영

\*\*\*\*\*\*

저희가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간 곳은 반 고흐 미술관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개관하는데도 9시30분쯤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있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반 고흐뿐만 아니라 고갱, 밀레 등의 많은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있어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네덜란드 현지 기업인 Heineken체험전시관 이었습니다. 입장료로 한화 2만 원 정도 지불하고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맥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전시도 잘 해놓았지만, 4D 상영관을 통해 제 자신이 정말 맥주가 된 거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맥주도 무료로 2잔정도 시음할 수 있었고 Heineken이라고 쓰여 있는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 곳은 암스테르담 대학교였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실제 네덜란드 내에서도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대학교로서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저희는 대학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사무실 직원과 연락한 뒤방문하여 좀 더 친절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세 장소의 문화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희는 날씨가 좋아다른 현지인들처럼 운하 근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중앙광장인 담 광장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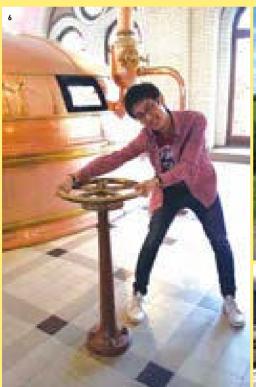








1. 배 타기 전에 헬멧도 쓰고 안전조끼도 입었다. 울산에서 교육받고 난 후로 입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참고로 우리 두 인턴은 다른 분들이 우려하셨던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2. 주재원 분들이 자주 출장을 다니셔서 한달에 한번정도나 같이 식사하신다는데 다같이 모인 회식자리에 인턴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던 날, 차괴장님이 사진을 찍어주시고 강괴장님은 출장중이셔서 사진 속에 안 계셔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맛졌던 회식! 3. 자전거가 정말 많은 나라! 차보다도 자전거가 우선인 문화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점점 나도 적용이 되서 그런지 이젠 아무렇지 않아보인다. 오히려 자전거 한 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4. 역시 네덜란드는 운하가 이쁜 도시! 날씨까지 좋으면 금상참화이다^^ 5. 로렐담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 너무너무 이쁘다. 하나하나 사진 물무게 아쉬울 정도로, 그 중 가장예쁜 집을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찍은 사진! 6. 하이네게 딱구 광장 전형 내부 모습. 최신식 맥주 공장 시설 앞에서 벨브를 잠그는 설정샷. 7. 섬에서도 자전 기를 타고 이동함: 곡물 발을 자전거라고 지나가면서 찰칵. 8. 노란색의 네덜란드 기차. 기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음. 9. 배에서 먹는 맛있는 한국식 점심식사에 행복한 우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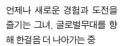








#### 구영은





Oslo

인턴소개 🟣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청년해외인턴을 선택한 청년. 오늘보다 멋진 내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내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멋진 여자



7<del>8</del>은 오슬로 지사에서의 보석 같은 한 달

지금 오슬로는 매우 쌀쌀하다. 노르웨이의 여름날씨는 섭씨 10~20도 정도로 서늘하고 습윤하다. 올해 날씨는 예년보다 나빠서 일기예보에 없는 비가 예고 없이 내리고 몹시 춥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 이곳에 있으니 매우 상쾌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나에게 오슬로 지사에서의 한 달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어 갈 수 있는 값 진 시간이었다. 한 달 간 우리는 상무님과 과장님의 이야기를 통

해서 조선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조선영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Femley's와 R,S Platou 등 노르웨이의 대형 선박중개인회사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현지인 분들께서 회사 설명도 해 주셨다. 선박 수요 강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에서의 인턴경험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닌 세계 전체를 나의 무대로 삼아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 듯 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 굳이 노르웨이에 파견된 것도 정말 천운이다. 나는 여태껏 노르웨이만큼 안전한 나라를 가본 적이 없다.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곳답게 노르웨이 사람들의 열린 마음과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했다. 또한 국가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에 또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5주는 법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되어있다. 또한 퇴근시간이 오후 3시~4시로 일이 끝나면 자기여가활동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여자인 나로서는 우먼파워가 매우 센 이곳에 사는 직장인 여성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자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지켜나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노력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대한민국도 남자와 여자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는 달콤한 상상을 해본다. 현대 중공업 오슬로지사에서의 한 달 간 인턴생활을 하면서 배운 투철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나의 목표인 "Make the world to be a better world"를 꼭 달성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아온 나에게, 여행이 아닌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번 이 처음이었다. 내가 인턴생활을 하는 이 곳, 현대중공업 오슬로 지사에서의 주 업무는 선박영업이다. 선주 혹은 브로커들과의 접촉을 통해 선박에 대해 영업활동을 벌인다. 노르웨이에서는 브로커회사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턴생활 동안 노르웨이 회사인 Feamelys, R.S.Platou사를 방문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회사를 방문하면서 세계 최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의 근무환경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났다.

보통의 인턴생활은 아침 8시까지 출근으로 시작된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조선산업, 선박영업에 대한 주어진 자료와 책을 읽고, 이제까지 있었던 주요 석유, 선박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사와 자료들을 읽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특히 노르웨이가 속해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개국이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총칭한다.)에 대한 동향 또한 뉴스로 살펴본다.

규모의 경제라고들 한다. 세계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계로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엔지니어적 인 마인드를 대학생활 내내 키웠다면 이제는 엔지니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할 때인 것 같다. 아마 청년해외인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생각이 사치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대학생활 마지막 방학이다. 이러한 때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 더욱 많은 웃음과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같아 뿌듯하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1 출근하기 전, 숙소 바로 앞 거리인 0dins gate. 2 현대중공업 오슬로 지사 곳곳에 있는 선박모형과 그림들. 3. 노르웨이 궁전 바로 앞으로 펼쳐지는 노르웨이의 명동거리인 Karl Johans gate. 4. 현대중공업 오슬로 지사를 들어가는 우리를 반겨주는 LNG선 모형과 회의실. 5. 파일링한 서류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인턴. 6. 회의보다 식사를 더 많이 했던 회의실 책상에서 한 컷. 7. 오슬로지사의 부입, 커피와 식사를 준비하느라 항상 분주하다. 8. 스키의 나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꼭 가봐야 할 스키점프대 앞에서. 9. 노르웨이 바이킹 박물관 앞에서.. 10. 숙소 안 거실모슴. 11. 정말 딸처럼 돌보아 주셨던 상무님과 과장님. 12. 주말을 이용해 찾아간 콘티키 박물관 안에 있는 모형선 앞에서. 13. 오슬로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식당, 가격도 매우 비싸다. 14. 언덕위에 올라 오슬로를 바라보며. 15.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햇빛을 즐겼던 오후. 16. 덴마크 궁전 앞에서 오랜만에 만난 덴마크 친구와 함께. 17.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같이 셀카. 18. 도심 속 작은 휴식처인 요새에 올라 항구를 바라보며.















#### 김수빈 후궁 | 빈

여린 외모와는 다르게 당차고 현명 하게 모스크바 생활을 해내는 그녀. 하지만 내면에 숨겨둔 댄스본능으로 놀 때는 화끈하게 놀 줄 이는 '비디오 형 기수'

### Moskva

인턴소개 💳

#### 송민정 후궁॥ 민

외모도 업무능력도 당당하고 멋진 그녀. 하지만 저녁 9시가 되면 잠을 청해야 하고 하루에 과일 하나를 꼭 먹어야 하는 소녀





김수빈 · 송민정

짧은 기간인 만큼 더 열심히!

첫 출근 날, 우리는 주재원 두 분, 현지인 여섯 분 앞에서 영화 속 두 주인공이 되었다. 영화 제목은 '맨인블랙'. 이유는 우리 둘 다 검정 정장, 검정 구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올 블랙이 었기 때문이다. 지사 직원 모두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사람에게 소속되었다. 바로 지사장님이신 강성우 부장님. 근무 첫 날부터 부장님께서는 우리 둘에게 현지인인 러시아인 직원 분들이 편하게 이름을 부르도록 민과 빈이라는 이름을 주

셨다. 민과 빈은 마치 옛날 후궁들을 부르는 이름과 어감이 비슷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스크바 지사에서 후궁 민, 빈이 되었다. 잘생기시고 한없이 다정하신 부장님의 후궁이 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이었다.

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 동안 할 프로젝트를 안 겨주셨다. 우선, 매일 러시아에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시황보고 가 있다. 러시아 신문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그 동안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러시아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언어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첫째 주 프로젝트로 러시아 장관 내각 조사라는 프로젝트를 주셨다. 옛 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살고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다. 즉,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이 큰 영역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러시아 내각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1주가 지나고 마침내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2주차 프로젝트는 인구 100만이 넘는 러시아의 도시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러시아란나라는 대륙이다. 그만큼 지역이 다양하고 인구 또한 많다. 100만이 넘는 도시는 러시아 안에 12개나 존재하는 데 우리는 그 12개 도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산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제 3주차가 되었고, 우리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나는, 러시아 주요 20개 상장사와 오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다른하나는, 앞서 말한 러시아에 100만이 넘는 12개 도시의 건설업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 두 프로젝트를 시작한 단계이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성공할 계획이다.

사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무언가를 배우고 가기에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 2주를 근무한 우리 둘에게 현대중공업 모스크바 지사에서의 근무는 무척이나 값지고 보람찬 시간이다. 또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부장님과 과장님의 배려로 우리는 재미있는 관광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지사 현지인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매력 넘치는 분들이다. 그들은 근무시간에는 열정적으로일하고, 여가시간에는 우리와 친구처럼 대해준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2주의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되고 설렌다.



### 우리가 모스크바를

### 정복한다!

김수빈 · 송민정

#### 볼쇼이 극장, 크렘린 + 은색의 숲, 붉은광장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은 현지에 적응하느라 부족한 잠을 청하다가 목요일이 되자 우리는 모스크바 시내로 첫 발을 내디뎠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볼쇼이 극장이었다. 공연시작 직전에 부라부랴 산 표는 '파라오의 딸'이라는 3막짜리 발레 공연이었다. 이집트 여행 중이던 영국 귀족이 파라오의 딸과 사랑에 빠졌던 전생에 대한 환상을 경험한다는 내용이다 줄거리를 모르고 가도 아름다운 무용수와 화려한 의상, 신비로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금요일에는 강성우 지사장님의 배려로 오전에만 시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외근 겸 '모스크바의 명동' 아르바트 거리로 관광하러 나갔다. 아르바트 거리는 원래 러시아 귀족들이 살던 거리였는데 아랍상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물건을 파는 거리가된 곳이다. 우리는 헌책을 파는 노점에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기타 연주나 각종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면서 즐겁게 걸어 다녔다. 마지막으로 밝은 하늘색으로 칠한 러시아문학가 푸쉬킨 생가에 들려 그가 남긴 여러 유품을 보고 그의 문학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토요일에는 은색의 숲이라고 불리는 모스크바 서북쪽 교외의 공원으로 수영하러 갔다. 이 곳은 군데군데 작은 호수가 있는 곳으로 모스크바 시민들의 주말 휴식장소이자 야외 수영장이다. 계곡이 아닌 강에서는 수영해본 적 없는 우리는 신나서 수영복을 챙겨갔지만 생각보다 탁한 물에 선뜻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 할아버지가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우리도 조심스레 들어갔다. 결국 물에 홀딱 젖은 우리는 따뜻한 햇빛으로 데워진 강물에서 등등 떠다니며 즐겁게 놀았다. 물에서 나와서는 수박을 먹고 모래찜질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또 다시 젖었지만 먹구름과는 다르게 우리는 유쾌했다.

일요일에는 모스크바의 상징인 붉은광장에 갔다. 탑 위에 양파가 여러 개 달린듯한 성 바실리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았다. 독립된 방으로 구성된 성당 안을 살펴보고 나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묘에 들어갔다. 이 묘는 입장료는 없었지만 경비가 삼엄해서 사진기를 다 맡겨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어두컴 컴한 곳에서 밀랍인형처럼 누워있는 레닌의 시체를 보니까 왠지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추워진 우리는 고급 백화점인 굼 백화점에 들어갔다. 햇빛이 비치는 아케이드 아래로 작은 분수가 있었고 그 위로 풍선이 날아다녔다. 그곳에서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었다.











1. 카잔 성당: 붉은광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작은 성당으로 그리스 정교 특성상 여자는 머리와 어깨를 가려야 해서 작은 초 하나 못샀던 슬픈 성당입니다. 2.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한국 지하철과는 다르게 여기 지하철역은 매우 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중독성 있는 스피드예요. 3. 사무실 안: 현대중공업 대표 제품 중의 하나인 지계차 모형을 앞에 두고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4. 버스: 모스크바 시내버스입니다. 모스크바 버스는 한국과는 다르게 문이 세 개가 있고 에어컨이 없습니다. 5. 사무실 안: 모스크바 지사의 꽃메남 현지 직원 알렉스와 인턴 감수반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6. 아르바트 거리: 아름다운 건물을 양쪽에 두고 대각선으로 모스크바 서쪽을 가르는 아르바트 거리입니다. 한 쪽에서는 호객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춤추는… 흥겨운 거리입니다. 7. 굽 백화점 안. 작은 분수 위로 열기구가 등등 떠다니는 인상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굽 백화점 입니다. 하지만 유명세압에게 얇은 지갑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브랜드가 많아서 눈만 호강하고 나왔답니다. 8. 은색의 숲: 모스크바의 유명한 습지입니다. 여기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여가시간 때 여기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9. 사무실 안: 저희 인턴 직원 두 명의 근무 모습입니다. 저희 또 지사장님 사무실 안에서 편한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6

#### 유세영 생글생글 스마일걸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낙천적인 친구, 뛰어난 스페인어 실력과 친화 력으로 스페인 적응 400% 완료, 직 접 몸으로 부딪혀 경험하는 것을 좋 아하는 행동파



### Madrid

인턴소개 💳

#### 최수정 호기심 가득한 에너자이저

늘씬한 긴 다리로 언제나 방방곳곳을 뛰어다니는 그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여 스페인에 있는 동안에는 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할 정도, 넘치는 체력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파



#### <sup>윤세영</sup> 더 성장한 모습 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며

저는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지사로 배정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중심에 있는 마드리드는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 중심으로 역사적인 거리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작을 보유하고 있다는 프라도 미술관, 국립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및 왕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13시간이나 되는 장시간의 비행에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 마드리드 바라하스(Barajas) 공항을 나서자 내리쬐는 눈 부신 태양과 따스한 햇볕에 곧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마드리드 지사는 까스티야 광장(Plaza de Castilla)의 랜드마크인 쌍둥이 빌딩에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북부 상업지구의 중심에서 웅장한 건물과 바쁘게 걸어 다니는 스페인 사람

들을 보자, 이런 멋진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매우 설레었습니다. 지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총 세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가 어렵지 않도록 언제나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친절한 정승완 과장님, 회사 안팎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는 다정한 김소영 대리님, 그리고 먹는 거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능변가 루이스까지 모두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마드리드 지사에서의 제 직무는 전기전자 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짧은 인턴 기간 때문에 마드리드 지사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고객 및 산업에 대한 조사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GIS, TR, EPC, Utility 등 처음에는 생소했던 용어들이 차츰 익숙해졌고,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RFQ로 시작되어 입찰에서 수주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나니, 전전영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더불어 틈틈이 프라도 미술관과 왕궁으로의 문화담방 시간을 가져 스페인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었고, 마드리드에 있는 한국 기업을 담방하여 스페인에 진출한 다른 분야에서의 해외영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과 해외 영업인들을 만난 기회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인턴 생활이 절반 이상 지나간 지금, 그동안의 시간이 보람차다고 느끼는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문과생으로서 부족한 전전사업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동시에 해외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열린 자세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는 4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날이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으로 한 층더 성장할 제 자신의 모습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현대아산나눔재단과 현대중공업 관계 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무사히인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프라도미술관 탐방

최수정





마드리드 도착해서 3일째 되는 날, 저와 윤세영 인턴사원 그리고 김소영 대리님과 함께 프라도 미술관에 문화탐방을 하러 갔습니 다. 스페인은 최고의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에 못지 않게 유럽 3대 미술관의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이 있을 정 도로 예술 분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오후 6 시 이후에는 입장료가 공짜여서 퇴근하고 바로 미술관으로 이동 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에서 15세기부터 수집한 회화와 조각을 비 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 는 스페인 그림이나 조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들에서 시들인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에 온 게 처음인지라 미술관 안에 있는 수천 점의 서양화들의 규모 와 아름다움에 압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화풍들의 흐름을 한 번 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피카소나 미로, 달리와 같은 대표적인 스 페인 화가의 그림뿐만 아니라,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와 같은 이전 시대에 살았던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점이 좋 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고야의 작품들이 무척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모나리자의 다른 스 페인 에디션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서 사진 은 찍어오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에디션 모나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신선한 느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 져있고 무려 84개의 전시실이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미술관인데 8시에 폐관이라 주어진 2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작품들은 보고 나오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림들이 크고 멋있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무선 가이드 오디오폰에서 나오는 설명을들으면서 작품을 보니까 더욱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곳 스페인에 도착하여서 물론 현대 중공업 전기전자 영업과 관련하여 많은 교육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탐방 활동을 통하여스페인이란 나라에 관해서도 좀 더 많이 이해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인턴 둘 다 스페인어가 전공인지라,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1.회사 전경-회사빌딩을 배경으로 윤세영 인턴의 사진 한 컷. 2. 무세오 델 하몬-스페인 대표 안주인 하몬을 파는 곳. 저렴한 하몬부터 값비싼 하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윤세영 인턴과 최수정 인턴이 함께 찰칵. 3. 마드리드 거리-마드리드 거리. 4. 회사 근처- 회사 주변의 모습. 5. 에스파나 광장-에스파냐 광장 돈키호테 동상 앞에서. 윤세영, 최수정 인턴. 6. 마드리드 거리-마드리드 거리. 7. 왕궁-스페인 왕궁. 윤세영 인턴 김소영 대리와 한 컷. 8. 시청-마드리드 시청 9. 재래시장-마드리드 대표 재래시장. 엘 라스트로.



180

#### 고재승 인간 네비게이션, 그에게 시간은 다이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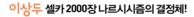
저녁에 시간이 남는 날이면 어김없이 관광을 해야 한다며 밖으로 나가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 맥주 한 캔 들고 템즈강을 건너며 감 성에 젖는 센치한 남자, 외부 스케줄로 인해 런던 곳곳을 다닐 때 면 목적지 도착 예상 시간과 최단거리를 꿰뚫어 보며 신 루트를 개 척하는 인턴계의 콜롬버스





### London

인턴소개 🚟



한없이 자상하고 지적인 전기공학도 이상두! 그의 아이폰은 2000장에 육박하는 셀카들로 가득 차 있 다. 마성의 전기공학도, 통찰력있는 시각과 깊이 있 는 사고로 런던지사의 질문 담당



#### 기주희 예비 여성 CEO

소프라노 조수미 뺨치는 초고주파 음역대 목소리와 웃음소리의 소유자, 어딜 가나 사 랑받는 눈치 백단 센스 만점! 꽃무늬 아이템 이 잘 어울리는 봄의 여왕, 러시아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유창하게 소화하는 언어의 달 인. 30대 CEO가 될 21세기 신여성



#### 고지원 영국날씨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

7년간의 캐나다 생활 내공으로 다져진 본토발 음의 소유자, 팀의 책임 통역관, 본인은 잘하는 것이 없다고 지나친 겸손을 떨지만 막상 까보면 무궁무진한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서강학파 경 영학도, 막내 같지 않은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 닌 고품격 막내



드디어 Green, Fashion, Gentleman의 나라로 떠나는 날, 나는 항상 외국을 나갈 때 마다 하는 다짐이 있다. 바로 그 나라 현지인처럼 동화되어 살다가 오는 것! 이번은 'Londoner'가 되어보자' 굳게 다짐하고 인턴사원의 준비물인 강한 체력과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런던은 특유의 여우비와 조금은 쌀쌀한 날씨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도착 다음 날 현대 중공업 런던지사의 주재원 분들은 첫 출근한 우리를 환한 미소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다.

다른 나라의 지사와는 달리 여러 회사의 지사와 법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런던의 특이성을 반영하여 가삼현 지사장님께서는 우리들이 10곳이 넘는 범 현대 그룹을 모두 방문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셨다. 한 달 동안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며 업무를 보조하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며 각각의 회사마다 진행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지점장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했다. 인턴 생활 2주가 막 지난 현재까지 우리는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현대 Innocean, 현대건설, 현대 Logistics, 현대해상, Lloyd's, Willis를 방문하였고 현대상선, 현대증권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 범 현대 그룹사내 각각 법인과 지사에 근무하시는 주재원들의 말씀을 들으며 주재원분들의 생활과 생각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고 현지인들이 진행해 주신 발표를 통해 영국 현지만의 특이한 사고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었다.

현대 중공업 사무실에 있을 때면 주재원 분들이 내주신 리서치 업무를 하며 업무 시간을 보냈다.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면 런던 시내에 나가 쇼핑을 하기도 하고 발레나 뮤지컬도 관람하였다. 특히 주말이 되면 공원에 나가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벼룩시장에서 런던 특유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근교로 나가 역사적인 장소도 방문하는 등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알차게 생활하였다. 특히 2012 런던 올림픽의 열기를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이곳 런던에서 정말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



7월 9일 런던에 도착하여 4주간의 런던지사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첫날 도착해서 런던지사 과장님의 인솔을 받아 한 달간 머물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사실 4주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되긴 했다. 다행히도 런던지사장인 가삼현 전무님께서 런던소재 현대계열사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과 간단한 프로젝트들을 맡겨주셔서 그 프로그램대로 인턴생활을 진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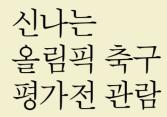
출근 다음날부터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Innocean, 현대건설, 현대로지스틱스, 현대해상 등 다양한 회사들을 방문해서 중공업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평소 관심이 전혀 없었던 물류업과 광고업계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배우고 나니 새로운 분야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시각이 넓어져서 매우 유익했다.

런던인턴 4명이 여기 와서 단순히 회사관련업무만 한 것은 아니다. 과거 찬란했던 대영제국의 수도였던 런던에서 런던의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적인 공연문화의 메카인 영국에서 발레공연을 관람했고, 그외런던의 수많은 유적지와 미술관 등을 관람하며 런던에서만 할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했다.

지금 런던은 2012 런던 올림픽 때문에 한창 도시 전체가 올림픽의 열기에 휩싸여있다. 우리가 있는 기간이 올림픽 시작 3주전이 여서 한 도시에서 어떻게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하루하루 눈에 담을 수 있었다. 또한 지사장님의 배려로 올림픽 축구 대표 팀의 평가전을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얻었고 마지막 주에는 올림픽축구 조별예선전인 스위스 전을 직접 보기로 예정되어 있다. 정말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인턴생활에 임하겠다.

# 하이드 파크와 켄징턴 가든을 가다!









런던의 여름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쌀쌀했다. 이례적인 7 월 여름의 날씨에 실망하던 중 드디어 런던에도 비가 그치고 본 격적인 여름이 찾아 왔다. 우리는 뒤늦은 여름을 만끽하고자 주 말을 맞이하여 영국의 대표적인 명소인 하이드파크와 켄징턴가 든을 찾아갔다. 1730년경부터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된 하이드 파크는 도심 속 낙원이었다. 다른 명소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350헥타르에 이르는 공원에서 조용히 누워 호수를 바라보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피 크닉을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독서를 하는 사람 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는 공원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중요 시 하는 영국인들의 삶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이드파크 걸 으며 우리는 하이드파크와 인접해 있는 켄징턴가든으로 발걸음 을 옮겼다. 켄징턴가든은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마지막으로 거주 했던 궁전 앞에 있으며,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고 있었다. 적어도 수 백 년은 됐을법한 나무와 호수, 그리고 낡은 공공시설물을 보 면 영국인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 는지를 알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은 국민의 세금으 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국민에 게는 아름다운 공원을, 국가에게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우리들은 전 한국축구협회 사무총장 이셨던 현 가삼현 지사장 님의 도움으로 올림픽 평가전 관람하게 되었다. 지사장님은 이 전에 히딩크와 아드보카드 감독을 섭외하셨던 분으로, 처음 지 사장님을 뵙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난다. 금번 평가전은 런 던에서 버스로 2시간가량 떨어진 STEVENAGE 4부 리그 클럽 이 있는 작은 동네에서 하게 되었는데 작은 규모의 경기장이었 기에 실제로 경기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 다. 실제로 나는 구자철 선수와 악수도 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 기도 하였다. 한국응원단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응원과 함께 경 기가 시작되고, 경기 시작 3분 만에 기성용의 발끝으로부터 첫 번째 골이 터져 나왔다. 한국 팀의 응원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 고 우리 인턴사원 네 명도 이에 뒤질세라 목이 터지게 응원하고 또 응원하였다. 구경 온 영국 현지인들조차 한국 팀의 응원열기 에 휩쓸렸는지 언제부터인가 '짝짝짝짝짝 대한민국!'을 같이 외 치고 있었다. 우리 인턴사원은 응원 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대 한민국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에도 충실했는데 특히 경기를 보 러온 많은 아이들에게 한국의 응원법을 재미나게 소개해 주었 다. 결과는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3:0 완승으로 끝났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 **Photo Essay**

1. 드디어 런던의 여름이 오다! 쌀쌀했던 날씨는 온데간데 없고 작렬하는 태양이 우리를 향해 인사하다~ 런던의 심장 런던 브리지에서 올림픽 로고와 함께. 2. Waterloo station에서 나와서 5분만 걸으면 보이는 런던의 눈! 런던아이! 수많은 관광객으로 와결와글 우리도 그곳에 함께 했다. 3. 재보험계의 큰별 Lloyd's를 방문하다! 현대해상의 이상수 소장님과 Willis의 한성우 과장님의 도움으로 Lloyd's 입성! 4. 런던아이에서 박벤으로 걸어가는 걸은 많은 예술인들로 가득차 있었다. 너무 멋있었던 스코티쉬 아티스트! 5. The Kensington garden의 꽃들이 만개한 예쁜 정원 앞에서 꽃보다 더 예쁜 김주희, 고지원 인턴사원과 함께 찰칵! 6. 우리는 이 사진의 제목을 이렇게 짓고자 한다. 제목 :이 과장님과 신입사원. 아름다운 코벤트 가든에서 찰칵. 7. 런던아이를 지나 다리를 건 너면 러던의 심장 박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벤에 오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가치는 얼마나 될까? 8. 중당, 혹은 초당일수도 있는 아이들과 1초만에 친구를 맺은 우리의 연장자, 이상두 인턴의 심장 박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벤에 오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가치는 얼마나 될까? 8. 중당, 혹은 초당일수도 있는 아이들과 1초만에 친구를 맺은 우리의 연장자, 이상두 인턴의 첫출근! 당당한 걸음을 보라 열정 가득 파이팅 넘치는 우리들!









#### 서<mark>민예</mark> 이스탄불인기녀, 한국어의 달인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인기녀. 한국어로 터키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표현력의 귀재. 손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인턴 생활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열정적인 그녀



# Istanbul

인턴소개 🔼

#### 박찬송 터키어 전공, 야행성

터키어 전공자답게 터키어로 원어민들과 대화도 가능한 능력자. 야행성 체질이라 아침에 일어나 는 것이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회사에선 누구보 다 열정적인 청년. 한국인들은 잘 못 먹는 터키 음식도 척척 먹는 걸로 봐서 그녀는 이미 터키인



### 서만예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나의 터키 체험기

꼬박 12시간을 날아 터키에 도착했다. 한참 만에 도착한 터키는 한증막 같이 후끈하고 뜨거운 날씨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첫 출 근은 '충격' 그 자체였다. 주재원 한 분, 현지 직원 두 분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약간은 단란한 분위기의 사무실을 떠올렸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사무실을 보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 충격은 업무에서 부딪힌 나의 부족함이었다. 지사장님께서는 영문과 출신이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함 것을 지시하셨다. 터키

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터키 정부 인사들과 회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논점들을 영어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영문학을 전공했고 또 토익 공부 역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비즈니스 영어는 처음 접했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일단 첫 문장의 '공장 부지'에서 '부지'를 Place로 옮겨야 할지, Site로 옮겨야 할 지부터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Place도 Site도 아닌, Land라는 단어를 쓴





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자괴감을 느꼈다. 그 동안의 내 영어 공부가 다 허망하게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차근 차근 배우면, 인턴 생활이 끝난 후 실무 영어에 있어서 자신감도 얻고 실력도 얻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인턴을 하면서 터키의 역사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 리비아의 뉴스에 민감해졌다. 솔직히 평소에는 유럽이나 미국에비해 북아프리카의 정세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던 것이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스탄불 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5개국에이르다 보니 그 곳의 정치, 경제에 대해 민감하게반응 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긴급한 뉴스가 쏟아졌다. 놀라운 것은 국내 언론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현황에 대해 극도로 적은 분량의 뉴스만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하니, 그들은 1분 1초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립하고 싸우고 죽어가고 있었다. 특히 북아프리카 쪽은 아직 사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지 않아서 앞으로 건설 장비 영업에 있어서 전망이 밝은데,이쪽의 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지사에 대한 소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터키뿐만 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그리고 북아프리카 5개국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지사라는 점이었습니다. 터키가 중동,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 지사에서 주로 터키어로 된 문서와 현지 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터키 정부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와 터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최신 뉴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터키 내의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딜러사의 조직도를 번역하였는데, 처음으로 엑셀을 사용하여 제 손으로 직접 문서를 작성해 보았고, 번역하면서 터키 기업의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건설분야와 관련된 문서들을 번역하면서 최근 터키의 건설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더잘 파악할 수 있었고, 건설시장동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처음 아산나눔재단 청년인턴에 지원할 때부터 항상터키 현지에서 영업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가장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사장님께서는 직접 터키 시장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터키에나와있는 다른 한국 기업의 지사장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터키 현지 비즈니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새롭게 인턴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맨 몸으로 경험한 이스탄불



#### 이스탄불 사람들은 친절하다

그들은 이방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당하게 대답해준다. 터키 억양이 강한 영어로, 또 만국 공용어인 바디 랭귀지로성심 성의껏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길이라도 마치 아는 것처럼 친절하게 알려주고, 내가 믿을 수 밖에 없도록(?) 자신감 넘치게 알려준다. 정말로 길을 몰랐던 나는 몇 번이고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

### 이스탄불의 음식은 극단적이다

가장 먼저 먹었던 터키 음식은 '아다나 케밥(Adana Kebab)'이었다. 한국에서 먹던 소고기와 달리 기름지고 짠 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쿄프테(Köfte) 역시 기름지고 짜기는 마찬가지였다. 터키식 커피는 극단적인 음식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쓴 맛이 나면서 동시에 단 맛 또한 강렬했다. 누군가 터키식 커피는 '죽음처럼 쓰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만큼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다. 유명하다는 관광지를 갈 때마다 내가 터키에 너무 일찍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들었다.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구석구석 유지보수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꼭 완성된 아름다운 이스탄불을 보기 위해 다시 이스탄불을 방문해야겠다.



# 이스탄불의 선물

박찬송



터키의 바다 중 나는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를 가장 좋아한다. 보스포러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스탄불이 참 축복받는 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낮에도 밤에도 맑아도 흐려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마냥 아름다운 바다로 보이다가도, 1km 남짓한쪽의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나뉜다는 사실은가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배를 타고, 또는 차를타고 10분만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수 있는 도시라니 참 매력적이다. 관광객 들에게 잘 알려진 술탄아흐멧 지구 외에도, 프랑스 작가 피에르로티가 자주 와서 글을 쓰곤 해서 피에르로티 첫집(Pierre Loti Kahvesi), 보스포러스 다리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베쉭타쉬(Beşiktaş)와 오르타쿄이(Örtaköy),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가 있는 베벡(Bebek)까지 보스포러스를 따라가는 이스타불 여행도 꼭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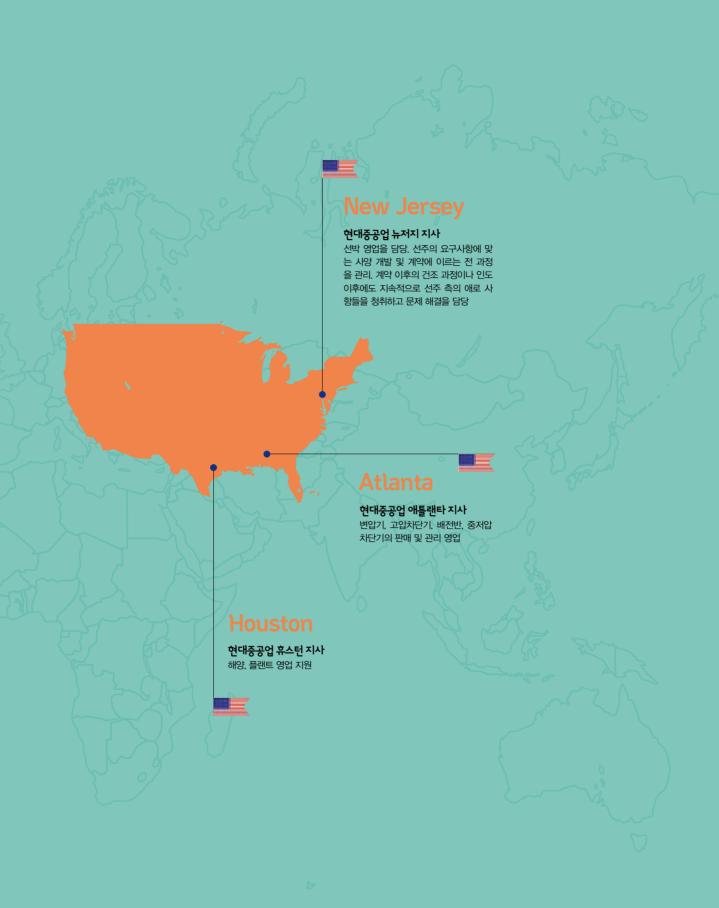
두 번째로 방문한 이스탄불이지만, 바다를 보러 가는 날은 언제나 마음이 설렌다. 차이(Çay) 한잔과 함께하는 보스포러스 구경은, 항상 뭔가에 쫓기듯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터키인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이스탄불의 선물이다.



## **Photo Essay**

1. pierre loti 언덕.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예쁜 소녀와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2. 터키어를 한국어로 번역중인 찬송. 몹시 집중한 모습을 몰래 찰칵! 3.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 서장환 차장 님과 찬송, 민예 4. 탁심 거리의 모습. 오래된 건물들이 멋스럽습니다. 5. 술탄 아흐멧 지구로 이동하는 중 버스 안에서 찬송과 민예 6. Ayasofya 2층 갤러리. "데이시스"라는 제목의 예수와 마리 아와 요한의 그림입니다. 이슬람교에 의해 회로 덮여져 있던 것이 복원되는 중이랍니다. 7. 술탄 아흐멧 모스크 내부의 모습. 8. 술탄 아흐멧 지구에 도착한 찬송. 9. 가이레테페 도로 위의 표지판 입니다. 잘보고 따라가면 메트로 위치도 빨리 찾을 수 있답니다.





" 청년이여 행동하라! "



#### 유한나 도전정신이투철한여성

세계를 무대로 조선 영업과 산업 동향을 익히고 싶어 뉴저지 지사에 지원한 도전적인 여성. 도시적인 환경에서 다 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 는 활동적인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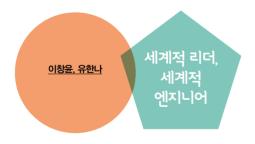


### 이창윤 예비엔지니어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세계를 무대로 삼고 싶은 예비 엔지니어. 연구가 일의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탈피하여 더 활발한 공학도가 되는 것이 꿈. 각종 스포츠와 여행을 즐기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적극적인 남자

# **New Jersey**

인턴소개 🔤



항상 세계적인 리더(유한나), 세계적인 엔지니어(이창윤)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저희에게 이번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 인턴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 가는 현대중공업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치 않게 미국 Rhode Island 주와 Washington DC에서 어린 시절을 각각 보

낸 적이 있는 저희는 미국 동부 지역의 문화를 다시금 느낄수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10여 년 만에 다시 느낀 미국 공기는 어린시절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려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대 중공업의 업무를 배우는데 있어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재단과 회사의 배려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널따란 책상과 쾌적한 업무 환경, 지사장님과 과장님의 배려와 관심, 편안하고 안락한 숙소 그리고 맛있고 질 좋은 음식들은 타지에 와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저희는 회사가 하는 일을 배우고 외국지사의 업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부장, 과장님의 세심한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적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선박 영업에 관련한 업무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직접 맨해 튼 시내로 나가 다른 브로커 혹은 선주들과 협상하는 현장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파트너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늘 주도권을 손에서 놓지 않는 직원 분들의 모습에서 영업 현장의 생생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장하지 못한 회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영업 파트너가 한 팀이라는 것을 알기에 현대 중공업의 다른 모든 직원들이 각자 자기할 일에 더 열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 달간의 짧지만 소중했던 인턴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화려한 전광판과 명품 매장들로 빛나는

# 미드타운 탐방기!



이창윤, 유한나

#### 세계의 교차로 타임스 스퀘어

타임스 스퀘어는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함께 뉴욕을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타임스 스퀘어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브로드웨이 공연장이 집중돼있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초콜릿 박물관도 있었는데, M&M's 월드 뉴욕과 허쉬즈타임스 스퀘어가 그곳이었다. 타임스 스퀘어의 중심에 있는 M&M 뉴욕 매장은 외관 3면이 유리병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대한 ICD전광판이 붙어있어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내부에는 유머러스하고 쾌활한 분위기로 꾸며 있었고, 다양한 M&M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맞은편의 허쉬즈 타임스 스퀘어도 초콜릿을테마로 꾸며져 있었다. 매장 중심에 소용돌이치는 듯한 거대한 키세스 초콜릿과 축구공 크기만한 키세스 초콜릿 등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초콜릿이 있어서 먹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없었다.



### 생동감 넘치는 거리, 브로드 웨이

공연을 볼 시간이 되어서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브로드웨이 공연장으로 걸어갔다. 브로드웨이는 맨해튼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을 잇는 거리의 이름이기도 하고, 뉴욕의 뮤지컬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일 밤마다〈위키드〉,〈라이온 킹〉,〈맘마미아〉,〈오페라의 유령〉등 최고로 불리는 뮤지컬들이 공연되는데, tkts라는 티켓 판매대에서 당일 혹은 다음날 공연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있었다. 우리는 아바의 음악으로 유명한〈맘마미아〉공연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홍에 겨워서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정말 신나고 소름이 끼치게 멋진 공연이었다. 10시 30분에 모든 브로드웨이 공연이 끝나면 브로드웨이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데, 이러한 화려하고 붐비는 도시의 모습이 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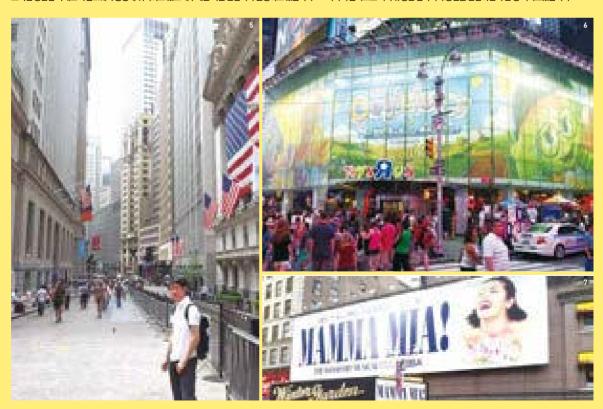
#### '도시 속의 도시' 뉴욕 5번가

5번가는 뉴욕 최고의 쇼핑가로 불리는 곳으로 명품 브랜드와 백화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은 쇼핑가로 더욱 유명 하지만 과거에는 뉴욕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이 모여 시는 곳이었다고 한다. 록펠러 센터는 1928년 록펠러 2세가 지은 '도시 속의 도시'이다. 도시의 중심에는 GE빌딩이 있는데, 70 층의 빌딩으로 최고의 전망대중 하나인 탑 오브 더 록과 NBC 스튜디오가 있다. NBC스튜디오는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하 나로 한 시간 정도의 투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겨울에는 이 곳에서 스케이트도 할 수 있다는데 여름이어서 분수대만 볼 수 있어서 약간은 아쉬웠다.



## **Photo E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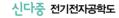
1. 맨하탄에서 제일 붐이는 월드트리트 인근 거리입니다. 2. 허쉬스 초콜렛 월드2 - 세계에서 제일 큰 허쉬스 초콜렛을 들고 한 장 찰칵 3. central park - 사각형의 길쭉한 시민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공원이자. 많은 뉴요커들의 휴식처입니다. 4. 지사 주변이 auto mall이라서 다양한 자동차 전시장이 있습니다.페라리, 마세라티 자동차매장입니다. 미국은 자동차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종류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출근길이 항상 즐겁습니다. 5. financial district -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wall street의 건물들입니다. 6. Toys r us - 미국의 대표적인 장난감 가게로 타임스퀘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내부에는 작은 관람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7. 아바의 음악으로 더욱 유명한 맘마미아 공연을 관람하면서 한 장 찍어보았습니다.



#### 채희짓 예쁜 여자이름을 가진 남자

덕분에 남성분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나쁜 남자. 조용한 편이지만 종종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4차원 (본인은 모른다)





전공과 관련하여 전기전자영업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쁜 다중. 해외인턴 으로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청년

# **Atlanta**

인턴소개 🔤

신다중

가족 같은 분위기의 애틀랜타 지시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미국의 다른 서부나 동부지역과는 다르게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동부의 중심 거점입니다. 노크로스 지역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은 1층에서 애틀랜타 법인이 건설장비를 주로 다루고, 2층에서 애틀랜타 지사가 전기전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수 차장님을 중심으로 김학현 대리님 그리고 장은교 사원님이 현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소규모라서 그런지 사원분들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파견을 수시로 나가시고 사원님은 초기에는 휴가 중이라서 처음 저희 인턴 두 명을 맞아주신 건 김학현 대리님이셨습니다. 어색한 첫만남에 아직도 긴장되지만, 특유의 유머와 미소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무척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온 장은교 사원님은 저희 지사의 유일한 여성분으로서 사무실의 분위기 메이커 셨고 이환수 차장님은 직원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등직한 리더였습니다.

짧은 1개월간이라서 핵심주요업무를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C-GIS 매뉴얼 스페인어-영어 번역, 주요 글로벌 EPC 업체의 주요 연락처 조사, 보고서의 핵심내용 요약, 〈From Edison to Enron · Richard Munson〉이란 책 요약, 주간 지역 정보 갱신 업무 등 일반적이지만 넓은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애틀랜타 법인장 전무님께서도 간간히 올라오셔서 현대중공

업의 해외 업무와 미국시장 개척에 대해서 뜻 깊고 다양한 이 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인근 현대중공업 앨라배마 법인에 방문하여 플랜트견학과 더불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제 자신에게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유익 했던 시간들

처음 애틀랜타에 도착한 날이 생각납니다. 여름날 미국의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처음 맞아주신 분은 현대중공업 전기전사업부 애틀랜타지사 김학현 대리님이었습니다. 대리님의 현대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약 40분 이후에 도착한 곳은 숙소 근처의 한인식당 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 종업원 분의 친절한 응대와 함께 한국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맛있는 불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20분 정도 떨어진 노크로스, 덜루스는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IA, 뉴저지 다음 가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곳에서는 어딜 가든한국어로 된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버지니아주 한인타운 근교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어 간판이 신기하지는 않았지만, 버지니아보

다 훨씬 큰 한인촌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애틀랜타에서 저희들의 인턴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배우고 또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또한 그리 큰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고 전기전자사업부가 무엇인지, 해외영업이 어떤 일이며 주재원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정도면 충분하게 많을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사 분들께서는 저희가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시켜주시기도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현대중공업과 전기전자사업부, 그리고 해외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약 3시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앨라배마 법인의 공장까지 견학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에는 여행을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까지 마련해 주셔서 후회없는 뿌듯한한달간의 인턴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애틀랜타의 공기, 한국보다 더 맛있는 한국음식들,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 하나 하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들이 될 것 같습니다.

# 두 한국 청년의 애틀랜타 문화 체험기!



# 따로 또 같이 미국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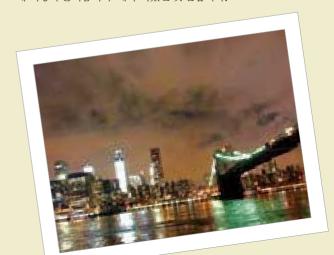
애틀랜타지사에 파견된 한달 동안 평일에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하였고 주말에는 현지체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말에는 차를 빌려 동료인턴과 함께 애틀랜타 다운타운을 구경하였습니다. CNN본사, 조지아 아쿠아리움, 월드 오브 코카콜라 등 여러 명소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애틀랜타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NBAF 흑인축제는 현장에 동양인이 저희 두 명일 정도로 현지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주말에는 현대중공업 사원 분들과 애틀랜타 근교의 차타누가 지역의 루비폭포와 록시티를 방문하였습니다. 깊 은 자연동굴 속에 거대한 폭포를 구경할 수 있었고 락시티 에서는 잘 꾸며놓은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여유로운 주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턴기간 마지막에는 1주일간 자유여행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료 인턴과 각각 일정을 짜서 자기주도적인 여행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을 방문하여 나이아가라를 거쳐 시카고를 여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소 빡빡한 일정이힘들었지만 몸이 힘들더라도 미국에 온 기회를 살려서 최대한 많이 구경을 하자는 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에들어가서는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현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국 남동부 교통의 요지인 애틀랜타는 관광도시는 아니지 만 그럭저럭 여러 볼거리를 갖춘 도시입니다.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관광 명소는 뉴스 채널 CNN의 본사,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조지아 아쿠아리움, 코카콜라의 여러 광고 캐릭터들과 생산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주말에 차를 빌려 이 곳들을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흔히 알려진 미국의 관광도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인턴 기간의 마지막 주에는 개인 여행을 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보스턴과 뉴욕이 었습니다. 보스턴은 과거 미국에서 어학연수 및 인턴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고, 뉴욕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두 도시를 여행지로 선택하였습니다. 혼자서 하는 여행은 처음이었기에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여행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로 인해 여행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Photo Essay**

1. 보스턴 Public Garden - 보스턴 Public Garden에 있는 워싱턴의 기마상과 그 뒤로 보이는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의 모습입니다. 2. 아틀란타 조지아아쿠아리움 -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아쿠아리움에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크기의 수족관을 긴 시간에 걸쳐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3. 아틀란타 터너필드 - 아틀란타 브래이브스의 홍구장 아구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한국 과는 다른 아구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현대중공업 사원분들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 시키고 윌리스타워 - 여행중 시키고 윌리스타워에서 찍은 시키고 전경을 뒤로한 사진입니다. 관광명 소탑게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보스턴 Quincy Market - 보스턴의 주요 명소라고 할수 있는 Quincy Market과 커다란 시계탑의 모습입니다. 6. 뉴욕 타임스퀘어 - 여행중 뉴욕 타임스웨어에서 찍은사진입니다. 관광의 중심지역 답게 많은 인종과 문화를 접할수 있었습니다. 7. 조지아 아쿠아리움 -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있는 조지아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는 해파라들의 모습입니다.







#### 갓다혜 깡다구, 럭키걸

고려대학교 심리학, 경제학 4학년 취준 생. 아시아 지원했다가 미국 4대 도시 휴 스턴까지 운 하나로 오게 된 럭키걸. 끈기 와 당돌함이 있어 생긴 별명은 '깡다구'. 미국으로 와서 시야와 견문, 그리고 생각 의 폭이 눈에 띄게 확장됐다는 당찬 여자



#### 엄미선 글로벌인재

미국, 일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국적의 클라이언트들과 현대중공업의 해양사 업과 플랜트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에 참여 중. 내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현대중 공업 OTC Reception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글





인턴소개 🚾



#### 강다혜

<u>휴스</u>터에서

사실 체험 수기라고 하기에 2주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첫 주에 도착하고 숙소에서 짐 풀고, 어영부영 사무실과 주재 원분과 현지인분 소개받으니 1주일이 끝났고 출장자들 오셔 서 인사하고 전화 몇 번 하니 2주일이 끝났습니다. 물론 미 국 유명 건설 회사 FLUOR 회의에 참석하고, 국영 석유 회사 ECOPETROL 사업 담당자를 만나고, SASOL에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호텔을 잡으며 경험했 던 미국 문화와 미국인들과의 대화 등 짧은 시간동안 알찬 생활을 했지만, 사실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짧지만 알찬 인턴 생활을 통해 많이 강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별명은 '짱다구'로 원래는 이름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지만, 여기서 제 '짱다구'가 실제로 많이 길러졌습니다. 미국은 아직 현대중공업이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고, 미국 자체가 세계 최강 대국이라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확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거절당하면서도 도전하고, 맡은 일을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해결해내면서 제 성격 자체도 치열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은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7월 18일 현대중공업과 ECOPETROL이 사업 회의을 가졌습니다. ECOPETROL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국영석유회사입니다. 회사는 휴스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Williams' Building 51층에 위치하고 있어 미팅룸의 큰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가 장관이었습니다. ECOPETROL의 Head of Procurement이신 Mr. Jose Vincente Velasco씨는

차장님과 엄미선 인턴 그리고 강다혜 인턴을 회의실로 친절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Supply Chain Specialist이신 Mr. Hernan Gutierrez씨도 회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미팅의 주목적은 현대중공업의 플랜트사업 분야를 소개하고 ECOPETROL과 함께 일할 기회를 모색하는데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해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이뤄온 업적들을 소개할 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ECOPETROL측에서는 그 중 특히 플랜트분야와 그런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Jose Vincente Velasco 씨께서는 강한 사람이 부는 콜롬비아의 특성을 감안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의 우수한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며 현대중공업이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보며 현대의 글로벌 정신과 도전정신을 깊이느낄 수 있었습니다.







# 휴스턴에서

# 자연과 우주를 느끼고 오다!





#### 휴스턴 동물원 방문기

첫 주에 계속 비가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주말에 처음으 로 날이 개어서 근교 휴스턴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찾은 가족이 매우 많았습니다. 대 부분의 서비스 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친절하지만, 동 물원 직원들은 아이들을 대해서 그런지 더욱 상냥했습니다. 사실, 대학생에게 동물원이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휴스 턴 동물원은 한국 동물원의 동물들보다 많고 이국적인 동물 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류, 포유류, 어류 등을 포 함해서 얼룩무늬의 사슴, 버팔로, 아프리카 코끼리 등은 아이 가 아닌 저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다 둘러보는데 대략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빠른 걸 음 덕분에 1시간 30분 정도로 모든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리 고 온갖 동물 관련 기념품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친구들, 가족들에게 줄 인형, 볼펜, 안마기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 족 단위, 연인 단위, 친구 단위, 어떻게 오든 함께 즐길 수 있 는 문화시설이자 유원지, 휴스턴 동물원이었습니다.



### Space Center Huston 방문기

나사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의 약 칭으로 1915년에 설립된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미국항공자문위원회)를1958년에 개편하여 창 설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비군사적인 우주개발을 관할하고 종합적인 우주계획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또한, 항 공우주 활동 기획 및 지도 실시, 항공우주 비행체를 이용한 과 학적 측정과 관측 실시 및 준비, 홍보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 는 곳입니다. 저희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Space Center Houston에 방문하였습니다. 나사는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우주박물 관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NASA 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실 제 우주복, 우주선들이 전시 되어있었고 다양한 우주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공포체험이 인상 깊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맞닥트릴 수 있는 소리, 촉감, 중력, 우주생명체 등 에 의한 공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스릴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체험이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나사 연구소에 방 문하기 위해서는 약 2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트램을 타고 도착한 나사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나사직원들이 연구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로호 발사를 위한 발사대를 성공적으로 제작한 현대중공업 또한 대단하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의 인턴 생활을 통해 또 하 나의 특별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 **Photo Essay**

1. NASA 우주복 입은 우주 비행사 모형과 함께 엄미선 인턴 한 컷. 모형물의 빛이 밝아 사진이 밝게 나옴 2. 휴스톤이 남부라 멕시칸이 많아 그 음식 또한 발달해있음, 여기는 현대중공업 휴스톤 지사 근처 멕시칸 음식점 사진으로 밤에 분위기가 좋음 3. houston zoo - 아프리카 북같이 생긴 전통 악기를 두드리며 강다혜 인턴 한 컵 여 한다 엄마선 인턴 한 첫 4. 현대 중공업 휴스톤 지사 - 그간 휴스톤 지사가 받았던 성을 모아놓은 유리 상자, 제일 밑에 건설장비 미니 모형이 귀여워서 한 컷 5. NASA - 미국이 쓰여진 우주선 앞에서 강다혜 인턴 한 컷, 날은 매우 덥고 자판기는 잔돈을 삼키는 악조 건속에서도 인증삿을 남기고자 고군분투함 6. NASA 외부연구소에 들렸다가 내부로 돌아가는 트램을 기다리며 커다란 우주왕복선을 배경으로 한 컷 7.미팅 후 돌아오는길에 점심을 먹으러 들 린 골프 리조트를 배경으로 엄마선 인턴 한 첫 8. 미국에서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 하드라카페에서 점심으로 햄버거, 비록 주차권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맛은 있었음





생년에게 부치는 편지 🧦



##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도 적극 도전해보시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두 인턴 학생과 첫 미팅을 가진지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달력은 7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2주 후면 두 분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졸업반 대학생들처럼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있겠군요.

두 분을 보니 문득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현대중공업 합격 통보를 일찍 받은 터라 다른 회사에 지원은 하지 않았으나, 울산 본사에서 긴장하면서 면접을 보았고, 간절하게 저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합격 결과를 기다렸던 점에서는 두 분 및 다른 취업 지원자 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 두 분께 강조한 바와 같이,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기업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행 착오를 겪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동일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각자 보유한 특기를 가지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각자 추구하는 우선 순위가 있을 테고, 단기적으로는 내 동료가 나보다 더 빠르고 탄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 만사 모두가 그렇듯, 내가 진실로 내 일을 사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두 분 모두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모두 다르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현대중공업의 최대 장점은 나이 및 성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초기 한 번의 실수 혹은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기업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연봉이 높은 대기업들은 많겠지만, 현대중공업과 같은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가지 단점을 집어 낸다면, 업종 특성상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지만, 이 부분 역시 두 분이 회사에서 관리자 직급까지 성장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두 분이 현대중공업 최초 여성 임원이 되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도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전공인 스페인어 특기를 십분 활용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당사 제품 영업 업무 혹은, 유럽 대륙에서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스페인에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제품 영업 업무 등 두 분이 현대중공업 혹은 다른 한국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무궁무진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셨던 현대 창업자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해봤어" 정신을 바탕으로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불기능해 보이는 일들에도 적극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듯이, 저도 두 분을 당 지사의 최초 인턴 만나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복귀한 뒤에도 항상 건강하고, 회사나 사회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기 바랍니다



## 인턴을 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큰 자산이 되었으면…

안녕하십니까 인턴사원 여러분 현장소장 최홍철 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야드 현장에 온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고도 긴 인턴기간 중 1/2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산 나눔 재단에서 리야드 현장을 배치 받고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떠한 나라인지 경험하고 싶고, 또한 생생히 살아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현장에서의 값진 경험을 얻고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간의 2주 동안 현장의 많은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면서 가졌던 초심이 어느새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이든 그렇지 않는 과거의 기억은 이미 지나갔기에 후회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대학교라는 사회적 안전 망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현장체험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 선행학습으로 배우고 깨달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적 직업 기술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대한 대략적인 전공관련 지식이나 조직 문화, 외국어 능력, 작게는 인간관계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 한 달이라는 기간입니다. 한 달은 그리 짧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 한 마디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기존의 2주를 어떻게 보냈던지 신경 쓰지 말고 남은 2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였으면 하고, 적어도 하나 정도는 리아드에서의 현장인턴 생활에서 얻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한 번 있을지 없을지 모를 기회를 경쟁을 이겨내고 쟁취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불평불만만 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살기엔 여러분의 젊음이 빛나기에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지금보다 더 험한 사회가 여러분을 맞이 할 것 입니다. 짧게 나마 타지에 나와서 인턴을 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큰 자산이 되었으면 하고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득 가지고 몸 건강히 복귀를 하길 빕니다.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하셔서 후회 없는 인턴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

한국에서 먼 이 곳, 중동의 두바이에서 만난 인연을 더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현대중공업 제벨알리지사에서 인턴생활을 함께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 라마단 기간 동안 팀의 한 일원으로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 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훗날 일하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양시상 씨와 우동용 씨는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하여 주었고, 멋진 결과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실함과 열정,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부품센터 현장 체험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 문제점 및 해결안을 제시하는 과제물을 수행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아 저희 현대중공업의 업무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빌딩 사무실의 일자리를 찾는 데서 벗어나 의미가 충만한 모험적인 삶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어떻게 투자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무대로 본인들의 웅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두바이는 사막의 땅에 무한한 상상력으로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을 때, 그 상상력도 현실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지 모르는 두 분, 양시상 씨와 우동용 씨의 멋진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이웃의 소금이 되기 위해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하는 청년으로 남아주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씩씩한 청년 전상류, 박종호군에게

인생을 삼등분하자면 배우고 익히고 습작하는 학습기, 사회의 중추로서 인생의 절정에 들어가는 성인기, 그리고 여유로 인생을 반추하는 노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전군, 박군의 경우는 학습기 전과정을 마치고 이를 마무리하는 졸업시험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학습은 배울 학, 익힐 습으로 '새끼 새가 백 번의 날갯짓을 해야 나는 법을 안다라는 의미로 모든 배움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익히는 것이 최상의 공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25년간 부모와 사회의 지도 속에 배움의 과정을 마감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첫발을 시작하려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 전군, 박군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씩씩하게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사회로 가는 시작이 취업전쟁이라는 남과의 경쟁에서부터 시작되고, 본인의 꿈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불가피하겠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장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묵묵히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칼이 강도에게는 흉기로 쓰이고, 요리사에게는 연장으로 쓰이고, 의사에게는 목숨을 살리는 보물로 쓰이니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20여 년을 배운 지식이 세상을 살리는 보물로 쓰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청년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향한 나의 Mission Statement를 만들어 보고, 이를 보물처럼 가슴에 간직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노년기가 오면 부끄럽지 않는 자서전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전군과 박군에게 하고픈 말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웃의 소금이 되기 위해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하는 청년으로 남아주길 빕니다.

비록 짧은 해외 청년인턴 뭄바이 지사 경험이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국내가 아니라 전세계이기 때문에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눈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미래의 활기찬 청년이 되길 빕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고, 씩씩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언제가 한 지붕아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한국과 그 후대를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태안법인 인턴 여러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 간이었지만,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열정적인 태도로 각자 의 부서에서 열심히 임해주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중공업은 종합예술입니다. 자동차의 동력구조에 유압시스템을 추가하여 펌프와 벨브를 통해 기름으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3톤, 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굴삭기나 휠로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부품구매, 생산, 품질, A/S 등 각 부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생산에 성공하고 제품을 판매하기에 어려운 산업입니다.

저는 설계와 품질부의 경력을 거쳐왔습니다. 초기 설계를 하면 서 각 중장비의 구조를 꿰뚫어 알았고, 품질 검사를 하면서 생산 된 중장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의 전문 가가 되었습니다. 태안법인을 책임지면서, 현대중공업이 대한 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 산과 품질, 운송 면에서 까다로운 이 산업에서 현대중공업은 중 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 리 현대 중공업 태안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열 악한 환경이지만 한국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을 알리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태안법인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한 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젊은이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Korea라 고 했을 때, "Where is Korea?"가 아닌 "Oh Korea!" 라고 들을 수 있게 만드십시오. 취업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앞으로 세계에 경제가 튼튼하고 문화가 독특하며, 타 문화 에 대한 태도가 관용적인 한국을 알리는 일에 비전을 두고 직업

을 찾길 바랍니다.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주동적으로 찾고 활용하십시오. 저는 태안법인에 있으면서 태안 및 중국시장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코트라, 무역협회 등을 통해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얻고 태안법인이 나아갈 방향에 참고합니다. 정보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지식이 쌓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해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세계에 들어가 한국을 알리려면, 그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숭이다'라는 말 들어보았죠? 그들의 문화를 알고 이해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거울삼아 'Korea of Korean'가 아닌 'Korea of World'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등 국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제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 일터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딪혀 왔듯이, 여러분들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한국과 그후대를 위해서……

현대중공업처럼 한국을 알리는 세계적 기업인이 나오길 희망하며 이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 태안 법인 부장 **송규삼** 





## 미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로테르담

김진우, 조현영 인턴사원님들께

앳된 모습의 여러분들을 스키폴 공항에서 만난 것도 이미 2주가 훌쩍 지났네요. 현재 체험하고 있는 짧은 해외지사 근무와 이국에서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값진 경험과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와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이고 지사라는 작은 조직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면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지어진 큰 컨테이너 운반선을 여기 로테르담 항구에서 승선해 본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행운은 아니겠죠? 물론, 그 선박의 규모나 처음 보는 기자재들도 신기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고, 그 선박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물류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겠지요?

다들 이미 해외생활을 조금씩은 해본 경험이 있었으니 알겠지만 이국에서 근무를 하면 한국이 살기 좋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간직하고 생활한다면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 이라고 믿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개개인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아직까지 사회에 많이 물들지 않은 여러분들과 주제를 정해 놓고 토론해 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4주라는 기간 동안에 불편함 없고 건강히 지내다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멘토의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만족스러웠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행복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과 현대중공업의 가족으로서 함께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를…

현대중공업에 두바이 제벨알리 지사에 온 한국의 학생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현대중공업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진정으로 현대중공업 물류창고의 활동과 창고관리 시스템의 규정을 훌륭히 따라준 학생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학생은 물류창고의 물품들을 통합시키는 작업과, WMS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꺼이 과제에 깊이 몰두하였으며 현대중공업과, 단자스의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받았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당신의 지식을 한층 성숙하게 할 수 있으며, 대학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당신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PDA시스템을 다루는 방법과, 현대 중공업의 전문인 중공업의 파트를 다루는 방법을 실전후련을 통해 배운 것 역시 자산이 될 것 입니다.

2012년 7월 24일에 보여주었던 WMS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감명받았으며, 당신은 현대중공업의 자산입니다

저는 당신 같은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을 현대중공업의 가족으로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 외에도 목표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 '깡'을 포기 하지 마!

#### 조한민,이현철 군에게

먼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산나눔재단을 통하여 현대종합상사 자카르타 지사에 온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벌써 온지 2주가 지나고 나머지 2주 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배워 갈 수 있도록.

다소 진부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인생, 직장, 사회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간략히 해줄게. 먼저 갈수록 어려워지고 치열해지는 취업에 거의 전 대학생활을 투자하는 후배들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해. 어느 순간부터 대학은 취업만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한 관문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모든 취업생들은 어느 정도의 외국어 점수와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자격증 보유, 어느 정도의 해외 경험, 어느 정도의 학점을 가지고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위와 달리 '어느 정도' 쌓을 수 없는 게 열정과 끈기라고 생각해. (계속 열정과 끈기라고 하면 너무 진부하나 '깡' 이라고 할게)

우리 회사 또한 다른 직장에 다니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입사하는 후배들은 대부분 스펙은 우리가 입사할 때 보다 더 대단한테 막상 입사를 하면 면접 때 보여준 '꺙'이 없고 쉽게 포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항상 업무 그리고 업무 외에도 목표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 '꺙'을 포기 하지마.

이제 어찌 보면 인생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너희들에게 세상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시련도 많을 테고 마음먹은 데로 안될 때가 더 많을 거야.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깡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마무리 지을게.

짧은 한달 동안 제대로 된 과제 및 교육을 하기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지만 각자에게 나름 뜻있는 기간이 되었기를 바라. 나중에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 지 모르겠지만 다들 각자 하는 일 혹은 소속된 조직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보자.



##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서먹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두 분의 사회 생활에 조금 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자 드립니다.

일정 착오로 푸동 공항을 2번이나 다녀오며 두 분을 맞은 지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시간 많이 빠르지요? 저는 이 편지를 빌어서 제가 6년 반 동안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당부의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먼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는 받은 것이 많아서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는 줄 것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건 지금껏 잘 보살펴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죠? 시간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는 것을……

인디안 격언에 "친구란 내 슬픔을 자신의 등에 지고 가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슬픔을 덜어갈 친구에게 내 것을 조금 나누고 그 친구의 슬픔을 내가 조금 나누고 그러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생활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사귀어 온 많은 인연들을 놓치지 않는 현명함도 잃지 마세요.

세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사회 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요. 그럴 때 전 항상 이 말을 되뇝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가질 수 없으면 잊어라. 내 것이 아니면 버려라." 쉽지 않은 말들이지만 한번씩 되뇌면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독일 속담에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금의 아름다움 보다는 별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젊음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상해에서 많은 별들 많이 따가 시기 바람니다



## 두 사람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몇 가지를 당부 하고 싶습니다.

#### 강다혜 & 엄미선 인턴에게

우선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운데 휴스턴 지사에서 인턴을 하게 된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졸업을 앞둔 두 명의 인턴을 보면서 풋풋하다는 느낌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모습에서 저의 직장 생활 초년병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청년해외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두 사람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다음 몇 가지를 당부 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주인 의식으로 추진된 일은 나그네가 처리한 일과는 당연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인사 등과 기본 예절에 충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조직 내의 막둥이로서 대부분의 직장 선배나 동료들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은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나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의외로 이를 지키지 않는 신입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현지 문화 및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곳 휴스턴 지사에서 현지 고객과의 직접적인 미팅을 통해서 두 사람이 느꼈듯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 이해 및 스페인어 구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중남미 진출을 하고 있는 이때 현지 문화 이해 및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구사 능력은, 경쟁이 치열한 작금의 구직 시장에서 여러분을 다른 구직자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바라며, 건강하시고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력적인 관광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 승연에게,

우리 아테네지사는 두 명의 한국인과 제가 일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지만, 늘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는 역시 같은 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과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 피레우스나 아테나는 물론 남/북지방에 있는 회사들을 방문하기에 최적인 장소입니다.

아테네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험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시장의 하나이며, 전통적으로 해양강국이고 해양업에 종사하는 것이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느긋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실제로 "천천히, 천천히"를 의미하는 "시가, 시가"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인의 성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의 현 정치ㆍ경제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이는 많은 이들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곳에서 환상적이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력적인 관광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 전문적인 경험을 쌓으며 근면하게 일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각자 긴 경력선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내적으로 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을 찾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직원으로서, 저는 회사에서 기술을 익히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으며 근면하게 일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념을 이해하고 회사만의 특수성을 받아들이며, 회사와 한 팀이 되어 새로운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또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닥칠 시련에 대해 준비를 하고, 그 시련 속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극복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서 '현대중공업'의 적극적인 인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대한 성실함과 근면성,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편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좋은 문구 하나를 말하고 싶습니다. '노동은 사람의 삶을 색칠해줍니다.' 이 문구에서 그 노동이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란 색깔로 자신을 칠해보세요.



### 약속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답니다.

미셜(현영)과 제이(진우)에게

미설과 제이, 저는 네덜란드라는 국가와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쓰도록 할게요. 네덜란드에서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도 쓰고 싶어서 약간의 인터넷 조사도 했답니다. 저는 주로 17년 동안 맥주 공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에서의 근무 경험은 일반 회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덜란드 직원들은 그들의 개인 시간을 소중히 여기므로, 회사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기대하는 동양적인 문화는 조금 다르답니다. 네덜란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에요. 또한, 상사와 일반 직원과의 관계가 매우 수평적이고, 직급에 상관없이모든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러므로 명령과 지시만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해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동양 문화권과 달리,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중한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답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비판은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어(Dutch)를 배우려는 외국 사람들의 노력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영어를 잘 한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실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대화할 때 눈을 편하게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은 신뢰감을 준답니다. 약속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답니다. 미팅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매우

큰 실례이며,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미리 연락해 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비즈니스상의 예의랍니다 또한, 회의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비즈니스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답니다. 시간과 관련된 일련의 매너는 당연한 것이며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 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덜란드에 대한 자유로운 이미지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에서의 자유(freedom)는 "나를 가 만히 나둔다면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정신과 실용주의 그리고 다양성 존중이라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되 었답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약한 마약과 안락사가 허 용되긴 하지만 매우 엄격한 규율 하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아무 나 마약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 시에 구매자, 구매량 등 을 기록하여 일정 양 이상 구매를 금지하며, 개인이 소비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재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안 락사 역시 주치의의 엄격한 진단 후에 가능하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최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를 원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대해 더욱 쓸 수도 있지만 이미 미셜과 제이가 충분 히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 현대중공업 로테르담 지사 비서 Ingrid Schouten



## 어떠한 시련이나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 오지현, 고정민님께

현대중공업 싱가폴지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정이 매우 짧기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지사에서 다양한 부서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실무능력이, 미래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졸업이란 자신이 성취한 바를 축하하는 시간이고, 학교생활의 피날레이며, 삶의 한 부분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후에도 반드시 공부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란 곧 교육이며, 현재 자신이 이룬 것은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고 결국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바를 꿈꾸시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은 한번뿐이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원하는 것을 모두 이를 수 있는 기회 또한 단 한번뿐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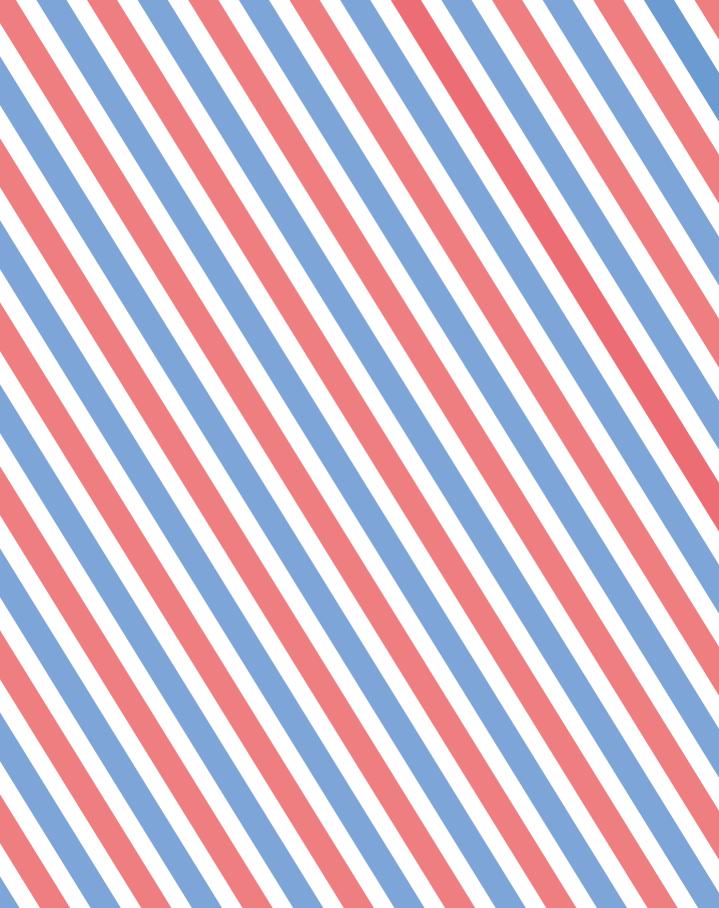
살다 보면 학교 또는 직장에서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강한 기질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학업이나 직장 일사이에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나 직장생활에서 받는 영향은 그 범위가 큽니다. 동료들에 의해 받는 사회적 압력은 무시해서도,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 내에서 당신과 어울리는, 당신의 위치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또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력은 항상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한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황은 더 좋은 쪽으로 나아 질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십시오.

두 분의 밝고 유망한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가자! 세계로

젊음 안에 숨겨진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깨우는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인턴 파견 사업

